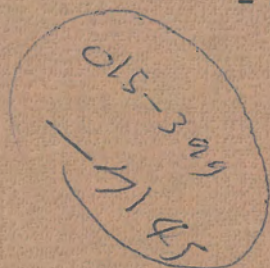


1995년도

사학과 가을철 정기 답사

- 중원, 안동 문화권을 중심으로 -



지도 : 김준석, 방기중 교수님
일시 : 1995년 10월 4일~7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 답사 일정과 경로 >>

10월 4일 수요일 : 제 1 일

서울 출발(9시) - 배론 성지, 점심(12시 30분) - 의림지(2시) - 청풍 문화재 단지(4시) - 단양적성비(5시 40분) - 단양숙소도착(8시)

10월 5일 목요일 : 제 2 일

단양 출발(8시) - 죽령산신당(8시 30분) - 영주순흥고분(9시 40분) - 소수서원(10시 30분) - 부석사, 점심(12시) - 도산서원(3시 30분) - 안동 전탑 (5시 30분) - 봉정사(6시 20분) - 하회마을 숙소도착(7시 40분)

10월 6일 금요일 : 제 3 일

가상(8시) - 하회마을, 병산서원(10시) - 문경관문, 점심(12시 30분) - 미륵사지(5시) - 수안보 숙소도착(6시)

10월 7일 토요일 : 제 4 일

수안보 출발(8시) - 단호사 철불(8시 30분) - 충주 박물관(9시) - 탄금대(10시 15분) - 중원탑, 중원 고구려비(11시) - 청룡사, 점심(12시 50분) - 가흥창지(2시) - 서울도착(6시)

<< 답사 지도 >>



<<답사 지역및 유물 · 유적 소개>>

1. 제천을 중심으로.

이규섭(조장), 정장원, 황유지, 이순이, 장세정
장원석, 정철원
주현선, 김정은, 최지향, 이지연, 이종철, 이태준, 김장연

◀ 제천(堤川) ▶

1) 지역개관

충청북도 북부, 제원군의 중앙에 위치한 시. 동쪽은 단양군과 강원도 영월군, 서쪽, 남쪽, 북쪽은 제원군과 접하고 있다.

이 시는 제천분지의 중심지에 발달한 신흥도시로, 북쪽에 용두산(龍頭山, 871m), 동쪽에 가창산(歌唱山, 820m), 왕박산(王朴山, 598m), 호명산(虎鳴山, 475m), 서쪽에 404m 고지 등의 연봉으로 둘러싸인 해발 240m의 고원분지이다. 태백산 고위평탄면의 생성 이후에 생긴 중위평탄면으로 소구릉이 기복하고 있는데, 이 시는 이러한 침식면, 특히 제천천의 상류 지류인 장평천(長坪川)이 합류하는 지점에 발달하였으며, 분지 북쪽에는 유명한 의림지(義林池)가 있다. 연평균기온 10도1분, 1월평균기온 영하 6도4분, 8월평균기온 24도9분이고, 연강수량은 1330mm이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으며, 4세기경에는 백제에 속하였다. 그뒤 고구려의 내토군(奈吐郡)이 되었다가 신라가 차지하여 757년(경덕왕 16) 내제군(奈堤郡)으로 고치고, 삭주(朔州) 복원경(北原京)에 소속시켰다. 940년(태조 23) 제주군(堤州郡)으로 고쳤고, 992년(성종 11) 의원(義原), 의천(義川)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995년 중원도에 속하였다가 1018년(현종 9) 원주의 속현이 되었고, 1106년(예종 1) 양광도에 속하여 감무가 설치되었다.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를 8도로 개편할 때 충청도에 속하였으며, 제천현(堤川縣)으로 개칭되었다. 1895년 제천이 군으로 되었으며, 1940년 제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0년 제천읍이 시로 승격되었고, 제천군은 제원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 제원군이 제천시로 흡수,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배론 성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구학2리(九鶴二里)에 위치하고 있는 천주교 사적지. 한자어로는 '舟論'이라고 하는데, 마을이 있는 지역의 계곡이 배밑바닥을 닦았다고 하여 붙여졌다. 1791년 신흥박해를 피해온 천주교인들이 웅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며 신앙공동체를 이루었고 1801년 신유박해 때에 황사영(黃嗣永)이 백서(帛書)를 작성하였던 곳도 이곳의 웅기토굴에서였다. 1855년에는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성요셉신학당이 세워져 1866년 병인박해로 폐쇄될 때까지 조선인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나 사제가 배출되지는 못하였다. 신학생 교육 이외에도 <<한불대사전>>과 <<한어문전>>, 그리고 약초를 연구한 의학서적 등이 완성단계에 있었으나 프랑스 신부를 잡아가면서 모두 불태워졌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두번째로 사제가 된 최양업(崔良業)신부가 1861년 문경에서 병으로 죽게 되자 성요셉신학당의 교장이었던 푸르

티에신부가 중부성사를 주고 시신을 이곳으로 안장하였다. 1977년부터 원주교구에서 배론신학당의 초가집을 재현시켰고 황사영현양탑, 최양업 신부기념관 등을 건립하였다.

3) 의림지(義林池)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저수지.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저수지로 손꼽힌다. 제천의 옛 이름인 내토(奈吐), 대제(大堤), 내제(奈堤)가 모두 큰 독이나 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제방의 역사가 서력기원전후의 시기까지 오르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세종실록>>에는 의림제(義林堤)라고 표기하였다. 낮은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은 제방은 길이가 530척(尺)이며, 수위는 제방 밖의 농경지보다 매우 높아서 관개면적이 400결(結)이나 되었다. 못의 둘레는 5805척이나 되고 수심은 너무 깊어서 젖 수 없다고 하였다. 상주의 공검지(恭儉池)나 밀양의 수산제(守山堤), 김제의 벽골제(碧骨堤)와 같은 시기의 것이지만 제방의 크기에 비하여 물리면적이 큰 것은 제방을 쌓은 위치의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는 물의 주입부에서부터 토사(土沙)가 쌓여 작아진 것이다. 제방은 산줄기 사이의 낮은 위치에 자갈과 흙과 모래, 벌흙을 섞어서 층층으로 다지되 제방 외면이 크게 단(段)을 이루도록 하였다. 단면이 이중의 사다리꼴을 이루고 외면은 석재로 보강하였다. 출수구는 본래의 자리가 원토인 석비레층으로 그 위에 축조되었던 것이나 지금은 원형(原形)이 사태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패어나간 흔적만 남아 있다. 이 제방은 신라 진흥왕 때 우륵이 처음 쌓았다고 하고 그뒤 약 700여년 뒤에 박의림(朴義林)이 쌓았다고 한다. 문헌에 기록된 바로는 세종 때 충청도 관찰사였던 정인지(鄭麟趾)가 수축하고 다시 1457년(세조 3) 체찰사가 된 정인지가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순흥부사 이보흙(李甫欽)의 단종복위운동에 대비하여 군사를 모으면서 호서, 영남, 관동지방의 병사 1500명을 동원해서 크게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뒤 1910년부터 5년 동안 3만여명의 부덕에 의하여 보수하였던 것이 1972년의 큰 장마 때 독이 무너지자 1973년에 다시 복구한 것이 오늘날의 것이다. 현재의 의림지는 호반둘레가 약 2킬로미터, 호수면적은 15만 1470평방미터, 저수량은 661만1891세제곱미터, 수심은 8-13미터이다. 수리관계뿐만 아니라 유서깊은 경승지로 이름이 있으며, 충청도지방에 대한 별칭인 '호서(湖西)'라는 말이 바로 이 저수지의 서쪽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제방과 호수주변에는 나송과 수양버들이 늘어섰고 1807년(순조 7)에 세워진 영호정(映湖亭)과 1948년에 건립된 경호루(鏡湖樓)가 있으며, 이곳 특산물로는 빙어가 유명하다.

4) 칠층모전석탑(七層模塼石塔)

제천시에서 동쪽으로 약 2킬로미터 낮은 구릉을 등지고 있는 이 일대를 탑문동 속칭 '창파사터'라고 부르고 있다. 사역은 전답의 경작으로 알 수 없으나 7층 모전석탑 1기가 이 곳에 위치해 있다. 석재는 회색의 점판암을 절단하여 쌓아올렸는데 이 석재는 이 곳에서 약 8킬로미터지점에 용두산에서 채석한 듯하다. 기단(基壇)은 단층으로 수개의 자연석으로하고 塔身部를 올렸는데 初層 4隅에는 높이 1.37미터, 폭 21센티미터의 화강암 석주를 세웠다. 이러한 수법은 같은 전탑이나 모전탑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수법이다. 屋蓋는 상하 모두 層段을 가진 전탑 특유의 형태를 취하였고 추녀도 단축되었다. 상륜은 모두 없어졌으나 7층 屋蓋石 정상에 1번 70센티미터의 낮은 露盤만이 남아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塔身 前면을 회로 도장했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어 이는 尙州 石心炭皮塔과 같은 수법에 속하는 탑이 아니었던가 추정된다. 이 탑의 조성연대(造成年代)는 형식이나 축조수법으로 보아 신라 말기 혹은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보물 제459호로 지정되어 있다.

◀ 단양(丹陽) ▶

1) 단양온달산성(丹陽溫達山城)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에 있는 삼국시대의 석축산성. 둘레 683미터. 사적 제264호. 현재 성벽과 동, 남, 북의 문지(門址), 우물터, 배수구 등의 시설이 남아 있다. 영춘은 옛 이름이 을아단(乙阿旦)으로, 《삼국사기》의 온달열전(溫達列傳)에서 온달이 아단성(阿旦城) 아래에서 전사하였다는 기록에 따라 온달산성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단성은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의 아차산성(阿且山城)이라는 견해도 있어 불분명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성산고성(城山古城)이라 하여 둘레 1523척, 높이 11척의 석축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산성은 태외골로 벽은 안팎을 모두 비슷한 크기의 할석(割石)으로 정연하게 쌓아올린 내외협축(內外夾築)이다. 성의 서북쪽은 남한강에 접한 가파른 절벽이며, 약 100미터쯤이 많이 무너져 있다. 동쪽과 남쪽 성벽은 벽돌처럼 잘라낸 돌로 쌓아올렸는데 높이가 6-8미터, 너비 3.8-4미터 정도이다. 문은 동, 남, 북의 세곳에 있었는데, 모두 특색이 있다. 동문터는 문구부(門口部)의 너비가 7.3미터의 수직절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북문터는 너비 6미터 정도인데 북동쪽 모서리를 곡성(曲城)처럼 처리하였다. 남문터는 바깥쪽에서 보아 입면(立面)이 요형(凹形)을 이룬 것으로, 성안과 바깥의 높이 차를 두고 사다리나 현문(懸門)이 시설되었던 듯한 모습이다. 성안에는 우물터가 남아 있고, 특히 성 북쪽 편평한 지역의 성벽 바깥에는 아랫부분에 아랫너비 35센티미터, 윗너비 25센티미터, 높이 65센티미터의 사다리꼴 배수구가 있다. 성안에는 삼국시대 후기에 속하는 그릇조각이 흩어져 있다. 성의 북동쪽 산 아래 남한강의 강변 절벽 아래에는 온달굴이라는 석회암동굴이 있고, 성을 마주보는 북쪽 강 건너의 산에도 온달과 관계되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어서 이곳이 신라와 고구려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던 곳임을 시사하고 있다. 성벽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고대 성곽의 축성법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2) 단양적성비(丹陽赤城碑)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에 소재한 국보 제198호로 지정된 석비(石碑)이다. 속칭 성재산의 史蹟 제265호 赤城 안에 있는 신라시대의 石碑로서 1978년에 발견되었다. 화강암 자연석으로 된 이 비는 세 조각으로 갈라진 판석 중 하단부 두 조각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신라 때의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을 밝혀주는 298字가 새겨져 있다. 결실된 상단부 비편(碑片)의 명문까지를 합치면 대략 400여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원반형 석돌의 판판한 면에 얇게 음각(陰刻)하였고 글씨는 고졸한 해서(楷書)로 가로 세로 줄을 맞추어 22行을 써 넣었다. 신라가 죽령을 넘어 고구려 영역이던 단양지역을 차지한 후 이곳의 백성들을 선무(宣撫)하는 내용으로 신라의 척경(拓境)을 돕고 충성을 바친 赤城사람도 欠次의 공훈을 표창함과 동시에 장차 이와같이 신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포상을 내리겠다는 국가정책의 포고 내용이 새겨져 있다. 또한 異斯夫, 比次夫, 武力 등 신라 진흥왕대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는데 이들의 官位 등 당시의 관제로 보아 건립연대는 대략 진흥왕 12년(551) 이전으로 생각된다.

石碑의 크기는 現高 93센티미터, 上幅 107센티미터, 下幅 53센티미터, 厚 20센티미터, 字徑 1.5-3센티미터이다.

3) 죽령산신당(竹嶺山神堂)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있는 산신당. 충청북도민속자료 제3호. 주신인 죽령산신을 속칭 ‘다자구할머니’라고 하여, 죽령산신당을 ‘다자구할머니당’이라고도 부른다. 신라시대에는 나라에서 죽령산신에게 봄, 가을로 소사(小祀)를 지냈고, 조선시대에는 죽령사(竹嶺祠)라는 사당을 짓고 관행제(官行祭)를 지냈으나, 지금은 용부원리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제를 지내고 있다. 이 신당에는 죽령산신 다자구할머니에 대한 유래담이 전해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이곳에는 산적이 많아 백성을 괴롭혔으나 산이 험하여 나라에서도 토벌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한 할머

니가 나타나 관군과 싸고 큰아들 다자구와 작은아들 들자구를 찾는다는 핑계로 산적의 소굴로 들어갔다. 두목의 생일날 밤이라 모두 술래 취하여 잠들자 할머니는 다 잔다는 뜻으로 ‘다자구야’라고 외쳐 대기하고 있던 관군이 급습하여 산적을 모두 소탕하였다. 이 할머니가 죽어 죽령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신당 안에는 ‘죽령산신지위(竹嶺山神之位)’라고 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용부원리에서는 매년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용천(龍泉)의 상탕(上湯)물로 만든 음식과 통돼지, 과일 등을 차려놓고 산신제를 지낸다. 옛날에는 죽령산과 인접한 충청도의 단양군수, 영춘군수, 경상도의 풍기군수가 삼헌관(三獻官)이 되어 제사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단양군수, 대강면장, 그리고 마을에서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이 삼헌관이 되어 관민과 함께 제사한다. 제관들은 관복을 입고 <죽령산식제술기 竹嶺山式祭筭記>에 따라 마치향교에서 석전제(釋奠祭)를 지내는 것처럼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한다. 따라서, 동제라고 하나 아직도 관행제의 유풍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안동을 중심으로

김청강(조장), 유미란, 한국희, 김유식, 최준원

이세영, 장극중

이승효, 이용주, 박은혜, 이정민A, 정준, 이석, 조완형, 심형선

◀영주(榮州)▶

1) 순흥읍 내리벽화고분

경상북도 영풍군 순흥면 읍내리에 위치한 벽화고분. 표고 약 400m의 비룡산 정상에서 서남방으로 뻗어 내려온 구룡의 중북 경사면에 자리잡고 있다. 사적 313호. 고분의 분구는 원형이지만 지금은 경사진 남면에 분구의 유실토가 퇴적되어 남북으로 약간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분구 기저부에는 막돌로 호석(護石)을 둘렀다. 고분의 내부 주채인 墓室은 현실 남벽의 서쪽에 치우쳐 달려 있는 연도와 현실로 이루어진 횡혈식 석실(橫穴式 石室)이며 구룡 경사면의 자연암반을 파낸 장방형 광내에 축조했다. 연도는 짧고 연도와 현실의 좌우측벽은 거칠게 다듬은 네모진 돌로 수직으로 쌓아올린 벽면에 두껍게 석회를 발랐다. 벽화는 석회를 바른 현실의 네 벽, 연도 좌우벽, 시상대의 앞면 등에 그려져 있는데 먹선으로 약간의 색채를 칠해넣은 일종의 구름전채법을 위주로 한다.

2) 소수서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서원으로 유명한 소수 서원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 영풍군 순흥면 내죽리이다. 몇백 년 된 짙은 소나무가 울타리를 친 소수 서원 자리는 본디 숙수사(宿水寺)란 큰 절이 있던 터였다. 서원 입구에 아직 남아있는 높이 4미터의 당간 지주는 이것을 증거한다. 송림 사이를 지나면 담장을 둘러친 서원이 나타난다. 정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른쪽에 경영정이란 정자가 계곡을 끼고 자리하고 있다. 선비들의 시흥을 엿볼 수 있는 필적들이 목각판에 새겨져 걸려있다. 계곡 암벽에는 “백운동(白雲洞)”이라고 새겨진 명필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정문을 들어서면 강당을 바로 대하게 되고 이어서 채실들이 나타난다. 사당은 뒤쪽에 자리잡고 있다. 영정각에는 현재 국보로 지정된 안향의 영정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밖에 소수 서원에 관계된 고문서들도 많이 있다. 소수 서원은 1543년(중종 36)에 당시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 평소 흠모하던 회헌 안향(晦軒 安珦)의 연고지에 부임함을 계기로 그의 향리에 안향의 사당을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다음해 주세붕은 사당 앞에 향교 건물을 옮겨 채실을 마련, 선비들의 배움터로 삼으니 이로써 서원의 대체제인 골격이 이루어졌다.

서원의 시설을 꾸밈과 더불어 주세붕은 안향 선생의 영정을 서울의 종가집에서 옮겨다 봉안하고 백운동 사당이라 하였다. 1545년에는 안축, 안보 두 사람의 영정을 모셔 백운동 서원이라 하였다. 이어서 주세붕은 임백령, 이언적 등의 도움을 받아 제향과 교육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서책을 구입하여 서원 문고를 설치하였다. 백운동 서원은 1550년(명종 5) 퇴계 이황이 풍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보다 확충되었다.

5) 부석사

충청북도 영주군 부석면 북지리에 위치한 이 절은 우리나라 화엄종(華嚴宗)의 근본도장으로 신라 문무왕 16년(676)

에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 창건했다.

고려시대에는 이 절을 선달사(善達寺) 또는 흥교사(興敎寺)라고 하였는데, 선달이란 선종의 음역으로서 부석의 향음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다. 또 고려 정종 때의 결응(決凝)은 이 절에 머무르면서 대장경을 인사(印寫)하고, 절을 크게 확장한 뒤 1053년(문종 7)에 이절에서 입적하였다. 1372년(공민왕21)에는 원응 국사(圓應國師)가 이 절의 주지로 임명되어 퇴락한 당우를 보수하고 많은 건물들을 다시 세웠다.

그 뒤 조선시대의 역사는 자세히 전하지 않으나 1580년(선조 13)에 사명당(泗溟堂)이 중건하였으며, 1746년(영조 22)에 화재로 인하여 추승당(秋僧堂), 만월당(滿月堂), 서별실(西別室), 만세루(萬歲樓), 범종각 등이 소실된 것을 그뒤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과 국보 제19호인 조사당(祖師堂)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후기의 건물인 범종루, 원각전, 안양루, 선묘각, 응진전, 자인당, 좌우요사, 취현암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범종루와 안양루는 대표적인 누각이고, 원각전, 응진전, 자인당은 법당이며, 선묘각은 부석사의 창건연기와 인연이 있는 선묘의 영전을 봉안하여둔 곳이다. 범종루는 사찰의 중문(中門)에 해당하며, 본전을 향하는 입구쪽에서는 팔각 지붕을 하고 반대 방향은 맞배 지붕으로 일반 사찰건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2층 누각으로서, 누각에는 ‘봉황산부석사(鳳凰山浮石寺)’라는 편액이 있을 뿐 범종은 없다. 안양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집으로서, 누각 안에는 부석사의 현판기문을 모아두었는데, 그 안에는 사명당이 쓴 안양루중창기가 있다. 또, 취현암은 원래 조사당 옆에 있었던 부석사의 선원(禪院)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이전되어 현재는 주지실과 종무소(宗務所)로 사용되고 있다.

◆ 창건 설화 ◆

《삼국유사》에는 이 절의 창건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당 나라로 불교를 배우기 위하여 신라를 떠난 의상은 상선을 타고 동주 해안에 도착하였는데, 그 곳에서 어느 신사(信士)의 집에 며칠을 머무르게 되었다. 그 집의 딸 선묘(善妙)는 의상을 사모하여 결혼을 청하였으나, 의상은 오히려 선묘를 감화시켜 보리심을 발하게 하였다. 선묘는 그 때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스님의 공부와 교화와 불사(佛事)를 성취 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겠다.” 는 원을 세웠고, 의상은 종남산에 있는 지엄(智嚴)을 찾아가서 화엄학을 공부하였다. 그뒤 귀국하는 길에 의상은 다시 선묘의 집을 찾아 그동안 배풀어준 편의에 감사를 표하고 밧걸이 바빠 곧바로 배에 올랐다. 선묘는 의상에게 전하고자 준비해두었던 법복(法服)과 집기(什器) 등을 넣은 상자를 전하기도 전에 의상이 떠나버렸으므로, 급히 상자를 가지고 선창으로 달려갔으나 배는 이미 떠나가고 있었다. 선묘는 의상에게 공양하려는 지극한 정성으로 저만큼 떠나가는 배를 향해 기물 상자를 던져 의상에게 전하고는, 다시 서원(誓願) 을 세워 몸을 바다에 던져 의상이 탄 배를 보호하는 용이 되었다. 선묘가 변한 용은 의상이 신라에 도착한 뒤에도 줄곧 의상을 호호하고 다녔다. 의상이 화엄의 대교(大敎)를 펼 수 있는 땅을 찾아 봉황산에 이르렀으나 도둑의 무리 500명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므로, 용은 커다란 바위로 변하여 공중에 떠서 도둑의 무리를 위협함으로써 그들을 모두 몰아내고 절을 창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상은 용이 바위로 변하여서 절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서 절 이름을 ‘부석사’로 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부석사의 무량수전 뒤에는 부석(浮石)이라는 바위가 정말로 공중에 떠있다.

◆ 무량수전 ◆

고려시대의 목조 불전(佛殿)이며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석사의 주불전(主佛殿)으로 무량수불인 아미타여래를 본존(本尊)으로 봉안 하였다. 현존하는 건물은 1916년 해체, 수리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1376년에 재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상당이 1377년에 재건된 것과 비교하여 학계에서는 일찍 부터 건물양식으로 보아 조사당보다 100년 내지 150년은 더 앞서는 건물로 추정하여 왔으며 묵서명은 그 뒤의 보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건물에는 배흘림이 많은 기둥 머리에 外一出目으로 된 공포를 올렸다. 건물 내부 바닥은 전돌(磚石)을 깔고 남향하는 건물의 서쪽에 불단을 만들고 그 상부에는 궁전형의 보개를 두었다. 이 건물이 양식상 중요한 점은, 이것이 주심포(柱心包)집의 기본 양식을 가장 잘 남기고 있으며, 또 가구방식이나 세부수법이 후세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장

식적인 요소가 적다는 점이다.

◆ 조사당 ◆

부석사 경내에 위치한 고려 시대의 불전(佛殿), 국보 제19호, 無量壽殿 뒤로 산을 올라가 높다란 언덕 위에 있는 소규모의 건물로, 이 절의 창건자인 의상국사의眞影을 봉안하고 있다. 건물은 석재를 허튼썃기한 낮은 기단 위에 서 있으며, 약한 배흘림을 가진 기둥 위에 柱頭를 두고 건물 외부에는 一出目的의 공포를 올리고 있다. 이 법당은 건물 자체가 매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세부 양식이 간결한 수법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건물 내부에는 고려시대에 그려진 벽화가 있었으나 최근에 새로 보호각을 지어 보관하고 원래 벽화가 있었던 자리에는 모사도를 그려 놓았다. 이 건물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일제 때 수리공사에서 발견된 ‘선광7년(宣光七年)’이란 묵서(墨書)로 보아 같은 시기로 생각된다.

◆ 당간지주(幢竿支柱) ◆

부석가의 석단(石壇)으로 올라가는 제일 아래층계의 왼쪽 길가에 있으며 높이 480센티미터의 화강암으로 되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져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장식이 적은 지주로서 간결하고 단아한 각 부의 조각수법은 시대를 올려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양쪽 모서리의 각을 약간 죽여 부드럽게 나타내고 있으며, 두 지주 사이에 간주(竿柱)를 받는 둥근 대석(臺石)이 있어 장대를 받치는 돌임을 알 수 있다.

◀안동(安東)▶

1) 지역 개관

경상북도에서도 뒤쳐진 지역으로 꼽히는 안동지방은 안동군을 중심으로 하여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풍군, 예천군으로 이루어진 북부지방인데, 이 군들은 같은 문화권을 이룬다. 안동 지방은 이 북부 지방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선비정신’으로 상징되는 유교문화의 본고장이며 전통 문화의 유산이 밀집된 곳이지만 자연 환경은 오히려 척박하다. 부족 국가 시대의 안동 지방은 진한 열두 나라의 하나로 고타야군으로 불렸다. 이 시대의 유적으로 안동군 일직면 조탑동에 고분 무리가 있다. 고분 백몇 군데가 도굴꾼의 손에 내버려져 있다가 1963년에 도굴꾼이 금동 말안장을 파낸 것이 드러남으로써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다. 5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것으로 보이는 석실 무덤이 드러나고 금목걸이, 귀걸이, 마구 따위가 출토되어, 안동 지방이 북방 아시아 유목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곳임을 뒷받침했다.

안동 지방은 북부가 한때 고구려에 속했다가 신라에 돌아와 경덕왕 때에 고창군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안동으로 불린 때가 고려 태조 5년인 921년이었다. 안동시에 있는 다리인 합전교는 후삼국의 통일을 놓고 왕건과 견훤이 격전을 벌였던 곳이다. 안동지방은 1119년(고려 현종 9년)에 군, 현 제도가 실시되자 부로 승격되었다. 안동부는 고려 성종 때에 길주자사가 되고, 현종3년에 안무사로 바뀌었다가 현종 21년에 다시 안동부가 되었다. 그리고 명종 27년인 1197년에 남쪽 지방에서 김삼파 효심이 일으킨 반란 세력을 꺾은 근거지가 됨으로써 안동도호부로 승격했다. 그러다가 신종7년(1204년)에 동경(경주) 야별초 이우 등이 일으킨 반란을 이 지역 사람들이 막아내 한자로 ‘큰 대’자를 덩으로 받아 안동대도호부가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세조때에 진(鎭)을 두고 부사(府使)로써 병마절도호부를 겸하게 했다가 파하였고 선조때에는 현(縣)으로 강등되었다가 군으로 환원되었고, 영조때에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다가 정조 때에 부로 승격하였다. 1896년(고종 33년)에 안동군이 되었고 1962년 안동군에서 안동읍이 시로 승격되어 시와 군으로 분리되었다.

2) 제비원석불

안동 지방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제비원 석불이라고 불리는 부처의 조각이다. 안동시에서 영주시로 가는 도로를 따라 사오리쯤 가면 안동시 이천동 태행산 기슭에 거대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만든 부처가 있다. 보물 115호인 이 돌부처는 11미터 높이의 화강암 암벽이 몸이 되고 그 위에 얹힌 높이 2미터의 바위가 머리가 된 부처의 조각이다. 그래서 논산의 은진 미륵 다음으로 키가 크다. 이 돌부처는 신라의 승 도선이 634년에 새겼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그 머리 부분의 조각이 단조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이 돌부처 옆에는 연미사라는 절과 삼층 석탑이 있고, 그 석탑 앞에 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 의상 대사가 수도했다고 한다. 안동이 고창으로 불리던 신라 때에 이 돌부처가 있는 곳에는 지금의 여관인 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 원의 주인에게 ‘제비 연’자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는데, 착실한 신자였던 이 딸이 법당을 지어 연미사라 했고 이런 까닭으로 이곳의 지명도 제비원이 되었다고 한다.

제비원 돌부처에 얹힌 전설에는 이여송에 관한 것도 있다. 임진 왜란 때에 명나라 장군인 이여송이 조선 땅에 인물이 날 만한 곳의 지맥을 모조리 꿰으며 다녔는데 어떤 곳에 이르니 갑자기 그가 타고 가던 말의 네 굽이 땅에 붙었다고 한다. 이여송이 주위를 살펴보니 가까이 돌부처가 서서 야릇한 표정으로 내려다 보는 듯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는 칼을 뽑아 돌부처의 목을 쳤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말발굽의 자국과 돌부처가 칼에 맞아 흘렸다는 핏자국이라고 고들 믿는 흔적이 있다.

마음써 고운 여관집 딸의 전설이 담긴 이 제비원 돌부처에는 날마다 부녀자들이 몰려와 등축을 밝히고 아들을 낳거나 재물을 갖게 해달라고 빈다.

3) 도산 서원

도산 서원은 한국 유학사에서 큰 별이라고 하는 퇴계 이황을 모신 곳이다. 안동시에서 동북쪽으로 28킬로미터쯤 떨어진 도산면 토계동에 자리하고 있다. 도산 서원이 서원으로서 꾸며지기는 지금으로부터 4백 년 전인 1574년이다. 그러나 서원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앞선다. 퇴계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가 50세 때인 1557년(명종 12)이었는데 그가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것은 산수가 수려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그는 여기에 도산 서당과 노운 정사를 꾸며 한쪽은 스스로 공부하는 곳으로 삼고, 다른 한쪽은 모여드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강의실로 삼았다. 이곳에서 퇴계는 제자들과 10여 년 생활하였다. 제자들은 기존의 건물에 상덕사, 진도문, 동재, 서재, 동광명실, 서광명실, 전사청, 장판각 등을 보완 증축하여 서원의 면모를 갖춘 뒤 이듬해 나라에 효청하여 도산 서원이란 편액을 하사받았다. 편액의 글씨는 한석봉이 썼다. 도산 서원에도 많은 장서가 보유되어 있었는데 907종, 4339책의 한적(漢籍)은 그동안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성리 철학의 진수를 맛보게 하였다. 특히 퇴계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들을 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4) 안동조탑동 오층전탑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조탑리 소재 통일신라시대의 塼塔. 높이 8.65m. 보물 제57호. 조탑리 들판 한가운데 탑만 서 있을 뿐 주위에는 寺址로 추정할만한 유물은 볼 수 없다. 이 전탑의 특징은 제 1층 옥신을 화강석으로 축조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탑에는 거의 모두 화강석을 혼용하고 있으나 이 전탑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더욱 잘 나타난다. 제1층 옥개부터는 일반 27cm, 두께 5.5cm의 방형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제1층 옥개에 사용한 벽돌 중에는 주연(周緣)에 연주문(聯珠文)을 두르고 그 안에 당초문(唐草文)을 양각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아마 창건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용된 벽돌들은 제조시기를 달리하는 여러가지가 섞여있어 여러 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안동에 있는 다른 전탑과는 달리 옥개 낙수면에 기와가 없으나 원래는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며 그 형식이 안동시 동부동 오층전탑과 상통하는 바 있다. 안동시내 2기의 전탑이 모두 조선시대에 보수된 바 있으므로 최근에는 1917년의

수리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분적인 보수를 거치는 동안 창건 당시의 원형이 많이 변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안동조탑동 칠층전탑

8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이 벽돌탑은 네모난 기단의 각 면에 팔부중생과 사천왕상을 돌을새김한 판석 여섯개씩을 세우고 그 위에 길이 28센티미터의 무늬 없는 갯빛 벽돌을 쌓아 칠층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 지붕을 덮은 탑이다. 이 탑의 맨 꼭대기에는 금동의 장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뜯기고 없다. 이 탑은 국보로 지정된 뒤에 그 둘레에 석울타리가 쳐졌으나 그 근처로 중앙선 철도가 지나면서 탑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 기단석 부분을 시멘트로 발라 버려 오래 된 아름다운 이 탑의 면모를 구겨 놓고 말았다.

6) 안동 민속 박물관

안동 민속 박물관은 안동댐 보조호 동쪽 언덕 민속 경관지에 세워져 있다. 이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는 모두 3700여 종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봉화(奉化), 영주(榮州), 영풍(榮豐), 예천(醴泉), 영양(英陽), 청송(靑松), 의성(義城) 등 부근 여러 지역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안동 민속 박물관은 영남 문화권의 중심이며, 유학의 고향인 이 고장 사회의 의·식·주·생업·신앙·예능·오락·관혼상제 등에 사용되어 온 물건들이 지역 문화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 줄 유형, 무형의 온갖 자료)이 전시되어 있다.

7) 봉정사

안동군 서후면 태장동 천등산의 남쪽 기슭에는 국보 15호인 극락전과 보물 석탑이 소장된 봉정사가 있다. 672년 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봉정사 극락전은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지금 남아 있는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알려져 있다. 1972년에 극락전을 해체하여 복원할 때 1363년(고려 공민왕 12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이 상량문에서 밝혀졌었다. 그때까지 수덕사 대웅전이 1308년, 성불사 응진전이 1327년에 창건되어 지금 남아 있는 목조 건물로는 가장 먼 옛날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으나, 창건되고서 중건되기까지는 보통 이백년의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극락전의 창건 시기는 한껏 늦게 잡아도 13세기 초에서 12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중국의 재래식 건축 양식인 주심포식 건축물은 삼국 시대에 전래 되었다는데 극락전을 포함해서 몇 채 남지 않은 고려시대의 건물은 모두 이 양식으로 지은 것이다. 그러나 극락전은 1972년에 한 해체와 복원 공사 때에 금, 은, 구리의 옛날 삼색 단청이 지워져 버렸고, 그 중요한 일부인이었던 귀중한 벽화가 뜯겨 포장된 채로 오래 내버려져 국보로서 받는 대접이 소홀해 왔다.

◆ 극락전 ◆

국보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2세기경 만들어 진 건물이다. 3칸과 4칸으로 되어 있는 주심포계 구조이며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다. 한국 최고의 건물로 부석사 무량수전등 후대 현존 건물과는 상이한 원형적 잔재를 보여 더욱 가치가 높다. 주심포 형식중 고대에 속하며 고구려 건축의 풍모를 보이는 유일한 예다. 고려 초·중엽에는 삼국시대의 문화를 복고하던 풍조가 있었다. 이 건물에도 팔자인자형 동자주의 모티브를 띤 柱間 화반등에서 고구려의 복고풍을 볼 수 있다. 첨차의 형태나 가구의 간결한 구성, 소박하면서도 강건한 외관등을 고구려적 미학으로 볼 수 있다. 1,2세기 후의 수덕사 대웅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과는 판이한 아름다움이다.

정면 3칸중 중앙에 두짝 판문과 양 끝칸에 불박이 광창을 달았을 뿐 나머지 3면은 토벽으로 밀폐되어 감실형의 건물이 되었다. 측면은 4칸이긴 하지만 주심포 구조에 대한 완전한 구조적 해석이 완성되질 못해 기둥이 5개나 박힌듯이 보이며 내부는 다른 처리이다. 가구는 9량 구조이며 그 구성 역시 매우 고식이다.

◆ 대웅전 ◆

보물 제55호이며 13,14세기에 만들어졌다. 합각지붕에 다포계 구조이며 가로3칸에 세로4칸으로 되어 있다. 종래의 학설로는 조선 초기의 건물로 단정했다. 그러나 1962년의 해체보수시 나온 목서록과 굽받침 있는 주두인 고재로 미루어 고려 말기의 건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고려말의 다포계 건물로는 황주 심원사 보광전 정도만 현존하는 걸로 알려져 남한에 있는 유일한 예라는 가치를 가질수도 있다.

주간이 너무 넓고 기둥이 짧아 마치 평야지대에 조영된 백제계 건물과 같다. 게다가 전면 3칸에 모두 살문을 달아 더욱 넓어 보인다. 주간에 2조씩의 주간포가 균등히 배열되지만 다른 다포집에 비해 처마 높이가 낮아 다포계 건물 특유의 수직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8) 하회마을

중요 민속 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마을은 조선 전기 이후의 전통적 가옥군의 존재와 영남의 名基라는 풍수적 경관과 아울러 역사적 배경, 별신굿과 같은 고려시대의 맥을 이은 민간 전승 등이 현대 공업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 되었다. 이 하회마을은 전국 유수의 풍산 유씨 동족 마을이며 오늘날과 같은 유씨의 동족 기반은 중흥조 유운룡, 유성룡 형제 시대에 이룩된 것이다. 그래서 보물,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가옥들 중 대다수가 유운룡, 유성룡 형제의 유적으로 이루어져있다.

과거에는 음력 7월 보름에 시회가 열렸으며 시회와 함께 유명한 줄불놀이가 벌어졌었다. 이 江上流花의 놀이는 하회별신굿과 함께 이 고장의 오랜 민간전승 놀이이다. 이 마을은 북촌과 남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옥의 형태는 상이점을 지닌다. 북촌택은 사랑채를 길게 달아내지 않고 모자형 몸채 안에 그대로 사랑방을 수용하는 한편, 옆마당에 따로 지어진 큰 별당을 두어 사랑방의 공간을 확대, 보완하였다. 또한 그 대문채와 담장은 매우 높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게 한다. 또한 가랑방과 사랑대청은 규모가 작은편이지만, 이를 보완하는 큰 규모의 별당이 사랑채 옆에 세워져 있다. 이와는 달리 남촌택의 별당은 그 규모는 작으나 가옥 전체의 맨 앞쪽에 위치한 사랑채의 동편 후원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별도의 담장을 둘러서 외부와의 공간을 차단하고 있어 별당채로서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밖에 여러 대소 가옥은 그 평면 구조로 -자집, 링자집, 튼링자집 등 다양한 민가 형식을 지니고 있고 진흙만으로 벽체를 쌓아 올리는 원초적 민가 축조 기법으로 지어져 있어 과거 신분제 사회에 있어서 반상의 생활을 열볼 수 있게 한다.

9) 병산 서원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 서원. 1613년 정경세 등 지방유림의 공의로 유성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존덕사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863년 병산이라는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경내의 건물로는 존덕사, 입교당, 신문, 전사청, 장관각, 동재, 서재, 만대루, 복례문, 고직사 등이 있다. 묘우인 존덕사에는 유성룡을 주벽으로 유진의 위패가 배향되어 있다. 존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 기와집에 처마는 겹처마이며, 특히 기단앞 양측에는 8각 석주 위에 반원구의 돌을 얹어놓은 대석이 있는데 이는 자정에 제사를 지낼 때 관솔불을 켜놓은 자리라 한다. 강당인 입교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입교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팔각기와집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가구는 5량이다. 신문

은 향사시 제관의 출입문으로 사용되며, 전사청은 향사시 제수를 장만하여 두는 곳이다. 장판각은 민도리집 계통으로 되어 있으며, 책판 및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각각 정면 4칸, 측면 1칸반의 만도리집으로 된 동재와 서재는 유생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문루인 만대루는 향사나 서원의 행사시에 고자가 개좌와 파좌를 외는 곳으로 사용되며 정면 7칸, 측면 2칸의 2층팔각기와집에 처마는 홀처마로 되어 있다. 그 밖에 만대루와 복례문 사이에는 물길 을 끌어 만든 천원지방 형태의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3. 충주를 중심으로

김대규(조장), 김성중, 강정훈, 박성원, 이연경

김영대, 양운호

정성윤, 이수연, 김혜진, 마승연, 김현욱, 이재성, 설승윤, 최홍규, 허상영

◀문경(聞慶)▶

1) 전 고려가야 왕릉(傳古寧伽倻王陵)

이 무덤은 서기 42년 낙동강을 중심으로 일어 난 육기야 중 이일대인 함창, 문경, 가은지방을 영역으로 하여 나라 를 세운 고려가야의 태조의 능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조선 선조 25년(1592) 당시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睡)와 함창현 감 이국필(李國弼)등이 무덤 앞에 묻혀 있던 묘비를 발견하여 가야왕릉임을 확인했다고도 전해오고 있다. 그 후 조선 선조 38년(1712) 왕명으로 묘비와 석양등의 석물을 마련한 후 후손들에 의해 여러 차례 묘역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 문경관문(聞慶關門)

사적 제147호. 문경에서 주흘산(主屹山)을 넘어 중원의 연풍(延豐)으로 빠져나가는 산골짜기 천험의 요지에 3개의 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관문을 따라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이는 임진왜란때 신립이 적의 진로를 조령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충주 탄금대에서 왜병을 맞아 싸우다가 대패한 사건 이후, 조정에서 이곳에 관문을 설치할 것을 꾸준히 논의하였다가 숙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3개의 관문이 설치한 것이다. 1708년(숙종 34년)에 세운 제1관문에는 주흘관(主屹關)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팔작지붕이다. 홍예문(虹霓門)과 좌우의 성벽이 옛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다. 제1관문에서 3km떨어진 곳에 제2관문인 조곡관(鳥谷關)과 중성(中城)이 있다. 중성은 1594년(선조 27년)에 축성된 것이다. 또한 숙종때 북적(北賊)을 막기 위하여 소백산맥을 넘는 험로중의 하나인 조령에 산성을 쌓은 것이 지금의 제3관문, 즉 조령관(鳥嶺關)이다. 이 제2,3관문은 허물어져 축대만 남아있던 것을 최근에 다시 복원하였다. 이 세 관문의 성 안에는 군사들의 진지.군창지등이 아직 남아 있으며, 경상감사가 교대할 때 교인(交印)하였다는 교구정지(交龜亭址)도 남아있다.

◀충주(忠州)▶

1) 지역개관

일찍이 시생대 이후 계속된 퇴적 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 충주지역은 현재 북쪽의 차령산맥과 동남쪽의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 안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직 구석기시대의 유적, 유물은 발견된 바가 없으나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발견 가능성은 높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 그 때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는 지역이었고 이루 삼국시대에는 먼저 백제에 속하였으나, 이후 중원 고구려비의 건립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수왕때에는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 진흥왕때에 이르러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었는데, 이 때 우륵(于勒)이 신라로 귀화하자 그를 충주의 대문산(大門山)에서 살게 하였

다고 한다. 이후 557년(진흥왕 18년) 교통상 이점때문에 이곳을 소경으로 삼았고, 이후 757년(경덕왕 16년)에는 중원경으로 삼아 통일 신라의 중앙임을 표방하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940년(태조23년)에 지금 이름인 충주로 개칭하고 전국 12목중의 하나로 삼았다. 995년(성종2년)에는 12목이 폐지되면서 중원도를 설치하여 절도사를 파견하였으며 1018년 전국에 8목이 설치되면서 충주목이 되었다. 이후 1253년(고종 40년)에는 승장 김윤후(金允侯)의 의병군이 야고(也古)가 이끄는 몽고병의 5차침입을 충주성에서 크게 물리쳐서 이듬해 국원경(國原京)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277년(충렬왕3년) 충주성을 개축하면서 연꽃무늬를 조각한 연유로 예성(藥城)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예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한양 천도와 동시에 이 지역이 충청도가 되자 청주와 함께 그 계수관(界首官)이 되었다. 이후 임진왜란때는 유성룡이 이미 이 지역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탄금대에서 신립이 배수진을 쳤으나 패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여말부터 4대 사고(史庫)중의 하나였던 충주사고가 있었으나 이 때 소실되었다. 이후 고종때 전국이 13도가 되면서 도청소재지가 되었다가 교통의 불편을 이유로 1908년 도청이 청주로 옮겨지고 이곳은 군청소재지가 되었다. 이후 1956년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되고 충주군이 중원군으로 개칭되었으나 올해(1995년)에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다시 충주시와 중원군이 도농통합시로써 하나가 되었다.

2) 단호사(丹湖寺)

태고종의 말사이며 창건 연대는 미상이다. 조선 숙종때 중건하여 약사(藥寺)라 하였고, 1954년 단호사로 다시 개칭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 칠성각, 요사채등이 있다. 대웅전 내에는 보물 512호인 철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또한 대웅전 앞뜰에 있는 화강암재 삼층석탑은 충북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말.선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규모는 작으나 격식을 갖춘 이 탑은 무게가 있고 안정감을 주고 있다.

◆ 단호사철불좌상(丹湖寺鐵佛坐像) ◆

보물 제512호. 단호사 대웅전의 주존상으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대좌와 광배가 없어지고 두 손도 파괴되었으나 불신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비만한 길 얼굴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좁고 둥근 어깨와 평평한 가슴으로 인해 상체는 각져보이고 하체도 각지게 보여 매우 딱딱한 느낌을 준다. 이 불상은 같은 충주시내에 있는 대원사 철불좌상과 거의 비슷한데, 대원사의 불상이 자세나 수법 면에서 좀더 경직된 면을 보인다. 이 불상은 대원사의 것보다 약간 크고 단아한 인상을 준다. 또한 이와 비슷한 표현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철불등을 보았을 때 아마 같은 유파의 작품인 것 같다. 얼굴 부분의 세부적인 표현과 머리에 나타난 중앙계주등은 고려 불상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도식적인 옷주름처리, 각진 상체, 평판적이지만 부드럽고 단아한 면을 보여주는 하체등은 고려 불상 가운데 지방적은 유파상을 보여준다.

3) 충주철불좌상(忠州鐵佛坐像)

충주시 대원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철불좌상으로 보물 제98호이다. 이 불상은 원래 충주농고 근처에 있던 것을 충주군청, 마하사를 거쳐 1959년 현재의 대원사로 이전한 까닭으로 광배와 대좌, 두 손이 결실되고 불신만 남았는데 전각을 세우면서 두 손은 나무로 만들어넣었다.

육계는 머리와 구별이 불분명하면서 높직하며, 나발들은 성기면서 뽕족뽕족하여 개성있는 표현이지만, 이 불상을 특징짓는 것은 얼굴이다. 얼굴은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면서 비교적 양감있는 편이지만, 길게 쭉 찢어진듯 표현한 두 눈의 특이한 묘사로 무섭게 일그러진 표정이 되었다. 특히, 이것은 코와 입의 윤곽선을 뺨의 살로 경계짓게 한 묘사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무서운 인상의 얼굴모습은 신체와 의문의 엄격한 좌우대칭적 표현과 조화되어 불상의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4) 탄금대(彈琴臺)

남한강 상류와 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대문산을 중심으로 한 고적지이다. 이미 가야의 악성 우륵(于勒)이 신라에 귀화하여 진흥왕에게 명성이 알려져 하림궁에서 새 곡을 지어 연주하니, 왕이 감동하여 충주에 살게 하였다. 우륵은 그를 보호하던 계고(階古)에게는 가야금을, 법지(法知)에게는 노래를, 만덕(萬德)에게는 춤을 가르치며 바위에 앉아 가야금을 타며 놀았는데, 탄금대라는 이름도 이에 유래된 것이다. 또 1592년(선조25년) 임란때 도순변사 신립(申 硐)이 적은 병력으로 출전하여 이곳에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전하고, 김여물과 함께 전사한 전적지이기도 하다. 이곳을 중심으로 탄금대 방아타령이라는 민요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기도 하다.

5) 중원탑평리칠층석탑(中原塔坪里七層石塔)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소재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국보 제6호이다. 화강암 석재의 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탑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높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하여 속칭 중앙탑(中央塔)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위치가 원위치이고 주변 경작지에는 가끔 기왓장이 출토되고, 석탑 앞에는 석등 하대석(石燈下臺石)으로 보이는 8각연화대석(八角蓮花臺石)이 남아있어 이 일대가 신라시대의 절터임을 알 수 있으나 이곳 유적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서 사찰의 이름은 알 수 없다. 1916년도의 조사 결과 기단부의 일부가 파손되어 점차 기울어지고 있으며, 심할 경우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다음해에 이 석탑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복원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해체도중 탑신부와 기단부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유물은 탑신부의 6층 옥신에서 기록이 있는 서류편(書類片)과 고경(古鏡:銅鏡) 2점, 목제칠합(木製漆盒), 은제사리합(銀製舍利盒) 등이 나오고 기단부에서는 청동제유개합(靑銅製有蓋盒) 등이 나왔다. 그리고 탑신부에서 발견된 은제사리합내에는 유리로 만든 사리병(舍利瓶)이 있고, 그 주변과 사리합내에 몇개의 사리가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상의 유물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출현된 것이나 그 조성 연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경 2점은 고려시대의 조성품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석탑은 창건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러 재차 사리장치의 봉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탑은 탑평리의 한강 중류 연안 폐사지의 높은 대지에 잘 보존되어 있다. 석탑의 구조는 2층 기단위에 7층 탑신을 형성하고 그 정상에 상륜부(相輪部)를 구성한 방형 중층의 일반형이다.

6)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立石)마을에 있는 고구려시대의 석비로서 국보 제205호이다. 입석마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돌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1979년 단국대 학술조사반이 발견, 조사하였다. 석비의 형태는 석주형(石柱形)으로서 자연석을 이용하여 각자면(刻字面)을 갈고 비문을 새겼는데, 앞면과 한쪽 옆면에서만 글자를 확인하였으나 뒷면과 또 한쪽 면에서도 글자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석질은 견고한 화강암으로 글자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비문의 내용은 서두에 '고려대왕(高麗大王)'이라는 문자가 보이고, '중부대사자(前部大使者). 제위(諸位). 하부(下部). 사자(使者)' 등 모두가 고구려의 관등뿐이며, 비문중의 '고모루성(古牟婁城)'은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성이므로 고구려의 비임이 분명하다. 석비 자체의 형태가 광개토왕비와 흡사하여 두툼하고 무게가 있어 보이며, 자체(字體)도 고졸한 예서풍(隸書風)이다. 마멸이 심하여 정확한 글자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400여자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있어서 이곳 한강 유역을 따라 상류에까지 척경(拓境)하고 그 기념비적인 석비를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석비의 건립 연대를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 입석 마을에는 골짜기마다 많은 고분이 있고, 그리 멀지 않은 탐평기 7층석탑 주변에는 삼국시대의 기왓장이 수집되며, 뒤쪽 장미산(長尾山)에는 삼국시대 축조로 보이는 산성이 있다. 그리고 불과 4km 직선거리인 북쪽 봉황리에는 삼국시대의 마애불상들이 있다. 특히 이곳 바로 서쪽과 면계(面界)를 이루는 노은면에서는 일찍이 “건흥5년세재병진(建興五年歲在丙辰)”의 명문이 있는 고구려시대 금동광배(金銅光背)가 출토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곳 입석마을을 중심한 역사·지리적인 여러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시에 이 석비 건립의 시대적 배경과 입지적 조건 등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석비는 한국 유일의 고구려 석비이므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7) 가흥창지(可興倉址)

조선시대 조창중의 하나로, 강변에 위치하여 수참선(水站船)으로 세곡을 운반하는 조창인 수참창이다. 1465년(태조 11년)에 설치되었고 개항이전까지 남아있었는데, 일명 좌수참창(左手站倉)이라고도 하였다. 이곳에서 수납된 세곡은 남한강의 수로를 따라 서울의 용산창까지 이동되었는데, 두 창사이의 거리는 260리였다. 초기에는 이곳에 창육이 없어, 도둑등 세곡 보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1521년(중종16년)에 창육이 건립되었다.

이 가흥창의 세곡수납 관할지역은 경상도의 각 읍과 충청도의 충주·음성·괴산·천안·보은·단양·영춘·제천·진천·황간·영동·청풍·연풍·청산 등이었다. 국초에는 경상도 북부 산읍의 세곡만 이곳에서 수납하고, 남부 연강(沿江)·연해(沿海)의 여러 읍은 마산창을 비롯한 영남3창에서 수납하여 조운되는 형태였으나, 험난한 해로로 인해 경상도 조운선이 잇달아 난파되고, 인면 및 많은 세곡의 피해가 발생되자, 1405년(태종5년)에 경상도 세곡에 대해 해로 조운제를 중지하고 육운제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경상도의 모든 세곡은 육로나 낙동강을 통하여 상주까지 운반한 뒤, 다시 육로로 새재를 넘어 가흥창에 수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상도 각 읍의 세곡수납절차는 그 관원과 농민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끼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기 이후에는 남부 각 읍의 세곡을 동래부에서 수납하였고, 영조 이후에는 북부 12읍의 세곡도 전납(錢納)하도록 하게 되어 가흥창에서는 충청도 북부지역의 세곡만을 운반하게 되었다. 지금은 육상 교통의 발달로 인해 창고는 폐허가 되고 그 흔적만 남아있다.

8) 청룡사(靑龍寺)

충주시 소태면 오랑리 소재 청계산(淸溪山)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로서 천대종 소속이다. 창건 연대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고려시대의 창건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도승이 이 근처를 지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급히 나무 밑으로 비를 피하는데, 공중에서 두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다가 땅에 떨어트렸다. 한마리가 날쌔게 여의주를 향해 내려오다가 청계산 위로 올라갔으며, 여의주는 큰 빛을 내다가 사라지고 용도 사라졌고 비도 멈추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산세를 두루 살핀 도승은 그곳이 비룡상천형의 길지임을 깨닫고,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에 암자를 짓고 이름을 청룡사라 하였다는 것이다.

1392년(태조1년) 보각국사(普覺國師) 혼수(混修)가 이곳에 은거하다가 입적하자, 그의 죽음을 애도한 태조는 그곳에 대 사찰을 중창하였다. 그뒤 조선시대 굴지의 명찰로 내려오다가 조선 말기에 민대룡이 소실의 묘를 쓰게 하려고 불사르게 했다.

현재의 청룡사터는 옛터의 북쪽에 있는데, 원래 암자가 있던 곳으로 1665년(현종6년)에 중수하였고, 1921년에 혜종(惠宗)이 옛 당우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없으나, 옛 절터에는 국보 197호인 보각국사정혜원융탑(普覺國師定慧圓融塔), 보물 656호인 보각국사정혜원융탑전사자석등(普覺國師定慧圓融塔

前獅子石燈), 보물 658호인 보각국사정혜원융탑비(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를 비롯하여 적운당사리탑(跡雲堂舍利塔)과 1692년(숙종18년)에 세운 청룡사위전비(靑龍寺位田碑)가 있다. 원래 정혜원융탑 속에는 혼수의 유물을 비롯하여 옥축대·금망아지·금잔등이 있었으나 일제침략기에 도굴당하였다. 보각국사의 탑과 탑비등은 태조가 국사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들이다.

◆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 ◆

팔각원당형을 따르면서 새로운 양식이 도입된 부도이다. 지표에 높은 팔각 지대석이 있고 그 위에 복판(復瓣) 단엽(單葉), 16판(瓣)의 복련(覆蓮)이 조각된 하대석과 안상(眼象)안에 사자와 운룡(雲龍)을 고대로 조각한 중대석, 그리고 하대석과 같은 양식의 상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위에 구형에 가까운 8각 형태의 탑신이 있다. 이 부도는 원위치에 도괴되어 있던 것을 1968년 복원하였고, 상륜부는 지하에 매설되었던 것을 원위치에 복원하였다. 이 부도는 옆에 있는 탑비를 통해 1394년(태조3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 부도의 귀중한 일례로서 화엄사부도·신륵사보제존자석종(神勒寺寶濟尊者石鍾) 앞 석등 등과 양식상으로 통하는 바가 있어 조선 초기 석조미술의 표본적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중원 · 안동 문화에 대하여>>

1. 중원 문화의 특성

조미혜(조장), 서보현, 김정호

한상은

최정민, 박대인, 이세영, 박진수, 오현석, 이철구, 엄재익

1) 중원의 지리적 특성

중원 문화권이란, 충청북도 남쪽의 영동군, 옥천군을 제외한 전 지역과 북쪽으로는 경기도 이천군과 강원도의 원성군, 영월군 및 충청북도의 남쪽으로 접해 있는 경상북도 서북쪽 문경, 예천, 영주, 영릉, 봉화, 안동 및 상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중원 문화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남한강 유역에는 수많은 곳에 선사문화유적(先史文化遺蹟)부터 각 시대 별의 유적, 유물들이 집중되어 있어 학계의 연구가 활발한 곳이다.

충청북도는 내륙도(內陸道)이며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소백산맥(小白山脈)이 남서쪽으로 뻗어나와 경상북도와 천연의 경계가 되고 있고, 차령산맥(車嶺山脈)이 남서쪽으로 뻗어나와 북서쪽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두 줄기의 산맥 중앙부에 독립된 지리구(地理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백산맥이 높고 험하기 때문에 경상도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낮은 산세로 경계를 이루는 서북쪽인 경기도 남부, 전라도 북부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충청북도의 북부를 관류하는 남한강과 남쪽을 흐르는 금강 모두 서해 쪽으로 흘러간다. 중원 문화권의 중심부를 이루는 곳은 남한강 유역인데, 남한강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충북 도내에 들어온다. 그러나 충북 도내에 들어오게 되면 유로(流路)를 서남쪽으로 바꿔 영춘계곡을 지나 단양에 이른다. 강의 물길은 단양에서 서쪽으로 S자형을 이루면서 곳곳에 하안단구(河岸段丘)와 곡저평야(谷底平野)를 발달시키고 도중에서 제천천(堤川川)과 광천(廣川)을 합하여 충주(忠洲)에 이른다.

남한강 본류와 달천(達川), 충주의 서쪽에서 흘러오는 요도천(堯渡川)과의 합류지점에는 탄금대(彈琴臺)가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충주분지를 형성하고 남한강은 충청북도의 동부 일대의 물을 한곳으로 모아 북쪽으로 물길을 돌려 흐르면서 차령산맥을 끊고 경기도로 들어가 서울을 끼고 돌아 서해로 흘러든다. 이러한 서해로 통하는 수운(水運)의 이점이 남한강 유역에 충주, 중원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되게 만들었다.

소백산맥 줄기의 험준한 산들이 충주의 남쪽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 잔구들이 병풍처럼 남동쪽을 두르고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잔구들이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남고북저(南高北底)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중앙부 본지가 방대한 충주평야이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지질은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단양 및 제천지방은 조선계(朝鮮系)석회암 지대로서 카르스트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 석회동굴이 많이 있으며, 이 동굴은 선사 인류의 주거지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선사 문화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유역은 교통의 편리한 이점을 살려서 문물 교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내륙 지방의 세곡(稅穀)을 운반하기 위한 곳곳의 창지(倉地)유적과 강변을 따라 산재한 수많은 불교문화 유적이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지역은 백제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되었다. 이후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장수왕때 적극적으로 남하정책을 펴게 되자 고구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공동전선으로 한강유역을 탈환하게 되자 고구려 세력은 북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처럼 중원 지역의 확보가 삼국에게 중요했던 이유로는 기름진 토지와, 중국 대륙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문호(門戶)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국 나름대로의 지리적인 이(利)를 위하여 전진기지화(前進基地化)하여야 했던 점에서 삼국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사실과, 한반도에 유일한 고구려碑가 발견된 점등은 이 지방의 문화적 특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삼국의 문화가 혼합되어 특유한 문화를 형성한 곳이 바로 이 중원 지방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원의 문화적 특성

충주, 중원을 지리적으로 동질적인 영역으로 분류하여 중원 문화권이라 부른다. 그 바탕 문화와 문화적 고유성을 밝히기 위해 중원 지방의 시대적 역할을 고찰해 봐야 할 것이다.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 남한강 유역의 문화 중심은 선사시대로부터 시작된다. 이 곳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에는 제원군의 점말 동굴과 단양군 상서리 동굴의 사람뼈, 제원군 한강변 일대의 구석기 유적 및 고인돌등이 있다.

역사시대에는 중원지방 교통의 이점을 살려 문물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중원 지방은 백제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백제와의 통로를 열어 교류를 원하였던 신라가 교역을 위한 통로를 만들었다. 삼국사기의 구 기록 연대가 사실보다 연대적으로 앞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백제와 신라가 문물의 왕래, 즉 문화 전파의 통로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후 고구려 세력이 확대되어 중원 지방은 백제에서 고구려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때의 고구려 남쪽 경계는 죽령과 계림령, 조령을 잇는 소백 산맥이 된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가 공동전선으로 한강 유역을 다시 찾게 된다. 신라 진흥왕 때 백제와의 공동 전선을 파기하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점 경영하게 되어 중원 지방은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삼국시대의 중원은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각각 한 차례씩의 지배를 받았으며, 바로 이 점이 중원 지방의 문화가 백제, 고구려, 신라의 독특한 문화를 모두 수용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중원의 문화는 삼국의 문화가 혼합되어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특유한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삼국시대의 중요한 문화 유적을 살펴보면, 우선 백제 문화 유적으로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에서 출토된 금동미륵삼존상(金銅菩薩三尊像)이 있다. 중원군 가금면 누암리 칠곡 부락의 고분군(古墳群)은 백제 시대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 계통의 문화 유적으로는 중원 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가 있으며, 중원군 가금면 탑평리 주변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는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에서 출토된 건흥오년명금동석가불광배(建興五年銘金銅釋迦佛光背)와 남한강 유역에 전하는 온달(溫達)에 대한 전설도 또한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영향은 백제와의 문물교류 통로였던 계림령과 죽령로를 들수 있으며,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 햇골산 중턱의 반가사유상(半迦思惟像)외에 7기의 불보살장군은 불교 문화의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통일 신라의 유적으로는 중원군 가금면 탑평리 7층 석탑이 있으며, 단양의 적성비(赤城碑),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3층 석탑, 제천시 장락리 7층 모전석탑(模博石塔)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곳곳에 절터가 있다.

이상에서 볼때 삼국시대 중원지방은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혼합문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특징적 문화는 신라에 의해 계승, 정착되었으며, 고려에도 이어져 인조 석굴 사원을 이루는 등 여러가지의 석조 유물을 남기

게 하였다. 바로 이 곳은 남북 문물의 교류처인 계림령이 위치하는 곳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같은 불교 문화는 고려 말기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성리학이 점차 불교에 대신하여 세력이 강해지면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에서 낙향하여 생활하던 선비들이 많아 사대부의 문화로 대체되어 갔다. 택리지에는 “충주읍은 한강 상류에 있어 물길이 왕래하기 편리한 까닭에 경성의 사대부가 옛부터 이곳에 와서 살 곳을 정한 바가 많다.”고 쓰여 있으며, 충주 지역에 전하는 수많은 신도비(神道碑)는 이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택리지에는 “사대부의 정자와 누각이 많고 의관을 갖춘 사람이 모여 들며 배와 수레가 모인다. 또 나라의 도읍지에서 동남쪽에 있는 까닭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가 많기로 팔도의 여러 읍에서 으뜸이니 명도(名都)라 하기에 족하다.”라고 쓰여 있다.

고려 시대까지의 불교 문화가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학자와 사대부가 등장하는 유교 문화로 변화하여 중원 지방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더해가게 되었다.

◇ 참고 문헌 ◇

장기덕(張基德), 1977, <<중원향토기>>1, 형설출판사.

연세 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1995, <<한국사 전공 답사>>.

김현길(金顯吉), 1984, <<중원의 역사와 문화 유산>>, 청지사.

2. 한국의 불교문화

최경석, 임태환, 최미선, 서선일

김영희(조장), 하해두

김지민, 김광희, 최미현, 이상희, 엄무근, 김현유

우리 역사를 통해 문화적 영향에 있어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교문화이다. 천신을 최고신으로 하여 여러 잡다한 속신과 태양을 숭배하던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에 외래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어 문화에 새로운 변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불교는 우리 민족의 고대신앙이나 고유풍속 등 종래의 문화에 거슬리지 않고 잘 융화되어 훌륭한 민족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즉 불교는 단순히 종교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현상으로서 민족문화의 모체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불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불교의 특색과 그것의 반영물인 사찰과 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한국불교의 수용과정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다. 전진에서 사신과 승려 순도가 와서 불상과 정전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374년에 승려 아도가 왔고 그 다음해 71 최초로 성문사와 이불란사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사원창건의 효시이다. 고구려에서 처음 받아들인 불교는 인과적 교리로서의 불교 또는 구복으로서의 불교였는데 이는 재래의 토속신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강력한 통치를 위해 사상적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서 불교는 더욱 장려되었다. 그래서 고구려가 삼국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형성의 기틀을 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고국양왕과 광개토왕때에는 더욱 장려되었고 고승들이 구법과 전교활동을 위하여 나라밖까지 나아가 활약하기도 했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12년 늦은 침류왕 1년(384)에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가 동진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와서 전래되었다. 그 당시 백제는 새로운 문화인 불교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곧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로부터 8년 후 아신왕 1년(392)에 왕이 백성들에게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라는 명을 내릴 정도로 불교가 생활화되어 갔다. 그리고 불교의 생활화가 백제의 정신문화를 신앙과 사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약 140년쯤이 지나서 26대 성왕에 이르러 크게 번창하였는데 인도로부터 귀국한 겸익에 의해 크게 발전을 보이고 일본에까지 전파하게 되었다.

고구려, 백제의 경우와는 달리 신라의 불교수용은 순탄하지 않았다. 눌지 마립간때에 고구려로부터 묵호자가 신라의 일선군에 들어와 모례의 집에 기숙하면서 불법을 전하여 모례는 최초의 신도가 되었다. 그 후에 아도가 들어와서 불법을 전도하여 신봉하는 자가 늘어나고 왕실에서 불교공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씨족 중심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큰 저항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가 법흥왕 14년(527)에 불교신자이며 젊은 신하인 이차돈의 순교에 힘입어 비로소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렇게 공인된 신라불교는 이기적 신앙과 함께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¹⁾ 전륜성왕²⁾신앙으로 신라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법흥왕에 의해서 시작된 신라불교는 진흥왕대에 이르러 신라풍토에 알맞은 불교로

1)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을 믿는 신앙으로 여겨지는데, 미륵하생경은 미륵육부경의 하나로 ‘미륵성불경 미륵부래하생경’ 등으로 불린다. 미륵보살이 도술천으로 부터 下生하여 율학수아래서 성도한뒤 구회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한 것을 말한다.

2) 전륜성왕은 윤보(輪寶; 현재의 전차에 해당)을 굴리는 왕이라는 뜻으로, 七寶(輪·象·馬·珠·女·居士·主兵臣)를 가지고 四德(장수하여 번민이 없고 용모가 뛰어나고 보배가 곳곳에 가득한 것)을 갖춘 정법으로 세계를 통솔한다고 생각되는 신화적·이상적 왕이다.

정착되었다. 진흥왕대에 불교이념을 흡수한 수양단체인 화랑도가 창설되어서 국민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였다. 신라에서 불교가 국가와 문화에 적응한 예를 원광의 세속오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세속오계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벼를 믿음으로 사귀고,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말며,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절대 살생을 금하고 있는데 원광이 살생을 하되 가려서 하라고 한 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신라인이 불교의 참 뜻을 새롭게 수용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대의 삶과 얹어 깊은 관계를 맺은 포괄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불교문화의 특징

인도문화권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에 전파된 불교는 또 다시 동으로 흘러 중국에 전래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는 원래 고대에서부터 중국문화가 형성되어 유교나 노장사상 등 고유의 사상이 깊게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 외래종교인 불교는 이들 고유의 사상과 잘 융합해 가면서 중국 독자적인 불교를 형성했다. 여기서 중국 불교는 동아시아 전지역, 한국, 일본, 말해, 베트남 등으로 전파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 따라서 한국 불교는 진정한 동아시아 불교권 속에 하나라고 하겠다.

동아시아 불교권의 공통점은 <<한역대장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역대장경>>을 근본경전으로 삼고 교리의 연구나 발달도 한역경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한국, 일본불교가 공통적이다. 한국에서 한글을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고 일본에서 가나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平安말기에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한역대장경을 의존하면서도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불교를 창조하였으며, 중국불교와도 다른 독자적인 불교를 한국인의 주체성에 두고 창조하였다.

<호국불교의 전개>

신라 진평왕 23년(551)에 시작한 法會의 종류에는 백고좌강회(百高座講會)³⁾와 팔관제회(八關齋會)가 있다. 백고좌강회는 <<인왕 호국 선약파라밀다경(仁王護國若波羅蜜多經)>>의 설을 따라 내란과 외환 등의 악운을 물리치고 왕실과 국가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행한 법회였다. 팔관제회는 8계를 호지하여 전사한 병사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한국불교가 시종 일관한 전통은 이 호국불교의 정신이다. (물론 이것은 고구려나 백제, 모두 마찬가지이다. 왕권 및 지배질서의 안정을 옹호받고자 하는 왕실의 요구에 따라 자연히 호국 불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은 원광의 ‘世俗五戒’이다. 5계 가운데 제 1조는 ‘나라(임금)에 충성할 것이며’ 제 4조는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원광의 임전무퇴의 계율이 고구려 백제와의 싸움에 큰 힘이 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정신적 힘이 되었던 것이다. 또 적국의 항복을 발원한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이라든가 왜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해를 바라 보고 있는 석굴암의 불상, 그리고 ‘죽어서 호국의 혼이 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해저 황룡을 부탁한 무열왕 등 그 어느 것도 강렬한 국가의식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엔 무력으로 유린해 온 몽고에 대해 적국항복의 비원이 담긴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부처님의 가호를 기원하며 조판된 <<고려대장경>>은 세계문화의 역사상에 있어서 불멸의 광명을 발산한 문화유산이다. (高麗時,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몽고침략 당시 충주성의 노비와 승려들의 항쟁 또한 호국 불교의 모습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몽고가 물러간 후 모두 억울하게 토벌당했지만.....)

조선시대의 임진왜란때 서산, 사명 등 의승이 무기를 들고 의군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조국 방위를 위해 피를 흘렸

3) ‘백고좌(百高座)’로 불교 법회의 이름이다. 사자좌(獅子座) 100자리를 만들어 고승 백분을 모셔와 그자리에 앉게 하고 설법하게 하는 큰 법회이다.

다. 이러한 신라불교의 호국정신은 조선조에 이르도록 그 맥을 생생히 이어온 것이다.

<종합불교>

한국 불교의 사상적 특징은 종합불교라 할 수 있다. 신라 원효의 불교사상은 화엄⁴⁾, 법상⁵⁾, 삼론⁶⁾, 정토⁷⁾가 찬란하게 융합된 것이라 하겠다. 9종을 모두 겸학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의 모든 교학을 융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 원효는 ‘백가(百家)의 이쟁(異諍)을 화합하여 한맛의 불교로 귀착시키는 것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목적에 두었다. 이같은 원효의 종합적 불교는 후일 한국불교의 전통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지눌은 “제불(諸佛)은 이를 입으로 설하여 ‘교(敎)’라 하고, 조사(祖師)는 이것을 마음으로 전하여 ‘선(禪)’이라 한다.”(<<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선(敎禪) 일치의 종풍을 수립하고 교학과 좌선을 하나로 종합시켰다. 조선조에 있어서 전 불교의 종파는 교종과 선종으로 통합시켜 종합불교를 만들었다.

<한국불교의 복잡성>

종래에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모방 내지는 이식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단순한 이식이나 모방은 아니다. 물론 중국불교가 전래됨으로서 시작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한민족은 중국불교를 수용하면서 스스로가 독자적인 불교와 불교문화를 창조했다.

더우기 한국불교에는 중국불교 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의 영향도 인정되고 있다. 한 예를 든다면 백제나 가락국의 불교는 인도불교나 남해로 경유한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원의 영향을 받은 고려불교는 티벳 계통의 불교영향도 인정되고 있다.

한국 불교의 복잡성은 사찰에 삼신각을 모셨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 ‘삼신각(三神閣)’이란 ‘독성각(獨聖閣)’과 ‘산신각(山神閣)’ 그리고 ‘칠성각(七星閣)’을 말한다. 이 중 독성각은 독각을 모셨다는 점에서는 불교적이지만 칠성각과 산신각은 불교가 아니다. 칠성각의 주신은 복두칠성이다. 복두칠성을 모시고 수복식재(壽福息災)를 축원하는 것이 칠성신앙이기 때문에 이는 도교의 신앙이 불교속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산신각의 ‘산신’이란 고조선시대 기자(箕子)가 조선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단군이 아사달(阿斯達)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신화의 원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고려시대에는 현세인의 신으로서 신앙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사찰의 신중단(神衆壇)에는 팔대금강, 사대보살, 십대명왕, 제석천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일월신, 칠성, 이십팔수, 용왕, 산신, 조왕신 등 104위의 호법신을 모셨고 이들 속에는 불, 보살 뿐만 아니라 도교의 신들도 있다. 그 이외에도 고려 초기 도선의 풍수신앙도 불교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동북아시아에 근저한 무속신앙으로서의 역할이 조선조에 와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

<불교의식>

불교는 여건에 따라 자체의 발전과 함께 민중적 사회적수용에 따른 변천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문화와의 융화속에서 새롭게 재정비되는 불교의식이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불교를 수용한 계층은 귀족 특권 계층이었으므로 불교가 사회전반에 수용되어지기 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종래의 신앙과 새로 유입된 종교와의 갈등도 있었음을 삼국유사의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라는 내용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글의 제목은 경주의 서쪽에 있는 선도산의 여성신인 성스런 어머니일 성모(聖母)가 불교의 일을 기쁨으로 따라했다는 뜻이다. 이 내용은 전통적인 신앙들과 불교가 잘 융합되었음을 보이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오히려 수희불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점이 있는 만큼 당시 토착신들의 저항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념형태

4) 화엄경을 근본 경전으로 하여 세운 종파인 화엄종. 화엄(華嚴)이란 민행 민덕을 닦아 덕과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다.

5) 우주의 실체보다 현상을 세밀히 분류,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여 온갖 만유는 오직 식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유식종(唯識宗).

6) 삼론에 의거하여 무상개공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 종파.

7) 아미타불의 대원력으로 정토에 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불교의 한 파. 무량수경, 십육관경, 아미타경을 所依로 함.

도 달라져 재래신의 존재가 있는 이상 그와의 교섭관계가 불가결하게 되어 신불습합(神佛習合)이라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풍속과 결합하여 구체화, 실천화되는 경우에 더욱 강하여진다. 즉 불교의례는 사회에 수용되고 민중사이에 뿌리내림으로써 정착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록 고도로 발달한 불교의 심오한 관념체계가 결여되어 있더라도 생활속에서 어떻게 불교가 영위되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사상체계로서의 불교는 민속불교로서 민중사이에 유포되어 생활화된 것이다.

원효(元曉)는 수많은 저술을 통하여 한국불교사상의 체계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학승으로서의 원효가 종교인으로서의 임무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을때 다시 민중과 접촉하고 민중불교의 이해와 그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음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의상(義湘)도 이러한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의 학문적인 공적은 화엄학(華嚴學)의 대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역시 민중의 성향을 살피서 정토신앙(淨土信仰)에 고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활불교의 구체적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교는 의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불교의례의 범주를 살펴보면 세시풍속의례(歲時風俗儀禮), 일상신앙의례(日常信仰儀禮), 소재신앙의례(消災信仰儀禮), 자자신앙의례(死者信仰儀禮), 영혼천도의례(靈魂遷度儀禮), 기타 불공신앙의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불교는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는 호국불교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며 교리적인 특징을 말한다면 종합불교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속신앙과의 혼합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이같은 불교는 일본불교나 중국불교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성격이다.

3)사찰과 탑과

<사찰>

사찰은 불상을 모시고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불도를 닦고 불교의 교법을 설파하는 곳으로 사원·사찰·가람 등으로 불려진다. 절의 어원은 상가람(上伽藍)로서 교단을 구성하는 남자와 출가한 여자 재가의 남자신도와 여자신도의 사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원시불교교단에서 출가수행자는 무주처를 원칙으로 하는데도 절이 생기게 된것은 장마철에 유행이 어려워 한곳에 모여 수행을 하게되니 이를 안거라하며 이때 비바람을 피하기위해서이다. 이것이 간소하게 만든 일시적인 거주지에서 점차 확대되어 영구적인 시설물을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원을 절이라 부르게 된것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몇가지 설이 있다. 신라에 불교가 전해질때 아도가 일선군 모례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말로는 텔레의 집이 되어 그 텔이 텔에서 절로 바뀌었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사찰은 불교가 도입된 삼국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과 불교적 교리에 따라 그 배치기법과 공간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세계를 현세에 암시하며, 부처의 가르침을 도상적으로 나타내고자하는 종교적인 배경과 당시 궁궐에 버금가는 최고의 건축으로서 엄격한 권위성을 표출하고자 한 사회적 배경, 그리고 한국의 자연 지세에 어울리게 건물을 배치한 지리적 배경등이 시대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내외부 공간의 연출을 달리하여 왔다.

우리나라 가람배치의 대표적인 형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제 1형식 -탐원 금당원 승원의 복합 배치 형식: 탐을 모신 곳과 불상을 모신곳. 그리고 승려가 거주하는 곳이 엄격하게 나누어지는 형식을 말한다.

제 2형식 -탑이 있는 예배원과 승원의 복합배치 형식:탑과 금당 또는 탑 금당 강당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예배원과 승원으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이 형식을 다시 금당과 탑의 배치에 따라 1탑 1금당, 2탑 1금당, 1탑 3금당의 형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 3형식 -탑 없는 예배원과 승원의 복합 배치 형식; 이는 드문 편이나 조선시대의 가람 배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여러 전각과 종루, 고루, 경루를 포함한 수많은 부속건물과 천왕문, 일주문등이 어우러져 매우 다양한 배치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으나 정확히 모르는 사찰내의 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 대웅전(大雄殿) :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의 절에 있는 불전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사찰의 중심에 위치하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안한 것이다. 격을 높혀 대웅보전이라고 할 경우에는 석가모니불의 좌우에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를 모시고 여래불의 좌우에 다시 협시불을 봉안하기도 한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법회인 영산회상을 상징한다.
- * 아미타전(阿彌陀殿) :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이라고도 하는데,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좌우에 봉안하고 삼존불의 뒤쪽에 극락의 법회장면을 모사한 극락회상도나 극락구품탱화를 걸어서 극락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 * 약사전(藥師殿) : 약사여래를 주불로 모시고 월광보살과 일광보살이 협시로 봉안된다.
- * 관음전(觀音殿) : 원통전이라고도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봉안하고 그 좌우에는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을 배치하는데 이들은 조상이 아니라 후불탱화에서만 나타난다.
- * 대적광전(大寂光殿) : 화엄전 또는 비로전이라고도 하며 불전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연화장세계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인 석가모니불과 보신불인 아미타여래를 봉안한다. 그리고 화신불과 보신불의 좌우에 가가 문수 보현 관음 새지보살을 협시로 봉안하기도 한다. 해인사 금산사의 대적광전이 대표적이다.
- * 영산전 : 석가모니불과 그의 일대기인 팔상탱화를 봉안한다.
- * 용화전 : 미륵전 또는 미륵의 한문 의역인 자씨를 취하여 자씨전이라고도 한다. 이 불전은 미륵신앙을 응축시킨 것으로 미륵불이 주존물이며 그뒤에는 미륵정토변상도, 용화회상도, 미륵내영도와 같은 미륵후불탱화를 봉안한다. 금산사의 미륵전이 대표적이다.
- * 니한전 :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봉안하고 주위에 석가의 존자인 16나한상을 봉안한다. 이것은 수도승에 대한 신앙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면존자와 무독귀와를 협시로 봉안하고 그 좌우에 면부시왕상을 배열한다. 따라서 지장이 강조되면 지장전, 명부시왕이 강조되면 명부전이라고 한다.
- * 조사당(祖師堂) : 응진전이라고도 하며 선종계통의 절은 조사에 대한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조사들의 영정을 봉안한다.
- * 산문(山門) : 정의 입구에 있는 일주문, 가운데에 있는 천왕문, 마지막에 있는 불이문을 말한다. 사찰에 따라 일주문과 천왕문사이에 금강문을 두기도 한다. 사천왕문에는 사천왕상을 인왕문에는 인왕상을 금강문에는 금강역사상을 봉안하는데, 이러한 불법용호신주를 봉안한 문을 지나 절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악귀가 제거되어 가람이 청정도량이 된다는 것이다.
- * 산신각(山神閣) : 불교에 없던 토착신을 호법신중으로 수용한 것으로 산신은 호랑이와 노인상으로 표현된다.
- * 칠성각(七星閣) : 산신과 같이 불교와는 무관한 신이었으나 수명장수신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칠성의 화현인 칠여래 등을 탕화로 그려 봉안한다.
- * 독성각(獨聖閣) : 독성이란 혼자 깨우친 성자라는 뜻이며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고 있는 나반존자를 모신 전각이다.
- * 삼성각(三聖閣) : 산신, 칠성, 독성을 한 전각 안에 봉안한 것이다.
- * 누각(樓閣) : 절의 중심 불전 앞에 세워진 것으로 대법회가 있을 때에는 이 누각에서 불전에서 행할 행사를 치르게 된다.

<탑파>

탑파(塔婆)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이다. 탑파란 한자어는 본디 산스크리트어 스투파 또는 팔리어 투파를 음역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탑파를 나타내는 한자어로는 솔도파, 수두파등이 있다. 부처님이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후 인도의 전통적인 장례법에 따라 불신을 다비하여 나온 유골 곧 사리를 여덟 나라가 고루 나누어 가지고 각 나라에 세운 이른바 근본팔탑에서 탑이 시원한다.

한편 부처님 재세시에 인연이 깊었던 성스러운 곳에 그 인연을 기려 세운 기념품 역시 탑의 기원이 된다.

따라서 탑의 건립과 수호는 처음에는 재가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리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 마침내 조탑공덕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탑을 세우거나 수호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중국인들은 백제를 일컬어 ‘절과 탑이 매우 많은 나라’ 라고 하였으며 사택지적비에는 “황금으로 법당을 짓고 옥으로 불탑을 세웠다” 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서울을 가리켜 “절을 밤하늘의 별처럼 널려있고 탑은 기러기의 행렬처럼 줄지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대 문화재 가운데 불상과 함께 주류를 이루는 것이 탑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옛탑이 155여기에 이르며 국보와 보물의 약 25%가 탑이라는 점만으로도 탑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초기 인도의 탑은 흙이나 벽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중국에서는 벽돌과 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나무와 벽돌, 특히 돌을 많이 이용하였고 일본은 나무로써 탑을 만들었다. 이처럼 만든 소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탑, 목탑, 석탑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부하고 질이 좋은 화강암을 이용한 훌륭한 석탑과 석불이 많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여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석탑을 창출하였고 수백년동안 사찰의 다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석탑의 변형을 시도하여왔던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한국의 석탑이다.

◇ 참고문헌 ◇

홍윤식, 1986,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정의행, 1991, <한국불교통사>, <<한마당>>.

김현준, 1991,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정 각, 1994, <예불:사원에 깃든 불교사상을 찾아서>.

신영훈, 1994, <절로기는 마음:한국의 사찰과 조형문화>, <<책만드는 집>>.

김상현, 1995, <한국불교사산책>, <<우리출판사>>.

목정배, 1995, <한국문화와 불교>, <<불교시대사>>.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의 유교

박현정(조장), 이석원, 김동은, 김승훈

최성은

서나영, 구성은, 김진성, 이정민B, 류기영, 김윤식, 이랑, 이재열

1) 한국유교의 개관

유교는 과거에 불교·도교와 더불어 유·불·선 3교로 일컬어져 왔고, 최근에는 기독교와 함께 유·불·기 3교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것은 유교가 한국의 전통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유교는 가장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닌 전통종교이며, 사회윤리나 정치제도 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도덕신앙적 성격을 보여준다. 전통사회는 말할것도 없고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생활속에는 유교적 가치규범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국인의 가족개념과 대인관계의 예절이나 직업관·국가관등은 유교적 의식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공대말이 특히 발달한 사실도 남을 공경하고 자신을 겸양하는 유교의 덕목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유교의 전래

한국에 유교사상이 전래된 시기는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히 알수 없다. 다만 BC 3세기 무렵 위만조선(衛滿朝鮮)으로부터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유교사상이 부분적으로 전래되었고, 삼국시대에 이르러 공자의 경학사상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져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유교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는 대체로 고래(古來)의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점차 유교가 생활속에 자리를 잡고 그 영향이 깊어질수록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가차관·생활양식·법률제도 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삼국 가운데 고구려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가장 먼저 중국문화와 접촉하여 수용, 발전시켰으며, 백제는 해상을 통해 중국과 교류함으로써 유교 및 중국의 문물·사상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그러나 신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삼국시대>

고구려는 재래의 고유한 풍속과 전통을 고수하면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중국문화와 유교사상이 전래되어 조국초기부터 유교가 상당한 규모로 활용되었다. 372년에는 국립대학인 태학(太學)을 세워 교육에 힘썼는데 이것은 국가체제와 문물의 정비, 유교의 정치원리에 입각한 통치, 유교경전 학습을 통한 인재의 배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유교의 법식은 백제인의 의례와 윤리의식에도 큰 영향을 끼쳐 묘제등에도 유교적인 의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신관(神觀)·사생관·윤리의식이 점차 유교화되었다. 또한 4세기 후반부터는 유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여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신라는 지리적 영향으로 유교의 전래가 가장 늦었다. 그러나 유교를 받아들임으로서 이를 사회질서와 정치이념에 유효적절하게 토착화하였다. 유교사상은 화랑도(花郎道)와 국학을 통한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신라의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강수(强首)·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 등이 있다.

<고려시대>

고려 초기에는 태조 왕건(王建)이 불교를 숭상한 영향을 받아 유교적 정치사상과 이념의 현실적용이란 특성 아래

유교적인 교양이 지식인 사이에 일반화된 상태였지만 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유학사상이 아직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성종때에는 최승로(崔承老)와 같은 유신(儒臣)의 영향으로 숭불의 폐단을 고려, 팔관회등의 불교행사를 금하고 유교주의를 채택하여 정치의 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문종때의 유학자로 해동공자(海東孔子)로 불리우던 최충(崔冲)은 사학인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열었고, 뒤이어 십이공도(十二公徒)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고려 초기의 수사사업(修史事業)의 흐름속에서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는, 유학적인 역사식과 역사서술의 체계를 갖춘 역사서로 평가된다. 한편 관학이 부흥하고 의종때의 무신의 난을 겪고 난후 유학은 침체기에 접어들고 현실도피적 경향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고려 말엽에는 유학 부흥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안향(安珦)⁸⁾에 의해 주자학이 도입되어 우탁(禹倬)·권부(權溥)·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등에 의해 심화되면서, 유학은 철학적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조선의 유교입국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된다.

<조선시대>

유교는 조선시대에 와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유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고, 세종때 유교문화가 꽃핀 이래 성종때에 이르러서는 문물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15세기 말엽부터 영남의 사림파(士林派)가 정계에 진출한 이래 훈구파와 대립하여 4대 사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중종때는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람들이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향촌자치제와 왕도정치를 주장하다가 훈구파에게 몰려 몰락하였는데, 기묘사화 이후로는 사람들이 정계진출을 단념하고 향촌으로 내려가 학문에 주력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학문의 경향도 사색과 이론탐구에 치중하면서 발전하였는데, 서경덕(徐敬德)과 이언적(李彦迪)은 조선 성리학의 선구였다. 그리고 서경덕과 이언적의 뒤를 이어 명종·선조때 많은 유학자가 배출되었고, 성리학은 일대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이황(李滉)과 이이(李瑊)가 대표적인 학자로, 그 학풍이 후세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뒤 국가체제와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예학(禮學)⁹⁾이 성립되어 17세기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이어 17세기 후반부터는 지리(支離)·변해(煩碎)하고 공소한 학설로 전락한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과 예론(禮論)의 대립을 지양하고 원시유교의 근본정신에 입각, 경세치용(經世致用)·이용후생(利用厚生)·실사구시(實事求是) 등을 부르짖는 실학사상이 대두되어 영·정조시대를 전후로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시작됨에 따라 실학파의 활동이 부진하게 되자 다시 성리학이 세력을 만회하였다. 그 뒤 서학(西學)의 세력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이 대두하여 외국사상과 외국문물에 대한 배격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수구운동(守舊運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근세의 개화정신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많았다. 그 원인은 조선말엽의 유교계가 대부분 국제정세에 어둡고 유교의 유신정신(維新精神)을 망각한채 수구만을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3) 한국의 서원

<서원의 성립과 서원의 역할>

전국 곳곳에 관공지로서, 문중의 모임 장소로서 퇴락한 채 또는 새로이 단장한채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서원(書院)은 우리 역사의 한 때를 증거하고 있는 발자취이다. 선비들이 모여서 명현(名賢) 또는 충절(忠節)로 이름 높은 위인을 받들어 모시고 그들의 덕망과 절의를 본받고자 하며 배움에 힘을 쓰던 서원은 조선조 500년 역사에서 그 어느것 못지

8) 고려 충렬왕 시대의 사람으로 아버지(季)는 흥주(興州)의 이숙으로 의업으로 출신하여 벼슬이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다. 그는 여말에 東傳된 성리학의 연구와 보급에 힘쓴 유학자일뿐 아니라 文教育英金庫인 '섬학전(贍學錢)'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토록한 교육자였다. 忠肅王때 文廟에 從祠되었다.

9) 유학교육의 道德律로서 사람됨의 길을 닦아야 하고 또 닦을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예학은 뒷날 도학개념의 한국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退溪는 조선성리학의 禮敎時代'를 실질적으로 연 분이라 할수 있다.

않게 조상의 숨결이 깊게 어려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서원이란 명칭은 당나라때 궁중에 설치되어 서적을 편찬하고 보관하던 집현전 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현을 받들어 모시고 어울려 공부하던 본격적인 서원은 송나라때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대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은 지방 곳곳에 사사로이 글방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였는데, 그 역량이 커지자 나라에서는 서원이란 이름을 내려 장려하였다고 한다. 당시 중국에는 수양 서원(水陽書院), 석고 서원(石鼓書院), 백록동 서원(白鹿洞書院), 악록 서원(嶽麓書院) 등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주자가 강론을 하던 백록동 서원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서원이 생긴 것은 1542년(중종 37)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한 안향(安珦)의 옛 집터에 사당을 짓고 안향을 제사지내며 선비의 자제들을 교육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¹⁰⁾이다.

이러한 서원의 그 주된 설립 의도는 배움의 장을 마련함에 있었고, 그 의도에 맞는 참교육의 장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데는 16세기의 사화(士禍)가 큰 계기가 되었다. 향촌에서 나름대로 학문을 연구하던 유생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에의 참여를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했고 되풀이 되는 사화 속에서 극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하였다. 많은 유생들이 유혈 참극의 제물로 사라져 갔고, 죽음을 면한 유생들은 먼 지방 오지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에 유생들은 정치 참여를 잠시 뒤로 미루고 산간이나 고향으로 낙향하여 학문에만 힘을 쏟고 뜻이 맞는 동료들과 자주 강학회를 가지면서 후진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끌어간 것은 서경덕(徐敬德),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조식(曹植), 김인후(金麟厚), 기대승(奇大升), 성혼(成渾), 이이(李瑊)¹¹⁾ 등 명망이 높았던 선비들이었다. 그들은 향촌의 유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거리를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 배움을 청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들이 머무는 곳은 배움의 요람으로 자리 잡아 갔다. 이렇듯이 서원은 향촌의 유생과 명망있는 석학들이 연결되면서 체계적인 교육 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시작했다.

서원에서의 교육은 거의 성리학 위주로 구성되어 원생들은 그것을 근거로 사물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덕목으로서 유교 의례를 익혀 나갔다. 또한 서원의 주구성원들이 대개 중앙정계 진출에 뜻을 품고 있던 인물들이었고, 중앙 정계에서 쫓겨난 선비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재기 장소로 활용되었고 봉당의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움의 장으로서의 서원은, 조선조 후기로 내려오면서 선현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곳으로 기능이 변질되어 갔다. 특히 어느 한 문중에 의해 서원이 건립되고 그들의 조상 가운데 한 인물이 제향되면서 교육의 기능 보다는 사묘(祠廟)의 기능이 더 커지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의 서원은 단순한 사우(祠宇)¹²⁾ 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었다. 조선 왕조는 승유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사후에 제향하는 사우의 설립을 장려하여 도처에 사우가 생겨났으니 단군, 기자, 김유신, 신승겸, 이순신, 권율, 임경업, 송상현 등을 모시는 사우가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조선 후기에는 문중 또는 향촌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정당화하고 우세화하기 위하여 문중의 인물, 향촌의 인물이 기준도 없이 선정되고 또 별다른 연고도 없는 사람을 빌려 오거나 수많은 사람을 한 서원에서 배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서원이 남설(濫設)¹³⁾되어 그 격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

10) 明宗 5년(1551)에는 李退溪의 건의로 국가공인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된 이래, 明宗代에 29개 서원, 宣祖代에는 124개로 급증하였다.
11) 1. 이우성(李佑成)교수는 퇴계(退溪)의 書院創設運動은 지방의 新進士林들을 性理學의 취지하 에 모여에 들게 하고 이어 참다운 공부를 시키려는 뜻에서였다고 하면서, 퇴계의 서원창설운동은 신진사람들을 흡수하여 참다운 공부를 시킬 環境助成運動이었다고 한 바 있다.
2. 재야학자들, 특히 近畿學統의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적 진실추구의 學으로서의 退溪學의 기 본정신은 내면세계로부터 외부지향으로 나타나 이른바 實學時代를 열어놓았다.'고 한다.
12) 사당(祠堂)으로서, 본래 서원과는 달리 교육기능이 없이 오로지 氣節이 있는 자들, 대개는 臨亂殉節이나 효자 또는 그 지방에 공덕을 남긴 자들을 제향하여 風化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肅宗代를 기점으로 하여 祠宇의 남설은 100里의 邑에 私祠가 수십에 이르러 一門중에 부자형제나 혹은 효행을 일컬고, 혹은 戰亡을 일컬어 나이순으로 서열하여 一院에 제향하는 것이 12-13인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3) 書院, 祠宇의 남설에 대해서는 肅宗 40년(1741)에 첩설(疊設) 금지령이 내려져 이미 제재의 초치가 내려졌으나, 이 금령이 실천에 옮겨진 것은 英祖 3년(1727)부터였다.

중의 결속, 향촌 사림의 결속을 위하여도 서원에서의 선현 봉사는 필요하였다. 특히 17세기 이후의 서원은 제향 위주의 성향이 현저해짐에 따라 사우와 그 기능이 동일시되어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후손이나 문중에서는 다투어 건립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장의 역할과 선현의 제향이라는 역할 이외에 서원이 담당하였던 중요한 기능으로 향촌 사회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은 서원이 1차적으로 배움의 장이라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배움의 필수 조건으로 예나 지금이나 책을 빼 놓을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구비하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서원에 문고(文庫)를 두어 여러가지 서적을 수집, 보관하고 나아가 연구성과 또는 선현의 사상을 보급 하기 위하여 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서원의 본래 기능이라고도 하겠다. 서원이란 용어 자체도 도서관적 기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집현전 서원이 그러했고, 신라 때의 서서원(瑞書院), 고려 때의 수서원(修書院) 등이 모두 많은 책을 수장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서원의 설립 장소>

서원은 배움의 장이고 아울러 선현을 받들어 모시던 곳이다. 따라서, 선비들은 공부하기에 좋은 조용한 장소를 찾았을 것이고 선현들과 연고가 깊은 곳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서원의 자리는 일반적으로 사찰의 위치와 비슷한 산수가 뛰어나고 조용한 산 기슭이나 계곡 또는 향촌에 마련되고 있다. 이는 세속을 벗어나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의도에서였다. 이황도 도처에 서원을 건립하면서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산천 경계가 수려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만큼 교육 성과가 크다”고 하였다. 한편 서원의 자리로써 절터 또는 퇴락한 사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장소도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원이 들어서기에 좋은 여건이 된다. 소수 서원(紹修書院), 옥산 서원(玉山書院), 노강 서원 등은 그러한 곳이었다. 사찰에서 서원으로의 전이는 문화의 교체에 따른 공간 점유의 계승이라는 면도 있겠으나 새 질서의 수립이라는 정책적 측면의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서원은 일반적인 서재와는 달리 선현을 봉사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배향하는 선현의 연고지와 관련이 깊다. 곧 서원 안에는 사당이라는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기에 그곳에 배향되는 주향자는 그 장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순흥의 소수 서원은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안향의 고향에 세워진 서원이고, 순천의 옥천 서원은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일파라고하여 순천으로 유배되었던 김광필의 학덕을 추모하고 있으며, 자운 서원은 이율곡의 선영이며 사후의 안식처인 서원 마을에 세워진 것이다.

한편 일부 서원은 서원에 배향된 선현들이 살았을때 세운 서당이 발전하여 이룩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도산 서원 안에 있는 도산 서당은 이황이 살았을 때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곳이다. 그의 제자들은 이황이 죽은 뒤 도산 서당 옆에 사당을 세우고 교육 시설을 확충한 뒤 도산 서원을 꾸몄다. 또 연산의 둔암서원도 김장생이 서당을 차려 제자를 가르치며 공부하던 곳이었는데, 김장생이 세상을 뜨자 그 자리에 사당을 세우고 서원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특히 安東은 영남¹⁴ 가운데에서도 진보 이씨, 의성 김씨, 하회 류씨, 안동 김씨, 안동 권씨 등 명문 거족이 많이 살고 있어 士林의 본거지였다. 안동, 예안, 진보일대에는 20개소 가까운 서원이 분포되어 있다.

<서원의 시설>

서원에는 교육 시설과 제향 시설이 필수적이었다. 경치가 좋고 한적한 곳에 자리를 정하게 되면 실재 시설물을 건축하게 된다.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풍수지리의 존중으로 뒤쪽에 산을 등지고 앞쪽으로는 시야가 트이면서 돌이나 강을 바라보는 산기슭에 터를 잡았다. 또한 심성의 도야를 위하여 서원 주변의 조경에 관심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건축을 해 나갔다.

서원 건축의 공간 구성과 배치는 교육 시설로서의 제실(齋室), 강당(講堂)과 제향 시설로서의 사당(祠堂)으로 크게

14) 영남 지방은 書院의 보금자리였다.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성리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곳이 고향인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김종직(金宗直), 김광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성리학의 정맥이라고 자부하고 성리학의 연마에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성리학의 샘터, 사림의 본비락으로 알려져 서원이 여기저기에 설립되었다.

나뉜다. 배치 형태는 앞쪽에 교육 시설을, 뒤쪽에 제향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각 건물은 일정한 중심축을 따라 앞에서부터 정문, 누각, 강당, 내삼문, 사당 순으로 배치되었다. 강당 전면에는 좌우 대칭으로 재실을 두었다. 그리고 제기고, 장판고, 교직사 등은 관련 주건물 주변에 적절히 배치되었다. 예외적으로, 소수 서원은 서원 건축의 기본 유형과는 전혀 다르게 각 건물이 불규칙하게 배치 건축되어 있다.

사찰이 종교성으로, 궁궐이 권위성으로 웅대하게 건축된 것과는 달리 서원은 산간이나 향촌에 은거하며 학업을 익히고자 하는 뜻으로 세웠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특별한 꾸밈은 없고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조형미가 돋보이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검소한 생활 환경을 중시하였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 반영되고 있는 서원은 전형적인 유교 건축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서원의 건물 구성은 서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서원의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인한다. 곧 처음에는 교육 시설이 중요시되었으나 17세기 후반 이래로는 제향시설 중심으로 건물이 조영되고 있다. 19세기에 와서는 대체로 사당(祠堂)과 강당(講堂)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의 모습으로 서원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 강당(講堂) ;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토론하는 곳.

서원 안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넓은 대청 마루와 온돌방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 재실(齋室) ; 원생들이 잠자는 곳으로 보통 강당 앞에 대청으로 위치하고 있다.

강당을 향하여 설때 오른쪽을 동재(東齋)라 하고, 왼쪽을 서재(西齋)라 한다. 보통 동재에 기거하는 원생이 서재의 원생보다 선배이다.

* 사당(祠堂) ; 선현의 위패 혹은 영정을 모시고 봄과 가을에 제가 지내는 곳.

* 장판고(藏板庫) ; 장판각(藏板閣), 경장각(經藏閣), 서고(書庫) 등으로도 부른다.

서책이나 이것을 찍어 낸 목판을 보관하는 곳이다.

* 제기고(祭器庫) ; 제향 때에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고 기물을 보관하던 곳. 전사청(典祠廳)이라고도 한다.

* 누각(樓閣) ; 원생들이 배움 도중에 휴식하거나 여가를 위해 마련한 건물.

없는 곳도 많으며 곳에 따라서는 정문을 겸하기도 한다.

* 고사(庫舍) ; 서원의 관리와 식사준비등을 담당하는 곳.

<서원의 역사적 의의>

서원은 시대의 산물이다. 서원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은 조선 후기였지만 그것이 생겨난 것은 16세기 었다. 조선조에 있어서 16세기는 여러 면에서 큰 전환기였다. 정치적으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가 흔들려 그 힘을 잃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신분 질서가 흔들려 계층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봉건 질서의 빛이 바래고 있었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중앙 정계의 훈구파와는 다른 士林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타났고 그들 중심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이 제시되었다. 서원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서 사람들이 학문의 場, 교육의 場을 명분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세력을 결집하고 중앙 훈구파에게 대응하기 위한 실력을 기르는 온실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받고 출현한 서원은 점차 사람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 역기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즉, 붕당정치의 배후 지지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사색당파의 각 본거지로 서원들이 변모하게 되면서 서원은 초기의 학문 연구와 심신의 도야라는 본 목적을 버리게 된것이다.

또한 서원은 각 지방에서 그 세력을 공고히 하면서 사림에 의한 향촌 지배 도구로도 이용되어 일반 백성들 위에 국가 외의 또 다른 권력자로서 군림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서원의 3백여년간에 걸친 발달경로는 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등 여러 방면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무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대체로 잘된 교육은 정치와 경제 및 사회를 선도하는 등불의 구실을 할수 있으나, 잘못된 정치방향과 사회이념을 합리화 시켜주는 시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십상이다. 이렇듯 방자하게 세력이 커지던 서원은 결국 대원군이 집정하는 19세기에 이르러 서원의 철멸령을 맞이하여 대다수의 서원이 헐리게 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조 서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역

사에 있어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 윤이흠, 1987, 《한국의 종교》, 정음사
 李泰鎭, 1989,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丁淳睦, 1979, 《韓國書院敎育制度研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崔完基, 1991, 《한국의 서원》, 대원사.
 《한국민족대백과사전》

4. 가면극의 의미

최형수(조정), 이지현, 유송, 이종오

한태연, 이상훈

조승연, 김영론, 조예진, 양성제, 전민석, 류승현, 한규환

1) 민속극

민속집단 생활의 전반에 걸친 민족의 기반적 생활양태를 연극적으로 표현, 형상화 한것. 민속극은 농경의례나 장례 의식 등 각종 원시종교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풍농, 풍어제(동계 등)와 상제례 등에서 발생되어 예능으로 발전한 연극양식을 그러한 예로 꼽을 수 있다. 즉 가면극을 위시하여 민속인형극, 그림자극, 판소리 등이 그러한 민속극에 속한다. 이밖에도 민속극에 포함시킬 만한 것이 더 있는데, 가령 농악이라든가 굿의 난장이나 잡색놀이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굿은 예능적 측면이 강해서 탈놀이가 끼어 있다든가 주제가 뚜렷한 묵극(默劇)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속극은 일종의 초기형태의 제의성이 강한 연극양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성(희곡)보다는 춤, 마임 등 표현성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속극을 구비문학에 포함시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민속극은 모두가 축제의 일환으로 연행되어 왔으므로 놀이성이 강하다.

2) 하회별신굿탈놀이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하회리에 전승되어 오는 탈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그 근원은 서낭제의 탈놀이로서, 우리나라 가면극 전승의 주류를 이루는 산대도감계통극과는 달리 동계에 행하여지던 무의식극적(無意識劇的) 전승이다. 서낭제에 탈놀이를 놀았던 곳은 경상북도 안동군 일대에서는 하회리와 병산리가 알려져왔으나, 하회별신굿은 1928년(戊辰) 이래 중단되고 병산별신굿도 거의 같은 시기에 중단되어 하회와 병산의 가면 12종 13개만이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온다. 계승자는 1928년 마지막 별신굿 때 각지역을 맡았던 이창희(李昌熙, 1913-) 이다. 이 놀이는 10년에 한 번씩 혹은 신탁(神轄)에 따라 임시로 거행되는 별신굿의 하나로써 행해지는데, 별신굿은 먼저 선달보름날 산주(山主)가 마을 뒷산의 서낭당에 올라가서 대를 내려 신의 뜻을 묻고, 또 마을어른들의 동의를 얻어 별신굿 준비를 시작한다. 하회리의 서낭신은 '무진생 서낭님'으로 17세 처녀인 의성김씨라고 하고, 혹은 15세에 과부가된 서낭신으로 동네 삼신의 며느리신이라고도 전한다. 준비과정은 먼저 부정이 없는 목수를 골라 서낭대와 내림대를 만들고, 가면과 악기 등 기타 모든 도구를 점검한다. 이어 스무야흐렛날 동민대표들이 동사(洞舍)에 모여서 부정이 없는 사람들 중 배역에 맞추어 광대 12명과 산주 외에 서무를 맡는 유사(有司) 2명, 가면관리를 하는 청광대와 무동꾼들을 선정하고 선달그믐날부터 정월대보름날까지 합숙에 들어간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대내림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월 초이튿날 아침 산주와 광대들이 서낭당에 올라가 당방울이 달린 내림대를 잡고 서낭신을 내리면 당방울을 서낭대에 옮겨 달고 하산한다. 동사에 다다르면 서낭대와 내림대를 동사 처마에 기대어 세우고, 모여든 마을사람들 앞에서 농악을 울리며 한바탕 놀이를 벌인다. 이창희의 구술(口述)에 의하면, 탈놀이의 첫째마당은 '각시의 무동' 마당이다. 각시광대는 무동을 타고 뺨과리를 들고 구경꾼들 앞을 돌면서 걸립(乞粒)을 한다. 이 걸립은 탈놀이 전마당을 통하여 수시로 행하여졌고, 이렇게 모은 전곡(錢穀)은 모두 별신굿 행사에 쓰고, 남으면 다음 행사를 위하여 세워둔다. 둘째마당은 '주지놀이'로서 주지는 곧 사자를 뜻하며, 액풀이마당으로 벽사의 의식무(儀式舞)라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마당은 '백정(白丁)' 마당으로 백정이 춤을 추다가 사람이 멍석을 뒤집어써 만든 소를 죽여 우낭(牛囊)을 꺼내어 구경꾼들에게 판다. 이것도 걸립의 일종으로, 이 돈도 별신굿행사에 쓴다. 넷째마당은 '할미' 마당으로 쪽박을 허리에 차고 흰 수건을 머리에 쓴 할미광대

가 등장하여 살림살이를 한다. 배를 짜면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베들가>에 엮어 부르고, 춤을 추다가 쪽박을 들고 걸립한다. 이처럼 각시걸립과 백정걸립에 이어 할미걸립까지 세 마당의 걸립이 계속되는데, 이 걸립마당들은 이 탈놀이의 주제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파계승마당과 양반풍자마당을 위한 도입부 구실을 한다. 다섯째마당은 '파계승' 마당으로, 부네(妓女 혹은 小室)가 오금춤을 추며 등장하여 치마를 들고 오춤을 춘다. 이때 중이 등장하여 이 광경을 엿보다가 흥분하여 부네를 옆구리에 차고 도망간다. 이 마당은 대사 없이 진행된다. 여섯째마당은 '양반과 선비' 마당으로 양반이 하인인 초랭이를 데리고 나오고, 선비는 소첩인 부네를 데리고 나온다. 초랭이가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서로 인사를 시키고는 자기가 뛰어들어 양반대신 선비 인사를 받는다. 초랭이는 계속해서 양반을 풍자하고 골려준다. 양반과 선비는 서로 문자를 써가며 지체와 학식을 자랑하고 춤을 추고 노는데, 이때 별채(別差)역인 이매가 나와 환재(還子)를 바치라고 외치면 모두 깜짝 놀라 도망간다. 여기서는 관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거두면서 중간착취하는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이로써 여섯마당의 탈놀이는 끝난다. 선달그믐날부터 동사에서 합숙한 일행은 매일같이 동사 앞마당에서나 초청받은 대갓집에 가서 탈놀이를 하는 등 14일 까지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지내다가, 15일이 되면 아침밥을 먹고 나서 서낭대를 모시고 서낭당에 올라가 당제를 지낸다. 제사는 산주가 주재하며, 축문은 없고 비념만으로 마을의 평안과 풍년 들 것을 종일 소지(燒紙)를 올려 계속된다. 광대들은 처음 탈을 쓰지 않고 산주와 더불어 서낭당에 재배한 뒤 서낭당을 돌면서 풍물을 치고 나서, 탈을 쓰고 서낭당 둘레에 모여든 구경꾼들 앞에서 탈놀이를 놀았다. 저녁무렵 당제를 마치고 서낭대와 내림대는 당처마에 매어달고, 광대들은 청광대에게 각기 탈을 반납하고 15일 만에 합숙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다. 다만 유사와 광대 1명, 양반광대, 각시광대만이 남아 하산하여 동네 입구에서 혼례마당과 신방마당을 치른다. 명석 위에 장구 2개, 그위에 고깔을 하나씩 놓아 혼례상을 마련하고, 양반광대가 혼례식을 진행하며, 각시광대와 남은 광대 하나가 각기 탈을 쓰고 신부, 신랑역을 맡아 각시가 절 두번, 신랑이 절 한번 하고 혼례마당을 끝낸다. 이어 같은 명석 위에서 신랑, 신부의 첫날밤 행위를 모의적으로 행함으로써 신방마당을 치른다. 이 혼례마당과 신방마당은 17세 처녀신인 서낭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치르는 것이라하는데, 풍요의례(豐饒儀禮)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신방마당이 끝나면 각시광대도 탈을 청광대에게 주고, 청광대는 탈을 동사에 봉납하고 귀가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의 책임하에 동네 입구에서 무당들이 허친거리굿을 행하여 별신굿 동안 묻어 들어온 잡귀, 잡신들을 몰아낸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가면은 주지(2), 각시, 중, 양반, 선비, 초랭이, 이매, 부네, 백정, 할미 등 10종 11개가 현재 전한다. 가면의 재료는 오리나무이며 그 위에 두겹, 세겹의 옷칠을 하고 색칠하였다. 하회리에서는 이 탈들을 신성시하며, 특히 각시탈은 서낭신을 대신한다고 믿어 별신굿 때 외에는 볼 수 없고, 부득이 꺼내볼 때는 반드시 산주가 고사를 지내야 한다. 이처럼 의례용 가면으로서의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 탈의 제작자와 제작연대는 미상이다. 다만 탈의 대륙적 표정과 그 수법의 흔적으로 보아 대륙의 무악면과 일본의 노오가면(能假面)의 중간 위치 즉, 11-12세기(고려 중엽)를 그 제작연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작자에 대해서 허도령의 전설¹⁵⁾이 전할 뿐이다. 하회탈 중 양반, 중, 이매, 선비, 백정 등의 탈은 턱을 움직일 수 있어 표정의 변화를 가져오며, 초랭이, 이매는 좌우불상칭(左右不相稱)한 탈로서 움직임에 따라 그 표정이 변하여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회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각시, 부네, 이매 등은 완전히 한국화한 탈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면들은 현존하는 가면 중에서 아직 신성가면의 성격을 띠면서도 예능가면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심목고비(深目高鼻)의 기악면적 골격과 사실주의적 수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무악면이 갖는 양식적표현과 좌우불상칭의 수법 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탈의 제작연대로 추정되는 시기는 청자기가 성하고 고려인들의 미의식이 극도로 발달했던 시기로, 이 탈은 고려인들의 예술가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과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 가면사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악기는 농악기로서 탈놀이 광대들이 농악대를 겸하였고, 탈놀이 광대들이 이에 한차례씩 농악을 올려 놀이마당을 구분하였다. 장단은 주로 세마치장단을 많이 쳤다고 한다. 춤이나 동작은 놀이할 때 서낭님이 시켜서 저절로 하게 된다고 일러오며, 다른 탈춤의

15) 허도령(許道令)은 꿈에 신(神)으로 부터 탈 제작의 명을 받는다. 작업장에 외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삭(禁索)을 치고 목욕제계 전심 전력 탈을 만들고 있는데 허도령을 사모하는 여인이 애인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몰래 휘장에 구멍을 뚫고 허도령을 엿본다. 이 금단의 일로 허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숨진다. 그리하여 마지막 열 번째의 이매탈은 미완성인 턱없는 탈이 되고 만다. 그 후 허도령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매년 성황당 근처에 단을 지어 제를 올린다.

경우처럼 춤사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즉흥적이며 일상동작에 약간의 율동을 섞은 것이었다고 한다. 춤사위로는 몽두리춤과 오금춤이 있다. 채록본으로는 최상수(崔常壽) 채록본(1959)과 유한상(柳漢尙) 채록본(1959)이 있는데, 놀이마당의 순서가 약간 다르다.

◇ 참고문헌 ◇

- 《韓國의 탈》, 1982, 國立民俗博物館
 沈雨晟, 1988, 《마당굿연희본》, 깊은샘
 沈雨晟, 1975, 《韓國의民俗劇》, 창작과비평.
 金芳玉, 1977, 《韓國假面劇의 演劇美學》, 이대 대학원 국문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崔常壽, 1984, 《韓國假面의 研究》, 성문각.
 崔常壽, 1959, 《〈河回假面劇의 研究〉》, 고려서적주식회사.
 李杜鉉, 1969, 《韓國假面劇》, 文化財管理局.
 李杜鉉, 1979, 《韓國의 假面劇》, 一志社.
 柳漢尙, 1959, 《〈河回別神假面舞臺劇臺詞〉》, 국어국문학20.

<<논문>>

〈三國時代 忠州 中原地域의 歷史地理的 背景과 文化的 特性〉

2학년 김선, 신선옥

머리말

高句麗, 百濟, 新羅 삼국은 古朝鮮이후 나타난 수많은 小國을 병합하면서 나타났다. 이들 삼국은 국가 존립의 토대로서 土地와 人民이 결합된 統治領域의 擴張과 統治 效率性 向上을 위한 국가 체제 정비에 힘을 기울이며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이전까지 散在해 있던 여러 소국들이 삼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완충지가 사라지게 되어 4세기 중엽부터 삼국의 직접적인 대결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忠州 中原지방은 지리적으로 그러한 대결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숨가쁜 역사 시대를 맞게 되었다.

중원 지역은 北으로는 車嶺山脈과 南으로는 小白山脈에 둘러싸여 중앙부는 盆地로 방대한 忠州平野가 펼쳐져 있다. 이 충주를 둘러싼 원근의 산에 축조되어 있는 산성들은 이곳이 요새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일찍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한 鷄立嶺路와 竹嶺路가 열려 이 두 통로는 南北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었다. 鷄立嶺과 竹嶺은 忠州와 함께 삼각 지대를 이루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삼국 시대에 삼국은 각기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눈부신 분쟁을 벌였다.

이러한 충주 지역이 갖는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先學들도 여러 가지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朝鮮 초기의 학자 鄭麟趾는 忠州를 “남방의 咽喉을 질러 막은 곳에 자리잡았다. 지역이 넓고 戶口가 많으며 이 때문에 공문서가 구름처럼 쌓이고 賓客이 모여들어서 참으로 밝고 지혜로움이 남보다 뛰어난 인재가 아니면 그 번잡한 것을 다 스려 낼 수 없다. (中略) 이 고을의 세워진 것이 가장 오래 三韓의 다투는 땅이 되었다”¹⁶⁾라고 하였으며, 洪貴達은 “中原은 南北의 요충으로 서울로부터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 물에 뜨고 육지를 달리어 中原에 모여서 길이 갈라져서 두 고개 (鳥嶺과 竹嶺)를 넘어 목적지에 도달하고,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者도 또한 각각 두 고개를 경유하여 中原에 모여서 다시 물과 육지로 하여 서울에 도달”¹⁷⁾한다고 했다.

또한 實學者인 李重煥도 그의 《擇里志》에서 忠州를 “慶尙左道에서 죽령을 지나 충주와 통하고 慶尙右道에서는 조령을 지나 이곳과 통한다. 이 邑만이 京畿道와 嶺南을 왕래하는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유사시에는 반드시 戰場이 될 것이다”¹⁸⁾라고 하였다. 柳成龍은 남쪽의 왜병 침입을 크게 의식하고 서울의 방어에 있어서 충주가 차지하는 의미를 강조 하였으니, “忠州는 漢江의 上流에 위치하여 나라의 門戶가되어 있으니 충주를 지키지 못하면 강의 연변 수 백리의 땅이 적의 침해를 입는다. 충주를 보장하려면 조령을 넘는 길을 지키어 끊어야 할 것”¹⁹⁾이라고 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忠州와 鷄立嶺과 竹嶺등의 고갯길은 남북으로 통하는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충주 중원 지역은 역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남북을 잇는 중요한 통로로서의 위치에서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삼국

1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忠州牧 樓亭條 鄭麟趾記

1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忠州牧 樓亭條 洪貴達記

18) 李重煥, 《擇里志》 권9, 忠清道편

19) 《萬機要覽》軍政編 四, 關防 忠清道條 柳成龍小論

시대에는 이 고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攻防戰을 벌였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삼국 시대에 이 지역에서 펼쳐진 각국의 항쟁과 그 결과 비롯된 이 지역 문화의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1. 三國時代 忠州地域의 沿革

1) 百濟의 先占

지리적 위치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충주 지역²⁰⁾은 한반도의 중심이며 대체로 삼국의 접경지였다. 따라서 삼국 중 딱히 어느 국가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도 없으리만큼 삼국이 고루 차지하였다. 삼국 중 가장 먼저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은 백제였다. 그렇다면 백제 이전에 이 지역은 어느 勢力下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연대의 기록이 거의 없다. 다만 현존하는 《新增東國輿地勝覽》등 諸地理誌에 의하면 馬韓의 영역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²¹⁾ 그러나 《大東地誌》에 의하면 충주의 沿革條에서 “본래 任那國이었다. 뒤에 百濟가 소유하고 娘子谷城이라 칭하였다.”고 하였다.²²⁾ 任那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많지만 加耶를 의미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관한 《輿地勝覽》《忠清道邑誌》및 《忠州邑誌》(趙秉老, 1870)등 諸地理誌의 忠州牧 堤堰條에 보면 上加羅堤 下加羅堤 加羅谷堤 上加羅谷堤 下加羅谷堤 등 加羅의 지명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忠州-任那-加耶의 연장선에서 이 지역이 加耶圈城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百濟는 多婁王 36년(163)에 충주 지역을 차지하고 娘子谷城이라 하여²³⁾ 이 지역을 개척한 후 이곳에서 新羅에 사람을 보내어 회견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이를 거절했고 64년 백제는 신라의 변경인 蛙山城과 狗壤城(忠北의 報恩方面)을 공격했다. 이후 신라와 백제는 빈번한 변경에 대한 침범이 있었다.²⁴⁾ 즉 낭자곡성의 문제는 삼국 관계의 報恩方面)을 공격했다. 이후 신라와 백제는 빈번한 변경에 대한 침범이 있었다.²⁴⁾ 즉 낭자곡성의 문제는 삼국 관계사의 첫 사건으로 백제와 신라의 불화를 초래하였다. 여기에서 또하나 궁금증을 일으키는 문제는 신라가 백제와 만날 수 있었던 ‘交通路’이다. 신라는 156년과 158년에 忠州地域으로 통하는 鷄立嶺과 竹嶺의 길을 열어서 천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小白山脈을 뚫었다.²⁵⁾ 백제와 신라는 이웃의 小國들을 병합하면서 小白山脈이라는 천연의 장벽을 사이에

20) 여기에서 충주지역이란 충주를 중심으로하여 車嶺山脈 이남에서부터 小白山脈주변까지의 중원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21) 《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大東地誌》등 諸地理誌의 忠清道條에 보면 한결같이 “本古馬韓之域”이라고 하였다. 더욱 《大東地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本馬韓之 城西韓之未百濟新羅分而有之忠州 淸風 丹陽 百濟南遷後爲高句麗所取至陽元王七年入于新羅.”

22) 《大東地誌》 권6, 忠州沿革條

23) 娘子谷城을 淸州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三國史記》의 百濟地理誌에 “西原一云臂城一云子谷”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臂城과 子谷앞에 娘子가 탈락된 것으로 보아 《東國輿地勝覽》淸州牧條에는 “本百濟上黨縣 一云臂城, 一云娘谷, 新羅文武王五年 初置西原小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金正浩는 忠州를 백제시대의 娘子谷城 娘子城으로 밝히고 있으며, 《三國史記》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金命禹의 논고 《娘臂城과 娘子谷城考》(《史學誌》 21, 1987)가 주목된다.

24)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第一 脫解王條

八年(64) 八月 百濟遣兵攻蛙山城

十月 又攻狗壤城 王遣騎二千擊走之

十年(66) 百濟攻取蛙山城 留二百人居守 尋取之

十四年(70) 百濟來侵

十八年(74) 八月 百濟寇邊 遣兵拒之

十九年(75) 十月 百濟攻西鄙蛙山城 拔之

二十年(76) 九月 遣兵伐百濟 復取蛙山城

25) 《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 第二 阿達羅王 3년(156)에 “開鷄立嶺路”라 하였으며 同王 5년에 “開鳥嶺”이라 하였다.

두고 이 嶺路를 개척하여 남북간의 통로로, 군사 행동의 중심지로 활용하면서 치열한 攻防戰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대체로 이 시기에 백제는 小白山脈을 경계로 하여 忠州(娘子谷城)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신라는 산맥의 남쪽과 報恩(蛙山城)지역에 그 세력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쟁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²⁶⁾

2) 高句麗의 南進

백제는 점차 국력을 다져 정복 국가적 성격을 띠는 近肖古王(346-375)때에 이르러서는 369년에 고구려의 침략을 雉壤(황해도 白川)에서 격파하고 371년에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원왕을 전사케 하였다. 고구려는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국내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력을 길렀다. 특히 小獸林王때에는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등을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廣開土王(392-412)때에 이르러서는 정복 사업을 펴기 시작했다.

광개토왕릉비에 의하면 왕은 永樂 6년(396)에 수군을 이끌고 백제의 서해안에 상륙하여 파죽지세로 한강변의 關彌城 彌鄒城 古牟婁城 阿旦那城 등 58城과 700村을 攻取하였다. 그런데 이 중 古牟婁城과 阿旦那城은 1979년에 발견된 중원 고구려비에도 나타나 있어 이 지역은 남한강 유역으로 비정 되고 있다.²⁷⁾ 이로 보아 고구려의 세력은 중원 지역인 남한강 상류역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을 이은 長壽王(413-491)은 강력한 북위로 인해 서북 방면으로 진출이 어려워지자 북위와 화해를 맺어 서북 방면을 안정시킨 후 평양 천도를 통해 남진 정책을 더욱 적극화했다.²⁸⁾ 이에 대해 백제는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 南朝의 지원을 얻으려고 通交를 확대하면서 이웃 신라에게도 433년에 사신을 보내어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²⁹⁾ 이 무렵 신라도 고구려의 예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했던 만큼³⁰⁾ 백제의 동맹 제의를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蓋鹵王(455-475)은 장수왕 53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당하여 전사하고 그의 아들 文周가 왕위를 계승하여 도읍을 지금의 公州인 熊津으로 옮겨 亂後를 수습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백제의 南薦으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인 남진책을 도모하였으니 漢江 전 유역을 포함하여 그 以南으로 크게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于山灣에서 동쪽으로는 稜山, 忠淸北道の 鎭川 道安 槐山 延豐의 이북 지역을 모두 장악하고, 鳥嶺 竹嶺을 넘어 慶尙北道の 내륙 쪽으로는 奉化 順興 榮州 禮安 臨河 眞寶 靑松 安德 지역을, 東海岸으로는 蔚珍 平海 寧海 盈德 靑河에 이르는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³¹⁾ 당연히 충주 지역도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고

鷄立嶺

竹嶺과 함께 한강의 중심지였기에 國原城이라고 이름지어졌다.³²⁾

3) 新羅의 北進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뒤에 내실을 기했고, 신라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나갔다. 그리하여 聖王(523-554)은 일시적이거나 中原地域을 탈환하여 獨山城이라 이름하였다. 고구려의 陽原王은 4년(548) 정월에 東濊兵 6천명을 이끌고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백제는 신라에 請兵하여 공동 방어에 성공하였다. 나아가 551년(聖王29, 眞興王12) 나제 동맹군은 전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 세력을 몰리치기 위한 공동 공격을 단행하였다. 백제는 먼저 평양(서울 부근)을 攻破하여 한강 하류유역의 6郡을 장악하였고 신라는 居柒夫 仇道 등 장군에게 명하여 한강상류지역으로 나가 죽령 이북 高峴이내의 10郡의 땅을 차지했다.³³⁾ 신라는 이 작전 중에 단양 지역을 확보하고 회유하는 기념비를 세웠으니 이것이 赤城碑이다.

여기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충주 지역이 이 작전 이전에 이미 신라의 영역으로 확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三國史記>>권4의 新羅本紀 眞興王 本紀 12년 3月條에서, 진흥왕이 3월에 娘(이는 娘子谷城의 약칭으로 忠州의 河臨宮에 들어서 于勒의 음악을 듣고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한강상류점령후에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한강하류역을 석권하여 이 지역에 新州를 설치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보강 조치를 했다.³⁴⁾ 즉, 555년에 북한산을 직접巡幸한 수에 新州를 北漢山州로 개칭하였고, 國原에다 小京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王京다음가는 副道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중앙의 귀족 자제와 六部の 豪民들을 옮겨 살게 하여 國原小京을 정치 군사 문화적인 면에서 크게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지역이 중시된 것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관문이며 대륙으로 통하는 교두보였기 때문이었다.³⁵⁾

따라서 신라의 점령 이후에도 고구려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平原王의 사위인 溫達이 英陽王(590-618)초에 자청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였으나 阿旦那싸움에서 전사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³⁶⁾ 이 외에도 백제와 고구려의 한강 유역에 대한 탈환 의지는 삼국이 통일되기까지 계속되었으나 결국은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던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로 삼국간의 항쟁은 귀결되었다.

2. 忠州地域의 文化

충주는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古都로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로 이 지역 일대는 百濟, 高句麗, 新羅 등 3국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상이한 문화를 받게 됨으로서 그것을 수용 결합해야 하는 문화적 진통을 겪었고, 그 결과 이 지방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했다.

三國抗爭당시 韓半島 재패를 위해 水陸의 요지인 忠州는 중요한 군사 지역이었다. 이 지역을 가장 먼저 점유한 것은 백제였다. 1-2세기경 백제는 마한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내륙 깊숙이 남하했고 신라 역시 阿達羅王 3년과 5년

31) <<三國史記>> <<高麗史>>의 地理誌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이들 지역은 '본 고구려' 또는 '뒤에 고구려'에 예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2) <<三國史記>> 第35, 雜志 第4 地理2 中原京條, '本高句麗國原城'.

33) <<日本書紀>> 卷第19, 欽明記十二年(551) 是歲 百濟聖王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句麗 獲漢城之地 又進軍於平壤 凡六部之地遂復古也.

34) 金顯吉, <忠州地域의 歷史地理의 背景> <<國史館論叢>>16, 1990.

35) 경주에서 國原京에 이르는 통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慶州-善山 尙州 咸昌-開慶-鷄立嶺-國原小京이고 또 하나는 慶州-軍威 義城 安東 榮州-竹嶺-丹陽-淸風 寒水-國原小京이다.

36) <<三國史記>> 卷45, 列傳 第五, 溫達條.

26)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 第二 阿達羅王條

四年(157) 二月 始置甘勿馬山二縣

十四年 七月 百濟襲破國西二城

八月 領兵二萬伐之. 王又率騎八千. 自漢水臨之. 百濟大懼 還其所掠男女乞和

伐休王條

五年(188) 二月 百濟來攻母山城 命波珍滄仇道 出兵拒之

六年(189) 七月 仇道與百濟戰於狗壤

七年(190) 八月 百濟襲西境圓山嶺 又進圍佉谷城. 仇道率勁騎五百擊之.

27) 中原高句麗碑는 1979년 2월에 중주의 藥城同好會員들에 의해 中原郡 可金面 立石마을 입구에서 발견되고 檀國大學校 學術調查團에 의해 4월에 확인되어 學界에 알려지게 되었다. 碑에 대한 綜合的인 연구는 <<史學誌>>13(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의 <中原高句麗碑特輯號>에 발표되고 있다. 古牟婁城의 位置問題에 대하여 同書 學術座談會錄에서 토론중 邊太燮교수는 "한강의 상류인 춘천이나 원주"지역으로 비정한다고 말하고 있어 고구려세력이 충주지역과 내륙으로 진출하려는 거점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阿旦那城은 그동안 서울의 廣壯津에 있는 아차성으로 비정하여 왔으나 최근에 丹陽郡 永春面에 전하여 오는 溫達城과 관련하여 이곳으로 보려는 견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金顯吉의 <中原의 變遷考> 上(1984)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李道學의 <永樂 6년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孫寶基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8)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28) 盧重國, <高句麗 百濟 新羅사이의 力關係 變化에 대한 一考察> <<동방학지>>28, 1981.

29) <<三國史記>> 卷 25, 百濟本紀 第 3 毗有王 7년 (遣使入新羅請和)

<<三國史記>> 卷 3, 新羅本紀 第 3 訥祗王 17년 (百濟遣使請和從之)

30) 광개토왕릉비와 중원고구려비는 이러한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운웅의 <5세기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사총>>35, 고구려사학회, 1989.)에서 4-8p 참조

(156, 158) 鷄立嶺과 竹嶺에서 맞섰고 3-4세기에 걸쳐서는 槐山 報恩一帶에서 신라와 충돌하였다. 그러나 4C말 이후 廣開土王 전후하여 고구려는 적극적인 남진 정책으로 충주 중원 일대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고구려는 충주 지방을 지배할 수 있어 백제의 견제는 물론, 신라에 대한 정치적 우위권을 행사하였다.

永樂 10년 광개토왕은 신라의 요청³⁷⁾에 따라 5만 대군으로 신라를 구원해 주었고 이 사건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從屬적 위치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북방의 문화가 南下하게 되었다.

고구려를 통한 문화의 남하하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이루어졌다. 불교 전래에 있어서 먼저 주목받는 유물로 慶州 壺塚의 異形靑銅器이다. 이 무덤에서 유명한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 이란 銘文이 있는 靑銅壺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무덤의 이름을 '호우총'이라고 하는데 이 銘文壺에 비하면 異形容器는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乙卯年은 長壽王 3년(415)으로 왕은 先王 廣開土王의 위업을 기리어 기념품으로 이 壺를 만들었다고 한다.³⁸⁾ 그런데 이 乙酉年은 신라 實聖王 14년에 해당되는데 누가 이 壺를 가져 왔으며 누구의 무덤에 함께 매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밝혀지지 않았다.³⁹⁾ 단지 축조 년대가 대략 415년에서 멀지 않은 때라는 것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무덤 異形容器의 아가리 뚜껑에는 蓮花紋이 있어 우리의 주의를 끈다. 이에 대해 보고자는 "佛教美術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고구려에 들어와 있던 불교가 5세기 초엽 이후부터 그 영향을 후진국인 신라에까지 미쳤음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⁴⁰⁾ 壺가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異形容器는 그러한 관계가 정치만이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 불교가 公傳된 것은 소수림왕 2년(372)이며, 민간 차원의 전래는 이보다 조금 앞선다. 그렇다면 유물로 본 신라에의 불교 전래는 고구려보다 반세기 정도밖에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고구려가 신라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榮州 順興지방에서 발굴된 2基의 壁畫古墳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고분은 銘文과 壁畫가 남겨져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高句麗 墓制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古墳의 銘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於宿墓：乙卯年於宿矢述于

② 己未銘：己未中墓像人名〇〇

於宿墓의 경우 인명 다음에 官等⁴¹⁾이 있으나 己未銘의 고분은 구체적인 인명이 보이지 않고 〇〇로만 되어 있다. 여기에 官等名도 보이지 않아 이 묘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兩古墳의 주인공이 新羅人인지 高句麗人인지 新羅에 귀화한 高句麗人인지⁴²⁾ 단언할 수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墓制나 壁畫를 볼 때 고구려적 요소가 다분히 강하다는 점이고 따라서 그 지역이 고구려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於宿墓에는 이道 천장에 滿開한 연꽃이 한 송이 그려져 있다. 己未銘 壁畫에는 연밥과 사실적인 연꽃 및 西向한 새가 그려져 있어 비장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於宿墓는 차치하고라도 己未銘 고분의 추정 연대(539)인 법흥왕 26년은 불교 공인(527)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이다. 이즈음 순흥지방의 불교문화 수준이 서울인 慶州에 못지 않았고 혹은 더 나을 수도 있었음은 이 지역의 역사 지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7) 《廣開土大王碑文》王巡下平壤 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以奴客爲民 歸王請命

38) 國立博物館, 《壺塚과 銀鈴塚》p35, 1946, 乙酉文化社.

39) 위 책의 보고자는 實聖王 11년(412)에 볼모로 갔던 왕자 卜好가 訥祗王 2년(41)에 귀국할때 가지고 왔을 것이며 壺塚도 卜好의 무덤 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金貞信은 《高句麗와 新羅의 영역문제》(《한국사연구》) 61 62, 1988)에서 壺塚를 인질에게 선물에게 주었다기 보다는 친고구려세력으로 왕위에 올랐던 實聖王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았고 2년 뒤 實聖王이 죽임을 당하자 그와 함께 壺塚도 매장되었다고 보고 있다.

40) 國立博物館, 《壺塚과 銀鈴塚》1946, 乙酉文化社.

41) 述于는 僚位가 아니고 外位로 이묘의 주인공은 신라의 外位를 갖고 있던 사람이다. 이 外位の 성립연대에 대해서는 고고학 자료의 속출에 따라 上限線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로 일단은 《三國史記》法興王 7년(520)에 頒布한 율령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42) 金元龍, 《順興 壁畫古墳의 性格》(《順興邑內壁畫古墳》) 1986.

順興지방의 초기 불교와 관련하여 壁畫古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紹修書院을 잠시 살펴보자. 이 서원은 8세기 시대 이래의 古刹 宿水寺였다. 1953년 이곳에서 불상 25軀가 발굴되었다.⁴³⁾ 이 가운데 5개 정도는 삼국 시대 작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식의 불상이 이 지방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축적된 造像能力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불교문화가 南下하여 정치 문화의 중심인 國都에서 消化定立된 후 다시 각 지방에 전파되어, 불교가 일찍부터 전래된 순흥지방 같은 곳에는 逆流現象도 보인다는 것이다.⁴⁴⁾ 신라불교의 전래를 法興王帶로 잡으면⁴⁵⁾ 초기 불교사에 이 逆流現象만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의 전파 과정이 없어지고 만다. 그런데 이 전파 과정이라는 것은 一過의 통로가 아니라 불교문화 거점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변성하고 있었음을 순흥지방의 불교 유적은 말해 주고 있다.

충주 중원 지방은 5C중엽 이후 점차 新羅領域으로 복속되어 갔는데 이러한 정치지배세력의 변화는 중원군 가곡동 봉황리에서 발견된 麻崖佛 菩薩郡과 中央塔寺址에서 출토된 六葉蓮花紋 기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봉황리의 麻崖佛 菩薩郡을 살펴보자. 이들 제상의 기법을 살펴보면 삼국기 조상에서 보이는 양식으로서 고구려 작이거나 북방계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불상으로 추정된다.⁴⁶⁾ 각 菩薩像의 가름한 相好는 고구려 불상에서 보이는 인상이며 上廣下峽의 臺座도 고구려 금동불의 대좌 형태와 유사함을 느끼게 한다. 특히 대좌 아래에 조출된 사자상은 북위 계통의 불상에서 흔히 보이는 양식이다.

또다른 유물로 中央塔寺址에서 출토된 기와는 대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유형은 자방과 연판의 사이에 굵고 짙은 흙이 둘러져 자방과 연판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는 기와다. 연판에서 보이는 강한 볼륨과 날카로운 인상, 힘찬 미술의 조형을 볼 때⁴⁷⁾ 고구려의 강인한 미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흡수한 와당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유형의 것은, 연판은 평평하면서 연단이 넓고 아래로 처지는 등 백제계 와당과 유사함을 보이며 백제 와당의 양식 위에 신라색채가 가미되는 형태라고 추정된다. 세번째 형태의 와당은 타원형으로 연판 중앙부가 약간 들어가고 가장자리는 약간 들게 되어 아무런 장식이 없어 단조로움을 느끼게 하나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이러한 형태의 와당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양식을 취하면서도 구획선과 연과 등을 생략한 채 온전한 백제적 양식이 복합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⁸⁾ 이렇게 세 유형의 와당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삼국기 충주 지방에 펼쳐졌던 다양한 문화의 혼합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C에 들어 신라는 고구려의 약세를 틈타 꾸준한 북진정책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진흥왕 대에 마침내 충주 지역을 확보하여 신라 북진의 추진 기지로 삼았다. 충주에 小京을 둔 眞興王은 이곳에 여러 지역(6부)의 貴族과 豪民을 이주시켜 문화도시로 육성시켰다. 그 첫번째 경우가 于勒의 가야 음악을 이곳에 보존케 한 것이다. 우륵을 충주로 옮긴 시기는 불확실하나 가야의 지배층을 본고장에서 멀리 이탈시킨 徙民策의 일환으로 진흥왕 11년(550) 전후라 생각된다.⁴⁹⁾

문제는 진흥왕이 우륵의 가야금을 들었다는 河臨宮⁵⁰⁾의 존재이다. 신라가 충주를 점령한 시기가 550년 전후라고 할 때 왕이 551년 3월에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河臨宮은 신라가 축조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광개토대왕이 永樂 10(400)년에 가야 지방을 정복한 후 그 일대를 지배하고 철수할 때 가야 음악가들을 납치하여 복상하는 도중 別居인 충주에 머물게 하고 하림궁을 지어 가야 문화를 보존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國原京의 별궁을 河臨宮으로 가명하여⁵¹⁾ 가야 문화에 대한 고구려의 관심을 나타낸 조치일 수도 있다.⁵²⁾

43) 金數元, 《宿水寺址 出土 佛像에 對하여》(《震檀學報》) 19, 1958.

44) 秦弘燮, 《신라 불교전래의 제양상... 보고 적을 것. 주》30, 그러한 예로서 文武王 16년(676) 왕명에 의해 義相이 榮州땅에 浮石寺를 건한 것을 들고 있다.

45) 이 주장에 따르면 당시 왕실의 불교수용 기사만이 믿을 만한 불교전래 기사가 된다.

46) 鄭永鎮, 《중원 탐평리 마애반가상과 불보살군》(《고고미술》) 141, 1980.

47) 金和英, 《탐평리출토 연화문와당》(《고고미술》) 141,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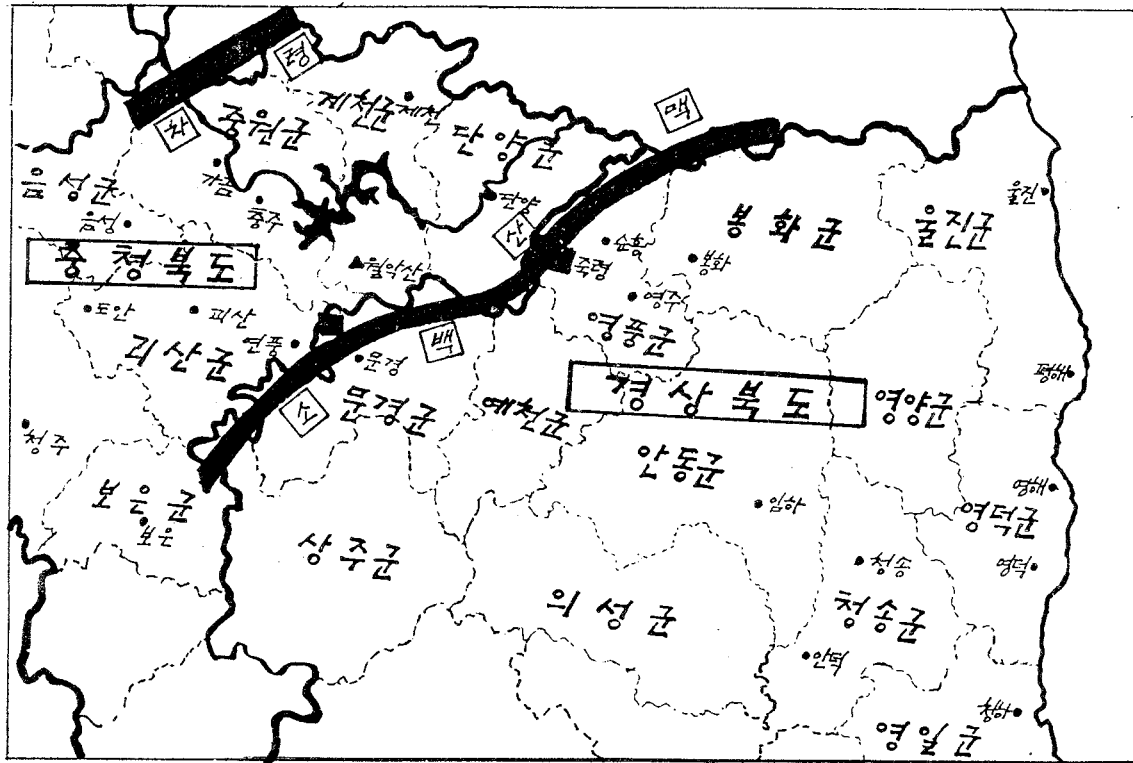
48) 柳昌鍾, 《중원 탐평리 출토 유염연화문 수막새》(《藥城文化》) 2, 1981.

49) 朴炳燾, 《新羅小京考》(《역사학보》) 35 36, 1967.

50)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12年 3月 條.

51) 하림궁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특별 별궁임은 《三國史記》卷32, 樂에 '伽耶琴有二調 一河臨調 二鐵竹調'에 가야금과 관계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2) 申濤植,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충주》(《藥城文化》) 13, 1992.



〈도 6〉 중앙탑사지출토 제1형태 와당



〈도 7〉 중앙탑사지출토 제2형태 와당



〈도 8〉 중앙탑사지출토 제3형태 와당

맷음말

충주·중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이 지역이 한반도의 중심부이며 특히 이 지역 남쪽에 있는 소백 산맥은 경상도 이남과 충청도 이북을 나누는 천연의 장벽이었다는 인식 위에서 만이 이해될 수 있다. 역사 시대에 접어들어 신라는 소백 산맥에 鷄立嶺과 竹嶺을 개척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이곳을 통해 북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또한 북진정책을 취했는데 그 중심부가 충주 지역이다.

삼국이 古代國家로 발전하면서 영역적 팽창 욕구는 자연히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하는 과정으로 나타났으며 그 소국들이 거의 다 병합된 후에는 삼국이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3국을 접하고 있는 충주 중원 일대는 3국의 침예한 대결의 장이 되었다. 먼저 충주를 점령한 백제는 충주를 娘子谷城이라 칭했고 鷄立嶺과 竹嶺을 개척한 신라와 잦은 분쟁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고구려가 남진책을 펴으로써 娘子谷城은 그 전진 기지로 부상하였다. 고구려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는 이 지역을 國原城으로 개명하고 중원고구려비를 세워 가며 지키려 했던 점, 신라에 빼앗긴 후에도 영양왕대 온달을 파견하는 등 끊임없이 재탈환하려고 시도했던 점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5C 후반부터 고구려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 왔던 신라는 고구려가 북방 세력의 견제와 백제와의 잦은 전쟁으로 신라 경영을 소홀했던 틈을 타 이 지역을 차지했다. 백제와 공동작전을 수행하여 한강 중 상류 유역을 차지하고, 곧이어 백제를 배반하고 한강 하류 지역까지 점령하여 마침내 한강 상 하류 지역을 포함하여 중원 일대를 손에 넣은 것이다.

이렇듯 지배 국가의 잦은 교체와 교통의 요지로서 문화 수용의 길목이었다는 특수한 역사와 환경은 이 지역의 문화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 수용의 길목이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은 고구려와의 빈번한 접촉 속에서 당시 문화 후진국이었던 신라에 많은 영향을 주며 신라의 국도, 경주보다 이른 문화적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지배 국가의 잦은 교체는 앞서 와당이나 石佛 菩薩에서 살펴봤듯이 삼국의 문화가 혼합된 특유의 복합적인 중원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 참고 문헌 ◇

— 자료 —

- 강만길 外 《한국사》 3, 한길사, 1994.
幸鍾遠 《신라초기 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강우방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 논문 —

- 金貞培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 - 순흥지역의 고고학 자료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61 62, 한국사연구회, 1988.
정운용 〈5세기 고구려세력권의 남한〉 《사총》 35, 고려대사학회, 1989.
盧重國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力關係 변화에 대한 一考察〉 《동방학지》 28, 1981.
金顯吉 〈충주지역의 역사지리적 배경〉 《역사관논총》 16, 1990.
申澄植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충주 -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예성문화》 13, 1992.
장준식 〈충주지역에서의 삼국시대 불교미술〉 《예성문화》 15, 1994.

〈士林의 鄉村支配〉 - 書院과 鄉約補給을 中心으로 -

2학년 윤득조, 조준오

머리말

조선전기 이래로 재지사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기반인 향촌사회의 지배에 많은 과실을 갖고 향촌을 성리학 적 윤리로써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재지사족들의 향촌지배는 몇가지 난점을 맞게 된다. 곧 여말이래로 향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토호적인 향리세력을 규제하면서 향촌사회의 독자적 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과 전국이래로 지방세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대변하는 각 고을 수령 들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불법적으로 농민을 지배하여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취하던 훈척세력들을 배제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이러한 제세력들을 규제와 배제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은 향촌사회를 유교적 윤리체제로 변환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발흥의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글은 조선전국이래로 향촌사회의 동향과 대결구도를 살펴보고 이 를 타개하는 재지사족 곧 사람들의 향촌지배체제에 대해 개술하고 그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향촌사회의 동향

1) 在地士族(士林)의 기원과 초기의 활동

在地士族, 즉 士林의 起源은 高麗 末로 거슬러 간다. 고려 말 왜구, 홍건적 등의 잦은 外侵과 내부에서의 民亂 등의 발생은 기존의 鄉吏 등 地方勢力에게 軍功·添設⁵³⁾·散職⁵⁴⁾ 등을 통한 品官으로의 신분 상승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53) 高麗 末 戰爭에서 軍功을 세운 자들을 褒賞하기 위해 設置한 官職 制度. 당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전쟁터에서의 軍功을 세운 자 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 재정 형편상 군공자들에게 상으로 줄 財貨가 없었고 또 官職의 數는 制限되었기 때문에 賞爵을 실시 할 수도 없었다. 이에 1354년 (恭愍王 3年)부터 國家가 軍功을 褒賞하기 위한 臨時手段으로 實職은 아니지만 官職을 添設하여 軍功者 들에게 除授하였는데, 이를 ‘添設職’이라 한다. 그 除授對象은 工商賤隸, 농민을 비롯해 士人·鄉吏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했는데, 주요 제수대상은 무예가 뛰어난 사인과 향리층이었다.

54) 勤務處는 없고 이름만 있는 관직. 고려의 檢校職, 同正職, 添設職, 散官職, 影職, 老人職 등이 있다. 산직의 발달 원인은 사대부층의 관직획득욕에 비해 實職은 부족하고, 進級者, 軍功者, 역역·胥吏服務者, 기타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는 많은 관직이 필요하지만 관 직은 제한되어 있으며 평민·노비 출신에게 실직을 줄 수 없는 사정, 그리고 국가재정부족에 따른 實官實職用으로 제수됐다. 산직의 남 발은 신분제의 문란과 免役계층을 증가시키고 관료제도를 腐敗시키는 여러가지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조선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 산직과 산계를 二元化하여 平民이나 역역복무자에게는 영직·잡직·토관계를 수여하고 노인직이나 영직 보유자의 特權을 制約했다. 그러나 관료군이 증가하여 人事積滯가 심해지자 1443년 부터 양반관료에게도 관직만 부여하는 산관직을 폭넓게 운영했다. 壬辰倭亂 이 후 국가 재정 타개를 위해 돈을 받고 산관직을 파는 납속책이 시행되면서 산직이 濫發되어 身分制 崩壞와 三政紊亂의 原因이 되었다.

《브리टे니커》

고려가 망하고 신 왕조가 개창한 후에도 그들의 品官으로서의 지위를 국가에서 계속 인정하였다. 이들은 대개 中小地主層이었으므로 그들의 세력 기반이 있는 鄉村에 근거하였다.

이들은 고려가 망한 이후 佛教라는 통합 이데올로기를 잃고 각각의 향촌별로 天地神에게 祭祀하며 분열화의 길을 걷고 있던 향촌사회를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포용하고 향촌사회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기에 향촌자치 기구인 유 향소(留鄉所)를 조직하여 鄉村自治를 指向하였다. 그러나 이는 朝鮮王朝國家의 중앙집권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었 다. 조선왕조국가에서는 官優位의 鄉村支配政策을 통하여 中央集權化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향소는 太宗 6년에 혁파된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도 향촌내에서의 그들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명색(申明色)을 도입하여 제도권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도 오래가지 않아 革罷되었다. 이후 국가에서는 ‘告訴禁止法’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수령에게 부여하여 향촌사회를 단단히 묶어매었다. 간단히 고소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品官 吏民이 그 守令 및 監司를 고소하는 일이 있으면 사실이라도 宗社 安危에 관계없거나 非法殺人의 일이 아 니면 在上者의 罪는 논하지 않으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在下者는 加凡之坐로서 논죄한다.”⁵⁵⁾ 이렇듯 守令이 향촌사 회 내에서 아무런 견제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왕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한 폐 단으로 향촌사회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수령들의 苛斂誅求가 극에 달해도 백성들은 반항이나 반발을 할수가 없었으 로, 소극적인 저항의 형태로 지배층에 대한 조롱이나 개인적인 폭력 행사를 하였다.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朝官을 파 견하였지만 그것도 臨時方便에 불과했다. 이렇듯 鄉村社會의 動搖가 가중되자 世宗 6년 10월 다시 留鄉所가 다시 설치 되나 守令 및 在上者에 대한 고소금지법이 엄존하고 아울러 ‘留鄉所作弊禁防節目’ 등 유향소의 기능에 제약을 가하는 條項이 추가됨에 따라 유향소는 원래의 향촌자치기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관에 대한 저항을 監察하는 기구로서 轉落 하고 말았다. 이후 世宗 17년에는 경재소(京在所)제도를 정비하여 現職官吏로 하여금 京在所를 통해 유향소까지 장악 케하여 재지사족들의 입지는 더욱 축소되었다.

초기의 조선왕조국가의 官中心의 강력한 中央執權化 政策으로 재지사족들은 그들의 입지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었다. 이에 수령과 재지사족이 결탁하게 되고 이들의 부정은 앞서의 것보다 그 정도가 심해 일반 백성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世祖가 즉위한 직후 잦은 朝官 派遣, 고소금지법과 유향소 철폐를 통해 이러한 폐해를 수습하려 했으 나 이는 本源의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조선 초기의 국가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을 통해 향촌사회 내에서 어 느 정도의 統制力을 행사할 수는 있었으나 鄉村 內的인 統合-통합 이데올로기를 이용한-은 이룰 수 없었다. 이러한 향 촌사회의 동요 속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재지사족들은 그들의 思想的 武器인 性理學을 이용한 統合을 시도하려 한 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향촌지배체제 강화의 배경

앞에서 밝혔듯이 士林들은 性理學에 기반하여 社會制등을 실시하나 失敗하게 되고 향촌지배체제의 궁극으로 鄉約과 書院을 중심으로한 지배체제를 다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지배체제로의 귀결의 배경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士林이 성장하던 시기, 주로 15-16세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주목할 것은 農業技術의 發達이다. 중소지주 출신의 사 람에게 있어서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출의 증대는 성장에 긍정, 부정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의 농업은 人糞 이나 재를 이용한 施肥法의 발달로 休耕法의 제약은 극복하였으나 수리시설의 미비로 이앙법대신 乾沓直播法이 시행되 어 벼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경우 말라 죽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백성들의 유망이 뒤따랐다. 따라서 조선왕조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移秧法과 같은 수전농업의 기반이 되는 水利開發政 策을 重農政策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초기의 수리개발정책은 三國時期부터 이어 내려오던 堤堰개발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그러나 제언 개발은 많은 제약을 갖고 있었다. 먼저 제언을 개발하기 위해선 일정한 입지조건이 필요하고 지 속적인 개발을 위해선 기술상의 변화가 있어야만 했다. 일정한 입지조건이라는 제약으로 제언의 수는 일정수 이상으로

55) 《世宗實錄》卷9, 世宗 2年 9月 丁丑條

는 증가시킬 수 없으며 제언 개발시 水利安全度가 높은 짚을 침수시켜야 하므로 농민들 또한 제언을 개발하는 데에 소극적이었으며 일부 농민들은 기존의 제언에 고의로 구멍을 내어 저수된 물을 빼내고(決潰) 그 여유 공간에서 경작을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개축이나 수축 또한 힘들었으며 灌溉능력도 전체 수전의 1/6밖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기존의 방법에 한계를 느낀 지배층에서는 종래의 溪流를 막아 그 물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河川水를 灌溉水로 이용하려는 方案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太宗과 世宗대에 水車가 도입 되었으나 지질상의 문제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文宗이 즉위하면서 새로이 川防(淤)⁵⁶⁾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하였다. 천방은 이미 일부에서 소규모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水車의 경우와 같이 개발에 따른 부담이 적었다. 천방은 뒤이은 연구 개발에 따라 제언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世祖와 成宗에 이르기까지 계속 권장되었다. 원래 천방의 개발은 국가의 屯田⁵⁷⁾ 확보정책으로 시행되었으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천방의 장점이 알려짐에 따라 향촌 사회 자체에서도 천방 수축이 행해짐에 따라 成宗 19년에 堤堰, 川防의 주관권이 堤堰司에서 觀察使에게로 이관되어 천방수축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워 졌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은 築防의 주도 세력이 바로 士林이라는 것이다. 천방은 제언에 비해 그다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향촌 내부에서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사람이 中小地主層으로서 향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水田農業으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야기된 산물을 배경으로 사람은 15세기 이후 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勳·戚係가 중심이 되어 沿岸地域에서는 海澤개발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 海澤개발 사업은 천방 보급과는 集約農業發達の 產物이라는 共通點을 갖고 있으나 그 시행이나 이로 인해 파생된 결과는 위의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海澤地 개발(堰田)은 원래 고려말 전란기에 軍資穀을 마련하기 위해 海島나 연안을 중심으로 독을 쌓아 바닷물을 빼내어 이 땅에 곡물을 기르는 것에서 유래되어 成宗초에 이르기까지는 그 기술의 미비로 벼농사보다는 수수 등의 雜穀類가 주로 경작되었다. 이러한 언전의 개발은 대규모의 인력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경지 확보의 일환으로서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본격적인 개발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언전 개발 실패의 확률이 줄어들고 중국에서의 종자 도입으로 그 소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었다. 먼저 戚臣과 駙馬, 公主家를 중심으로한 중앙의 관료세력들이 收租權 分給制度가 점점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私的經濟基盤의 확대를 위해 해택지, 즉 언전의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앞서서 소략하게 지적한대로 成宗 19년의 堤堰·築防 관할의 권한이 제언사에서 觀察使로 이관됨에 따라 언전의 개발은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대체로 京畿·忠青·全羅의 삼도에 국한되었던 언전이 16세기 중반에 이르면 黃海道, 平安道 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언전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에 급기야 후대에 이르러서는 所有權을 둘러싼 訟事나 탈점이 빈번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촉발의 이면에는 戚臣과 王族계열이 있었다. 그들은 15세기부터 장악해 온 유향소, 경제소와 자신들의 지위를 바탕으로 수령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일반 백성을 동원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수조권 분급제의 유제 등을 통하여 기존 백성들의 소규모 개간지를 탈점하였다. 勳戚係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大農場을 건설하였으며 이들 대농장에서 나온 산물은 이시기 발달하던 상품 유통과 연관되어 커다란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자본형성은 연산군대의 奢侈풍조로 나타났다. 이렇듯 훈척계의 堰田 開發로 인해 백성들은 고된 勞役과 土地被奪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유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농업의 발달을 기반으로 곧이어 商品流通의 발달을 낳았다. 15세기 成宗 4년(1474년), 최초로 地方場市가

56)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 시설로, 하천에 가로로 적절한 간격마다 말목을 박고 긴 통나무들을 가로질러 여기에 돌을 놓고 흙으로 덮어 물을 흐르게 하면서 수심을 높이는 것이다. 沝의 구조물에는 수로에 물을 끌어들이는 取水門, 수문 앞에 토사의 퇴적을 막고 홍수량의 일부를 방류하기 위한 土沙吐, 홍수나 격류 등으로 보 양안의 파여짐을 방지하는 護岸工으로 이루어진다.

57) 고려·조선 시대의 토지제도. 軍卒·胥吏·평민·관노비들에게 미간지를 개척하여 경작하게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지방관청의 경비 및 군량과 기타 국가 경비에 쓰도록 한 토지제도. 屯田의 시초는 百濟가 羅唐聯合軍에게 멸망당했을 때 唐의 장군 劉仁軌가 南原에 둔전을 설치하여 唐軍의 軍糧 調達地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으며, 1024년(현종 15년) 嘉州의 남쪽에 둔전을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었다. 고려 肅宗 이후는 州·府·郡 등 지방관청의 경비에 쓰도록 하는 官屯田의 州鎮 등에 쓰도록 하는 軍屯田이 설치되었다. 고려 말기에는 私田兼併과 大土地所有의 폐단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둔전은 조선시대에 들어와太祖때 폐지되었다가 1409년(太宗 9)에 다시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둔전은 각 관청에 실시되었고 종류도 40여가지에 달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토지제도의 문란과 함께 둔전의 확장 또한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 《동서문화대백과사전》

등장하였다. 그리고 약 1520년 경에 이르러서는 장시가 下三道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업 유통으로 말미암아 농민 계층의 분화와 토지에서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상품 유통의 발달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훈척계는 이들 상인층과 野合하여 그들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훈척계는 이 재력으로 사치풍조를 일으켜 새로운 상업적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수요는 백성 전반에 퍼져 나갔다. 상인층은 국내 무역 외에도 이전까지 公貿易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 교역에도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으로 그들은 富商大賈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中國과의 교류시 필요한 銀의 채굴을 위해 광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농업 또한 그 당시의 중요한 支拂手段의 生産處이었기 때문에 농업의 발달은 必然的이었다. 그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바탕으로 그들은 軍役이나 貢物의 防納에 참여하였다. 또 훈척계와의 결탁으로 방납권을 따내거나 앞의 기술대로 훈척계의 대농장의 산물을 처분한다든지 하여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부를 키워 나갔다. 이러한 동안 농민들은 代立價의 상승이나 방납료의 과다로 농민의 이탈이 심해지게 된다.

척신의 토지 탈점과 대농장의 발달, 그리고 상업의 발달로 인한 농민층의 계층 분화나 유망 현상은 사람들의 존립 근거인 향촌 사회의 안정에 큰 저해 요소가 된다. 농민의 유망으로 인한 鄉村社會의 動搖와 중앙의 관료들에 의한 農場的 擴大와 官權을 이용한 土地 奪占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 여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사람의 향촌지배

1) 향약

조선의 건국과 함께 왕조의 주된 목표는 왕권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체제의 수립이었다. 때문에 재지사족들의 향촌자치권의 확보 노력은 빈번히 좌절을 맞는다. 留鄉所를 통한 在地士族들의 향촌지배의 움직임은 '首領告訴禁止法'과 같은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적 정책에 의해 제약되었다. 오히려 官人 신분의 최대보장은 官의 수탈을 용이하게 했으며 결국 유향소의 品官들도 향촌사회에서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관에 결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중앙의 훈척세력들까지도 지방관과의 결탁, 京在所경장을 통한 유향소의 장악으로 그들의 사적경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일변도적인 사회정책이 비록 외형적인 집권체제의 확립은 이루었지만 내면적으로 근본적인 안정을 이루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점은 집권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수령고소금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유향소의 치폐가 거듭됨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모순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성리학적 입장에서 사회질서를 재확립하려는 재지사족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5세기 중엽(1488) 義倉의 부실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향촌의 '公廉한 者'를 관리자로 하여 低利로 私倉을 운영하는 사창제 보급 운동과 <<周禮>>에 제시된 鄉射禮·鄉飲酒禮⁵⁸⁾의 시행으로 향촌사회의 유교적 도덕 윤리 함양을 고취하려는 향사례·향음주례 보급운동, 이의 실행을 주관하기 위한다는 명목의 유향소 복립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운동들은 재지사족들의 향촌사회질서의 확립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사회의 자치적 기능을 유교적 윤리의 보급을 통해 이룩하려 했던 것이다. 곧 사창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향촌의 자치적 기능을 획득하려 했던 것이며 향사례·향음주례 보급운동은 관의 일방적 향촌제어에 대한 재지사족들의 견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운동들은 성리학적 분위기가 널리 퍼진 경상도지방을 제외하고는 그 성취도가 미미했으며 더구나 戊午士禍를 비롯한 勳戚勢力과의 대립으로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들의 완전한 지배체제의 확립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58) 향사례는 孝悌忠臣·好禮不亂者를, 鄉飲酒禮는 年高·有德·才行者를 앞세워 不孝·不悌·不睦·不姻·不任恤한 자 등 향촌질서를 파괴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는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있는 인사를 앞세워 교화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유교적 방식의 향촌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성장한 재지사족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간다. 中宗 10년 조광조 등 사람세력의 등장은 곧이어 呂氏鄉約 보급운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다.

여씨향약은 宋의 藍田縣에 살았던 呂氏 4형제가 향리에 사는 士林들을 교화, 勸善相助 하도록 하기위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朱子가 이 여씨향약을 토대로 '朱子增損呂氏鄉約'으로 보완했고 <<性理大典>>에 수록되어 전래되었다. 대체적인 내용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4대강령과 都約正 1인, 副約正 2인, 순번제인 直月을 두는 조직체계, 立約者·德業可勸者·過失可規者 등 3부의 籍을 直月이 관리해 월말에 約正에 보고한다는 운영원리 등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향약은 대개 鄉廳이 주관하여 座首가 향약정이 되며 향약이 실시되는 지역사회의 전원이 班踐을 막론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또한 정해진 규약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으면 罰酒라는 경벌에서 笞 30이하를 約中에서 施罰할 수 있었고 심하면 농민에게 있어서 생활기반의 박탈을 의미하는 黜鄉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향약은 권선징악·상호부조를 위한 향촌의 규약이며 자치조직이라고 하나 실로 향촌사회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씨향약 보급운동은 中宗 12년 金仁範의 상소로부터 보급논의가 시작되어 金安國이 향약의 諺解本을 보급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金湜이 周制를 본받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시키면서 勸舊세력들과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훈구파들은 신진사람들이 향약보급운동을 통한 새로운 향촌질서의 조직으로 그들의 정치세력기반의 확대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고 향약의 京城보급운동을 계기로 참예하게 대립하였던 것이다. 거기에는 僞勸削除事件으로 더욱 자극받은 훈구파의 공세로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사람들의 여씨향약보급운동을 바탕으로 한 향촌사회의 재편노력은 또다시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中宗대의 향약보급운동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사람들이 정권을 거의 획득하게 되는 明宗·선조 대에 들어와 향약보급운동은 재논의 되기 시작한다. 비록 울곡의 '鄉約實施太早論', '先養民後教化論'을 받아들여 국가적인 향약실시는 보류되지만 兩難을 치른후 재지사족들에 의해 이전의 국가적인 향약보급운동에서 벗어나 향약의 개별화와 지역화가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관료출신의 사족이 연고지로 낙향하여 전래의 鄉憲, 鄉規에 향약을 절충한 鄉規約이 나타나거나⁵⁹⁾ 명망있는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연촌락을 이어 洞約이나 洞約契를 조직하여⁶⁰⁾ 향촌사회를 지속적으로 교화하려는 유교적 사회화의 여건성숙을 위한 노력이 조선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이러한 향약 보급운동은 修己治人의 <<小學>> 실천운동의 성격을 띤 것으로 사람들이 사회의 유교적 교화를 꾀한 정치적 활동이었으나 그 근본적인 사회적 배경은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유통의 생성·발달로 야기되어 가는 사회적인 동요, 즉 농민층 분해를 비롯한 신분의 분화현상을 유교적인 방식으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약용의 <<牧民心書>>에 '首領으로서 志高才疏한 자는 반드시 鄉約을 행하는데 향약의害는 도적보다 더한 것이다. 土豪나 鄉族이 執綱이 되어 約長을 자칭하고 그 아래 公員, 直月 등이 있어 향권을 전담하고 不孝나 不睦이나 失行이나 하면서 惡簿에 올린다고 小民을 威喝하여 討酒徵粟 등 討索이 끝이 없고 그 약점을 잡아서는 뇌물을 받는 등 큰 폐단이 있다' (卷7 教民)라고 언급하듯이 이러한 향약을 통한 재지사족들의 향촌지배는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효과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다.

2) 서원

己卯土禍로 중앙정계의 사람들은 실각하고 전국적인 향약보급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재지 중소지주인 사

59) 16세기에 朝官출신 사대부로서 향규약을 출현시키거나 실시하려고 애쓴 인물로는 李賢輔·李湜·權潑·宋世琳·李珥·柳成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항의 禮安鄉立約條, 이이의 坡州鄉約序·西原鄉約·海州鄉約·海州一鄉約束·私倉契約束, 유성룡의 十條鄉規 등은 특히 유명하다.

60) 16세기 말 17세기초에 걸쳐 崔興遠의 郞仁洞洞約과 廣州에서 安鼎福이 실시했던 二里洞約이 유명하다. 그 외에 琴蘭秀(奉化), 金圻(安東), 吳天民(任實), 鄭四震(慈仁), 黃中允(蔚山), 朴細(陝川), 朴善長(寧海), 徐思遠(達成) 등이 동약이나 동약계를 입조하여 실시하려 했다.

람들은 향촌사회에서 점진적인 세력기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그 새로운 활로로서 書院의 건립활동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書院은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시작된 지방사학인 書齋·精舍의 교육기관적인 성격과 선현들을 봉사하는 祠廟적 기능을 아우르는 독특한 사람들의 교육기관이다. 서원의 성립배경은 여러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사람과의 정계진출로 빚어진 사회로 인한 유림들의 정치기피와 학문연구경향 및 선현에 대한 숭배열의 고조등으로 인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⁶¹⁾ 과거와 학문의 분화과정에서 학문의 道學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사람파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⁶²⁾ 또한 사람과의 학문적 역량의 축적에 의한 수적확대에서 서원이 성립할 수 있는 端草가 마련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사람의 향촌질서 재확립을 위한 일련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성립되었다는 경향도 있다.⁶³⁾

최초의 서원은 中宗 38년에 豐基郡守 周世鵬이 세우고 明宗 5년 최초로 紹修書院이라는 賜額을 받은 白雲洞書院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사람들의 서원건립은 明宗 20여년간의 戚臣政治 아래서도 18개가 세워지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宣祖대에 150여개소가 설립되었고 肅宗대에는 600여개소로 급증하게 된다. 이런 서원건립의 급증은 官學의 쇠퇴와 사람의 사회적·학문적 역량의 성숙, 사액을 내리고 토지와 노비들을 지급하는 등 국가적인 비호아래서 이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엄청난 濫設이다. 이점은 상당히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16세기 이래로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의 부세운영과 향임층에 대한 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鄉規, 鄉約등의 향촌규약을 통해 鄉吏와 일반민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수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鄉案에 입록된 재지사족들의 鄉案秩序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족들의 향촌지배의 정도를 가능하게 해준다. 즉 一鄉의 사족들이 鄉會를 구성하고 향회구성원의 이름을 올린 鄉案과, 향회의 자치규약으로 사족들 뿐만아니라 향외인(일반민, 吏胥)까지도 규제할 수 있었던 鄉規의 존재는 治鄉之人으로서 재지사족이 향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족의 향촌지배는 양란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게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곧 양란 이후 기존의 사회적특권과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된 지배세력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분열을 전개하여 특정가문이나 학맥·당파를 기반으로 하는 분파적 결집상을 나타내게 되고, 이와 더불어 향촌사회의 재편에 있어서도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지사족들간의 대립이 극심해졌다. 여기에 난 후 새롭게 부상한 신흥세력들, 곧 軍功이나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 納粟受職 등을 기화로 신분을 상승시킨 이족층과 일반민들이 新鄕으로서 대두함에 따라 鄉戰(鄉爭)이 발생하여 이제까지의 재지사족들의 권위는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재확립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재지사족들은 그들만의 이념적 무기였던 성리학의 윤리강령을 앞세운 명분론을 더욱 강화시켜나가는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때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학연과 祀賢을 바탕으로 한 서원이었다. 또한 양난후 국가재건사업을 벌일 만한 여력을 갖지 못한 조선왕조는 재지사족들에게 향촌사회의 재건을 맡길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사족들의 서원건립에 관대할 수 밖에 없었다. 서원의 남설은 바로 이런 필요성과 여건에 부응하여 생겨난 새로운 지배체제확립이었다.

초기 서원의 설립에서는 주로 교육적인 기능을 위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다. 국가의 공인을 의미하는 사액서원이 되면 四書·五經·性理大典과 같은 유교서적과 토지, 노비들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서원의 남설기에 들어서면 사액서원은 그 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대부분 재지사족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설립하는 형태가 늘어난다. 즉 향촌사회에서 지방사족들 간의 유대관계와 서민에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나, 유력한 문종의 후손들이 가문이나 종족간의 결속과 상호유대, 대외적 과시를 위한 書院과 祠宇가 다분히 남설되었던 것이다. 특히 봉당정치의 파탄으로 인한 당쟁에서의 소외, 난후 문란해진 신분사회의 동요를 접하면서 중소지주적인 경제기반을 바탕으로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향촌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원을 중심으로 향론을 제어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곧 서원은 그 자체로는 교육적 기구였지만 임난을 겪은후 사람들의 공론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61) 柳洪烈, 1929, 「朝鮮에 있어서의 書院의 成立」, 『정구학보』 29,

62) 渡部學, 「書院의 勃興과 書堂의 變遷」, 『近代朝鮮教育史研究』

63) 李泰鎮, 1978,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한 결집체로써 그들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재구축을 실현시키는 세력기반이었다. 사람의 공론결집은 필연적으로 봉당과 향촌지배를 목표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영향으로 양란이라는 거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향촌사회는 불완전하나마 다시 유교적인 사회로 재편될 수 있었다.

맺음말

조선전국과 함께 실시된 중앙집권체제는 필연적으로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세력을 유지했던 재지사족들의 자치요구와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여기에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유통의 발달은 전통적인 吏胥층과 일반민들의 경제적 권위신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전반적 추세속에서 사람들은 성리학적 입장에서 향촌사회를 재편하여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확보해야 했다. 따라서 사람들의 향촌지배의 움직임은 조선시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향사례·향음주례보급운동, 유향소 복립운동, 향약보급운동, 서원건립활동 등의 사람주도의 일련의 운동은 이런 취지에서 추진되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농촌사회의 분화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신분제의 동요에 따라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질서도 크게 변화되어 갔다. 평민과 천민의 饒戶로의 부상과 기존사족들의 몰락등은 사족지배체제라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던 것이다. 결국 사족에 의한 향촌통치는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통치가 행해지면서 사족의 향촌통제기능은 더욱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반면에 촌락단위로 독자적 기반을 유지하던 토호화된 사족들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급성장한 饒戶富民층들은 국가권력, 즉 수령과 결탁하여 새로운 향촌통제계층으로 급성장하여 줄어든 사족의 향촌지배력을 대체해 나갔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이태진, 1986, 《조선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이태진, 1989, 《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이수건, 1979, 《영남사람과의 형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김덕룡 외, 1990, 《조선후기향약연구》 민음사
 박익환, 1995, 《조선향촌자치사회사》 삼영사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논문--

- 이해준, 1995, 〈사족과 향촌사회〉 《한국역사입문》2 풀빛
 최완기 외, 1983, 〈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한국사론》 8국사편찬위원회
 정승모, 1989, 〈서원·사우및향교조직과 지역체계(上·下)〉 《태동고전연구》3·5
 최완기, 1975, 〈조선 서원 -考-성립과 발달을 중심으로〉 《역사교육》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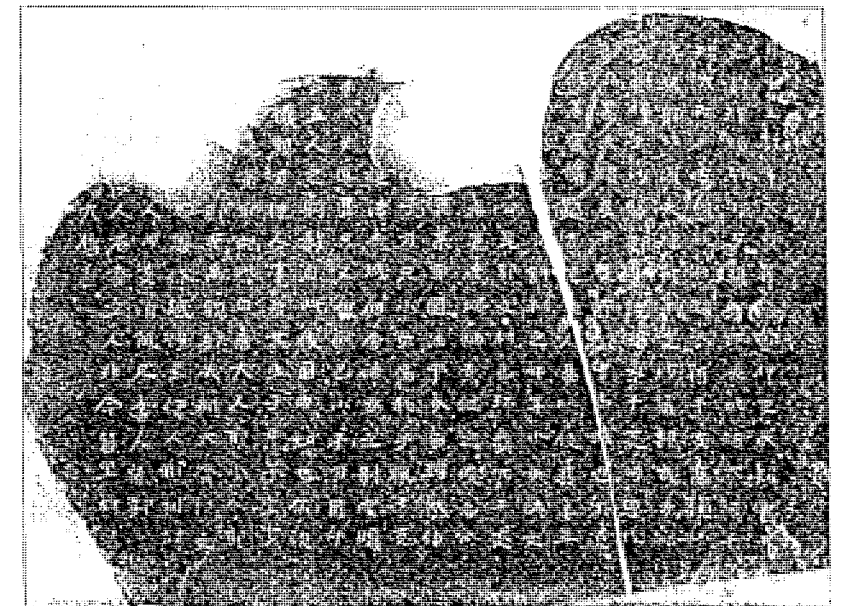
<<부록>>

1. 금석문 - 단양적성비, 중원고구려비
2. 유물·유적의 명칭도
3. 하회탈의 모습
4. 대동여지도



1. 中原高句麗碑 (1979年 4月 5日, 立石部落입구 화단에 서 있을때)

3. 丹陽新羅眞興王赤城拓境碑 拓本



《단양 적성비》

22	20	15	10	5	1	
□□□□□□□□	□□□□□□□□	□□□□□□□□	□□□□□□□□	□□□□□□□□	阿城□□□□	1
□□□□□□□□	□□□□□□□□	□□□□□□□□	□□□□□□□□	□□□□□□□□	干在□□□□	2
□□□□□□□□	□□□□□□□□	□□□□□□□□	□□□□□□□□	□□□□□□□□	支軍□□□□	3
□□□□□□□□	□□□□□□□□	□□□□□□□□	□□□□□□□□	□□□□□□□□	喙部主夫□□	4
□□□□□□□□	□□□□□□□□	□□□□□□□□	□□□□□□□□	□□□□□□□□	中部文等智豆月	5
□□□□□□□□	□□□□□□□□	合弗□□□□□□	□□□□□□□□	□□□□□□□□	作助村喙大弥中	6
□□□□□□□□	□□□□□□□□	懷五兮□□□□□□	□□□□□□□□	□□□□□□□□	善黑檀部阿智王	7
□□□□□□□□	□□□□□□□□	兄勸人女□□□□□□	□□□□□□□□	□□□□□□□□	廬夫主比干攸教	8
智□□□□□□□	□□□□□□□□	弟力之道使□□□□□□	□□□□□□□□	□□□□□□□□	懷智沙次支珍事	9
大人人勿部耶使別豆法子異者公□	□□□□□□□□	□□□□□□□□	□□□□□□□□	□□□□□□□□	勸及喙夫內干大	10
烏石勿思奈如人數只赤刀菜更兄□	□□□□□□□□	□□□□□□□□	□□□□□□□□	□□□□□□□□	力干部智礼支衆	11
之書支伐弗此事自又城只耶赤鄒許使支	□□□□□□□□	□□□□□□□□	□□□□□□□□	□□□□□□□□	道阿夫喙等	12
立次城耽白若此悅佃小國城文利死節設	□□□□□□□□	□□□□□□□□	□□□□□□□□	□□□□□□□□	干智部喙	13
人阿檀郝者其後利舍女法烟村之人教智	□□□□□□□□	□□□□□□□□	□□□□□□□□	□□□□□□□□	支大西部	14
非尺主失大生國已法烏中去已四是事及	□□□□□□□□	□□□□□□□□	□□□□□□□□	□□□□□□□□	沙阿夫伊	15
今書使利人子中小爲礼分使珍年以赤干	□□□□□□□□	□□□□□□□□	□□□□□□□□	□□□□□□□□	喙干叱史	16
皆人人大耶女如子之兮与之妻小後城支	□□□□□□□□	□□□□□□□□	□□□□□□□□	□□□□□□□□	部支智夫	17
里喙那舍小子也刀別撰雖後下女其也勿	□□□□□□□□	□□□□□□□□	□□□□□□□□	□□□□□□□□	武高大智	18
村部利鄒人年尔羅官干然者干師妻尔思	□□□□□□□□	□□□□□□□□	□□□□□□□□	□□□□□□□□	力頭阿伊	19
村文耶少次兮賜支伊公支文三次伐智林	□□□□□□□□	□□□□□□□□	□□□□□□□□	□□□□□□□□	干干	20

(첫째) ... (年) ... 月에 王¹⁾이 大衆等²⁾인 喙部³⁾ 출신의 伊史夫智⁴⁾ 伊干支,⁵⁾ (沙喙部⁶⁾ 출신의?) 豆弥智⁷⁾ 攸珍干支,⁸⁾ 喙部 출신의 西夫叱智 大阿干支,⁹⁾ □□夫智¹⁰⁾ 大阿干支, 內礼夫智¹¹⁾ 大阿干支, 高頭林城¹²⁾에 있는 軍主¹³⁾들인 喙部 출신의 比次夫智¹⁴⁾ 阿干支,¹⁵⁾ 沙喙部 출신의 武力智¹⁶⁾ 阿干支, 鄒文村¹⁷⁾ 檀主¹⁸⁾인 沙喙部 출신의 道設智¹⁹⁾ 及干支,²⁰⁾ 勿思伐(城 檀主)²¹⁾인 喙部 출신의 助黑夫智 及干支에게 敎하시었다.

(둘째) 이 때에 赤城 출신의 也尔次²²⁾에게 敎하시기를 ... 중에 옳은 일을 하는

네 힘을 쓰다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까닭으로 이후 그의 쫓인 三²³⁾ ... 에게
는 ... 利를 許하였다.

(세째) 四年²⁴⁾ 小女²⁵⁾ 師文 ... 公兄²⁶⁾인 鄒文村 출신의 巴珍婁 下干支²⁷⁾ ...
(前)者²⁸⁾는 다시 赤城烟으로 가게 하고²⁹⁾ 後者 公兄은 ... 異葉³⁰⁾이건 國法³¹⁾
에는 分與하지만 비록 그러하나 伊 ... 子³²⁾ 刀只³³⁾ 小女, 烏礼兮 撰干支³⁴⁾
... 法을 赤城佃舍法³⁵⁾으로 만들었다.

(넷째) 별도로 官³⁶⁾은 ... 弗兮³⁷⁾ 女, 道豆只又悅利巴³⁸⁾ 小子, 刀羅兮³⁹⁾ ... 합하
여 五人에게 ... 를 내렸다.

(다섯째) 별도로 敎하기를 이후로부터 나라 가운데에 也余次와 같이 ... 읍은
일을 하여 힘을 쓰고 남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면⁴⁰⁾ 만약 그가 아들을 낳
건 딸을 낳건 나이가 적건 (많건) ... 兄弟이건 이와 같이 아뢰는 자가 大人⁴¹⁾
인가 小人인가 ...

(여섯째) ... 部⁴²⁾ 출신의 奈弗耽郝失利 大舍⁴³⁾ 鄒文(村) ... 勿思伐城檀主使人⁴⁴⁾
은 那利村⁴⁵⁾ ... 人은 勿支次 阿尺⁴⁶⁾ 書人⁴⁷⁾은 喙部 출신의 ... 人石書立
人은 非今皆里村⁴⁸⁾ ... 智⁴⁹⁾ 大烏⁵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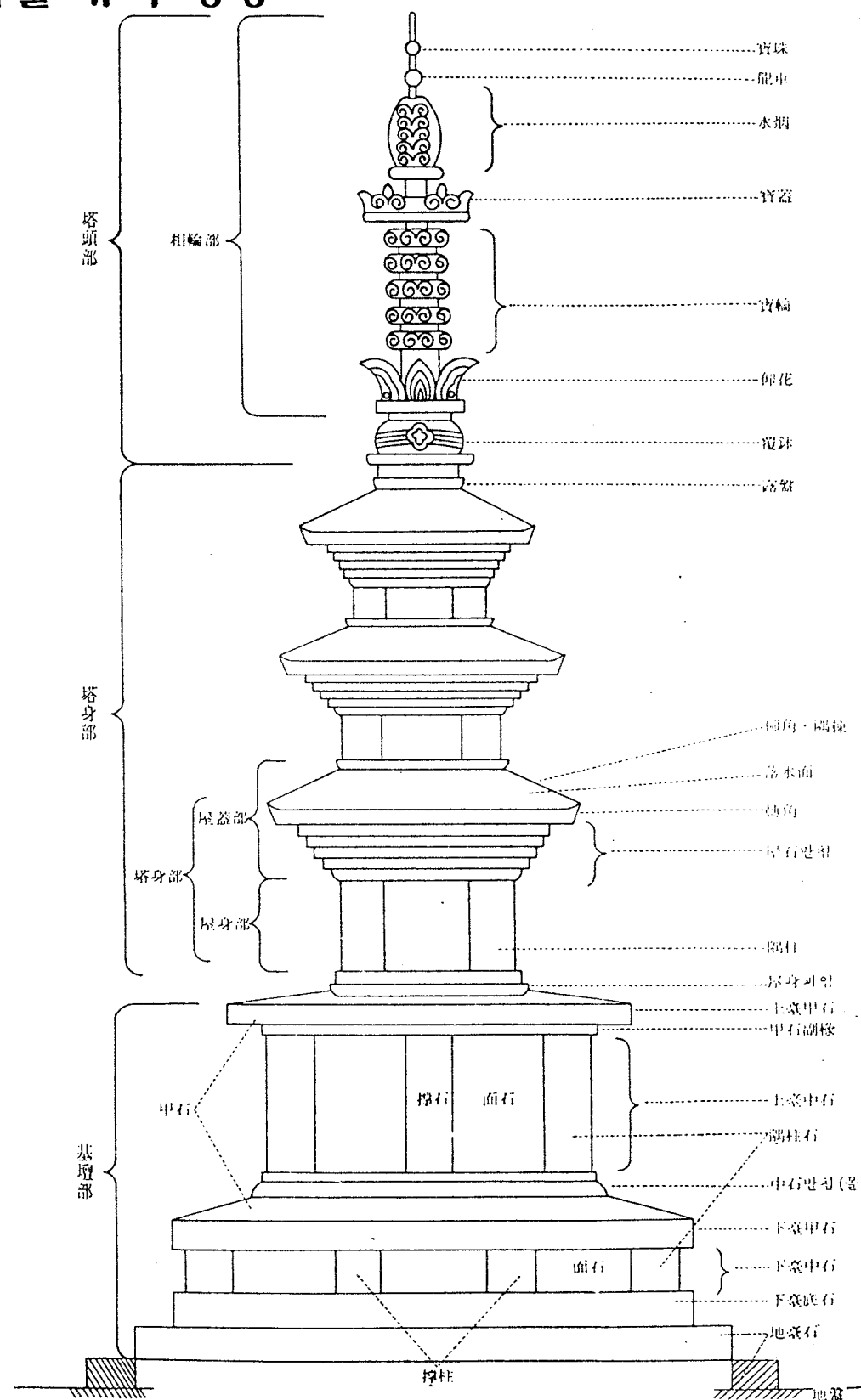
<<중 원 고구려비>>

<前面>

五月中高麗大¹⁾王相²⁾王³⁾公⁴⁾□⁵⁾新羅寐⁶⁾錦世世爲願如兄如弟,
上下相和⁷⁾守天東⁸⁾來⁹⁾之¹⁰⁾寐¹¹⁾錦忌太子共前部大¹²⁾使者多亏¹³⁾桓,
奴主簿道¹⁴⁾德¹⁵⁾□¹⁶⁾□¹⁷⁾□¹⁸⁾安¹⁹⁾□²⁰⁾□²¹⁾去²²⁾□□到²³⁾至²⁴⁾跪營²⁵⁾□²⁶⁾
太子共□²⁷⁾
尙²⁸⁾□²⁹⁾上共看節賜太³⁰⁾翟³¹⁾郢³²⁾□³³⁾食³⁴⁾□³⁵⁾□³⁶⁾賜³⁷⁾寐³⁸⁾錦之衣服
建立處³⁹⁾
用⁴⁰⁾者賜之隨⁴¹⁾者⁴²⁾節⁴³⁾□⁴⁴⁾□⁴⁵⁾奴客⁴⁶⁾人⁴⁷⁾□⁴⁸⁾敎⁴⁹⁾諸⁵⁰⁾位賜上⁵¹⁾下⁵²⁾
衣⁵³⁾服⁵⁴⁾敎東,
夷寐⁵⁵⁾錦逌⁵⁶⁾還來節⁵⁷⁾敎賜寐⁵⁸⁾錦⁵⁹⁾土⁶⁰⁾內⁶¹⁾諸⁶²⁾衆⁶³⁾人⁶⁴⁾□⁶⁵⁾□⁶⁶⁾□⁶⁷⁾
□⁶⁸⁾王⁶⁹⁾國土,
大⁷⁰⁾位諸⁷¹⁾位上下衣服衆⁷²⁾受敎跪營⁷³⁾之⁷⁴⁾十二月廿三日⁷⁵⁾甲寅東,
夷寐⁷⁶⁾錦上⁷⁷⁾下至于伐城敎來⁷⁸⁾前部大⁷⁹⁾使者多亏⁸⁰⁾桓奴主簿□⁸¹⁾
□⁸²⁾□□境□募人三百新羅土內幢主下部拔⁸³⁾位使者補⁸⁴⁾奴,
□□奴⁸⁵⁾□⁸⁶⁾□⁸⁷⁾□⁸⁸⁾□⁸⁹⁾盖盧共⁹⁰⁾□⁹¹⁾募人新羅土內衆人拜⁹²⁾動□⁹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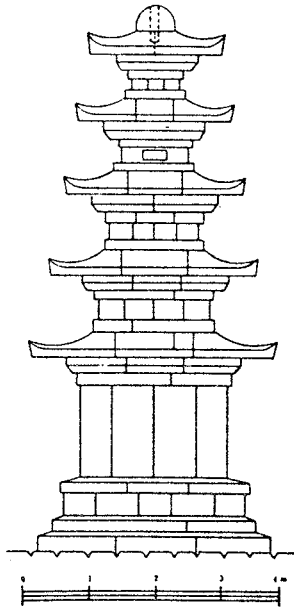
<左側面>

□□□中⁹⁴⁾□□□□⁹⁵⁾城⁹⁶⁾不□⁹⁷⁾□⁹⁸⁾村舍□□□□⁹⁹⁾□□¹⁰⁰⁾□沙¹⁰¹⁾
□,
□□□□□□□□¹⁰²⁾班¹⁰³⁾功□¹⁰⁴⁾□□□□□□□節人□□□,
□□□□¹⁰⁵⁾□□辛¹⁰⁶⁾酉¹⁰⁷⁾年¹⁰⁸⁾□□□十¹⁰⁹⁾□□¹¹⁰⁾□¹¹¹⁾□□太¹¹²⁾王
國土□,
□□□□□□□□□□□□¹¹³⁾□□□□□□□□□□¹¹⁴⁾□,
□□□□□□□□□上有□¹¹⁵⁾□¹¹⁶⁾酉¹¹⁷⁾□□□□東夷寐¹¹⁸⁾錦土,
□□□□□□方¹¹⁹⁾□¹²⁰⁾桓¹²¹⁾□¹²²⁾沙□斯色¹²³⁾□¹²⁴⁾□古郢加共軍至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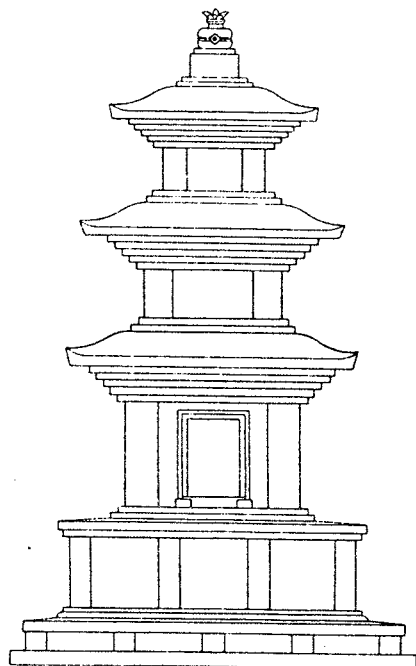
시대에 따른 탑의 양식

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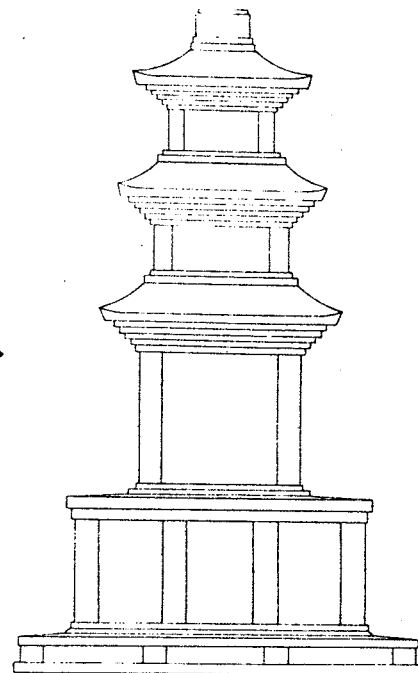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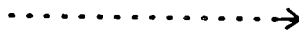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扶餘定林寺址五層石塔)

통일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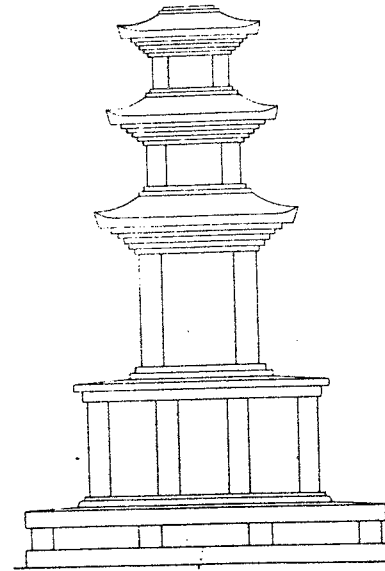


선사지삼층석탑(高仙寺址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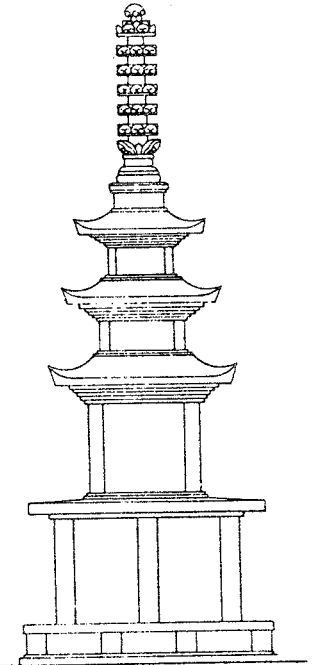


경주구황리삼층석탑(慶州九黃里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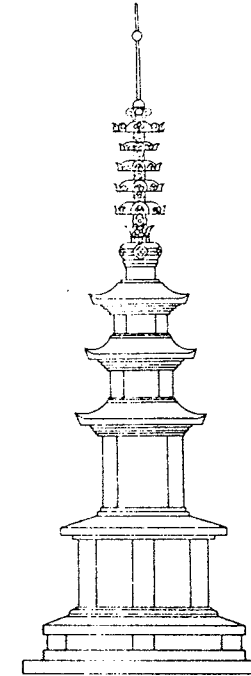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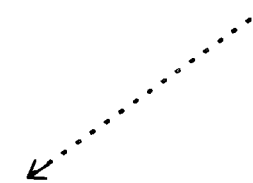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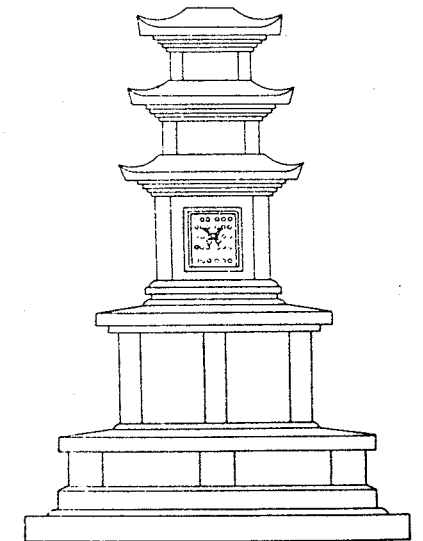
녕술정리동삼층석탑(昌寧述亭里洞三層石塔)



보림사삼층석탑(寶林寺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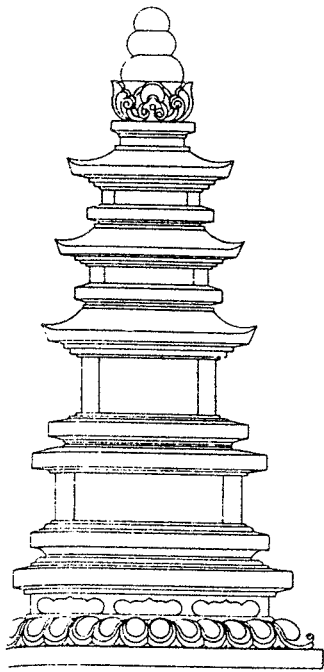


실상사삼층석탑(實相寺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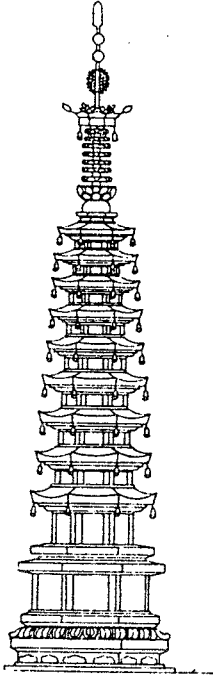


성주사지서삼층석탑(聖住寺址西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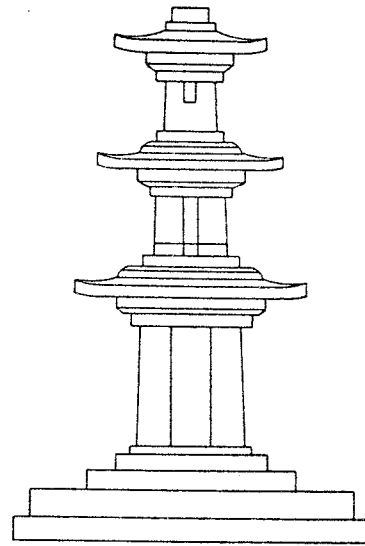
고려시대



신복사지삼층석탑
(神福寺址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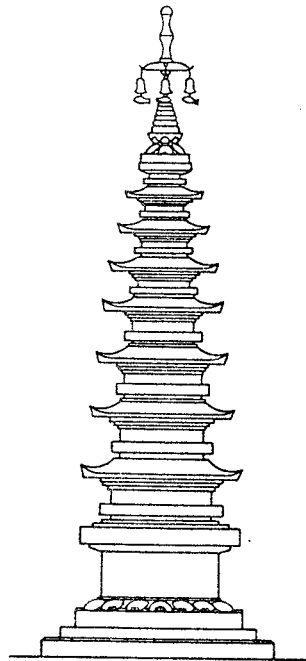


월정사팔각구층석탑(月精寺八角九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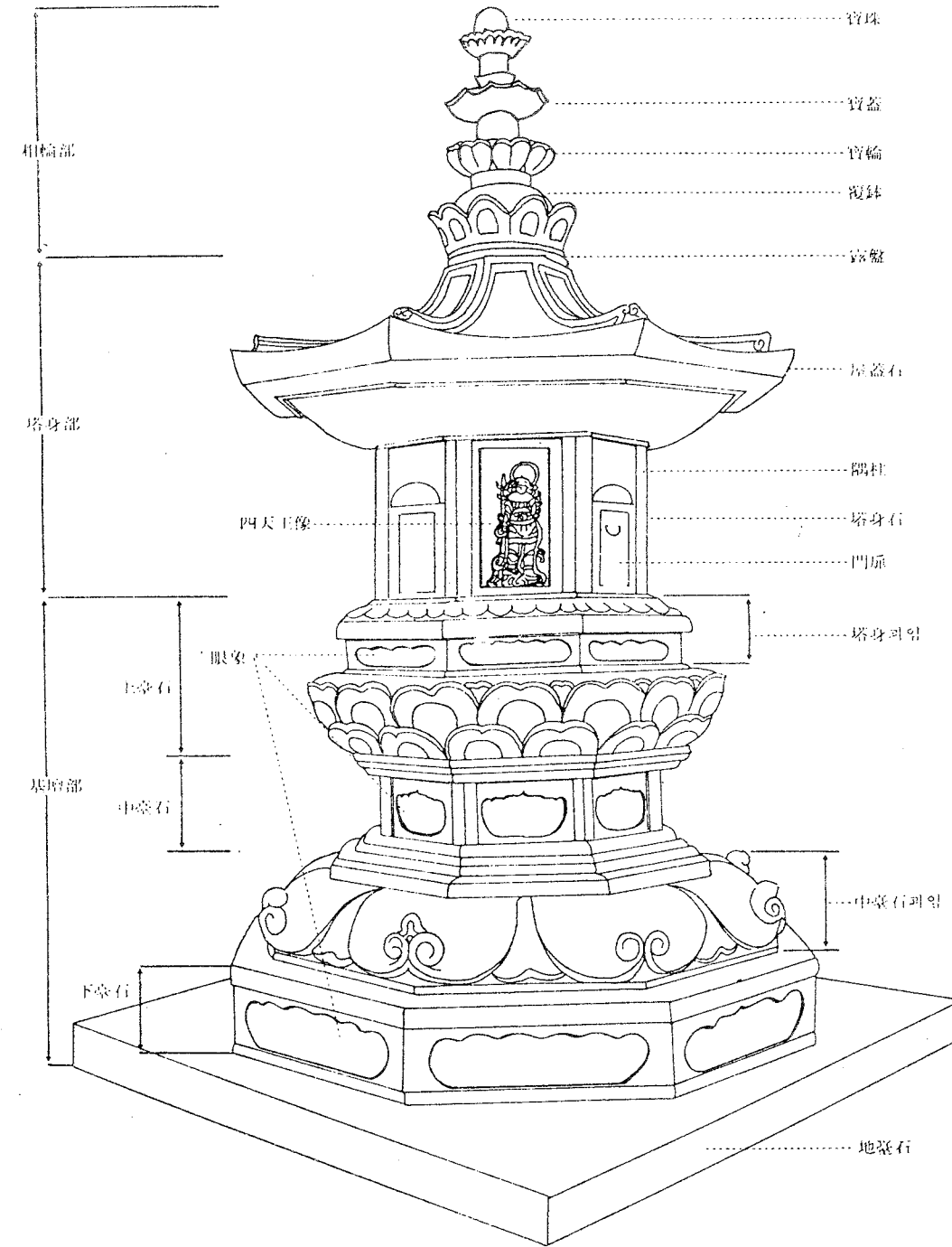


부여장하리삼층석탑
(扶餘長蝦里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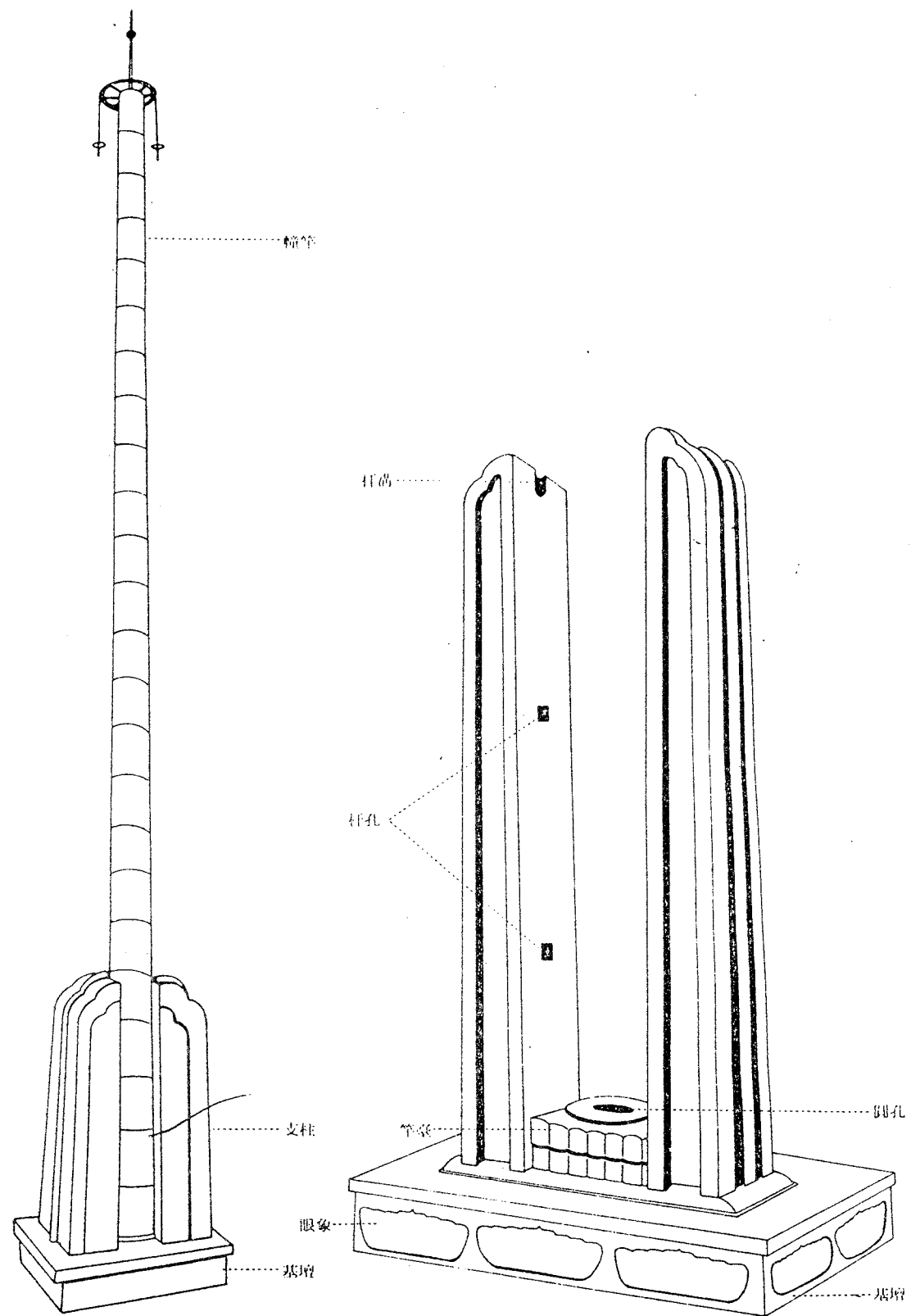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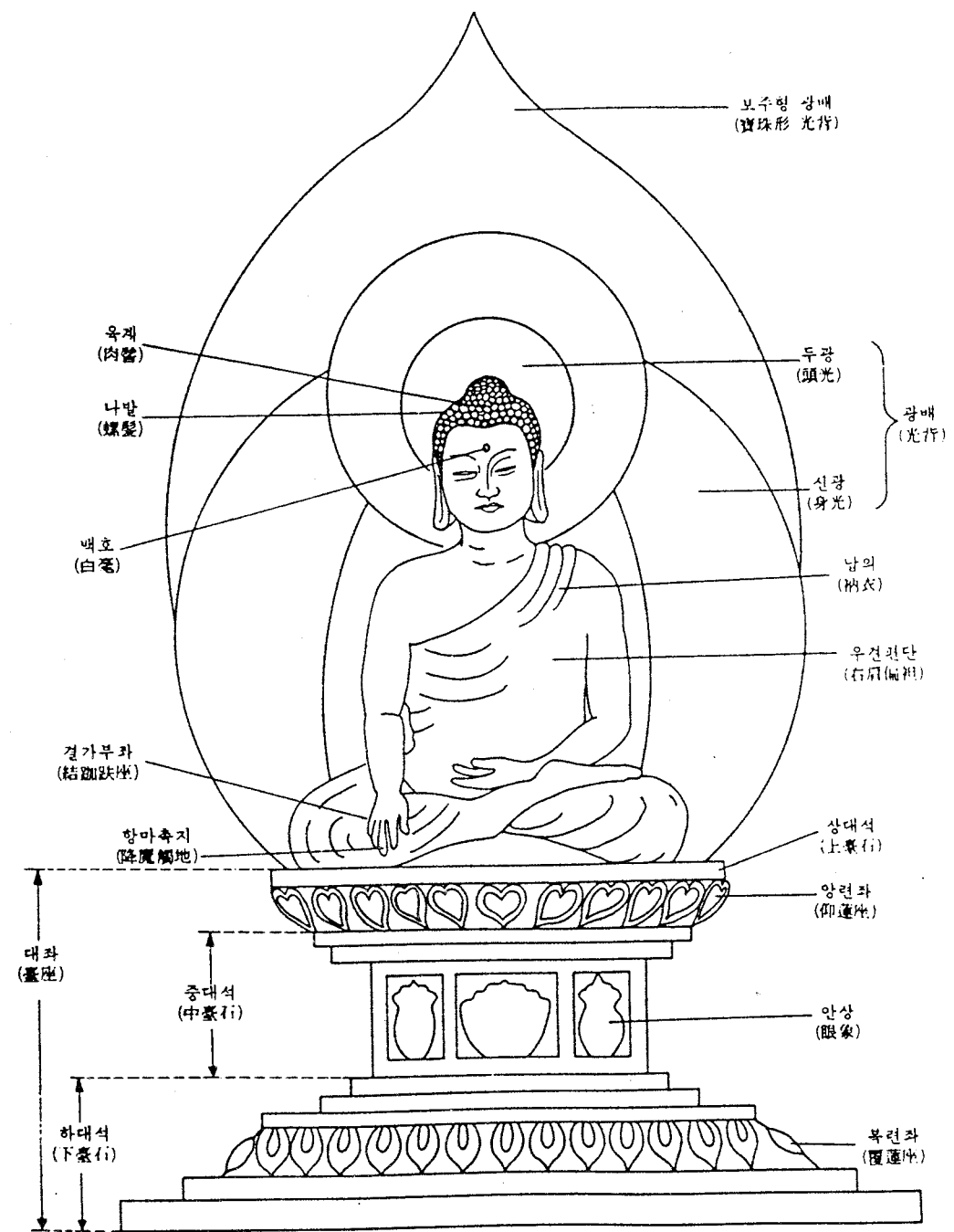
낙산사칠층석탑(洛山寺七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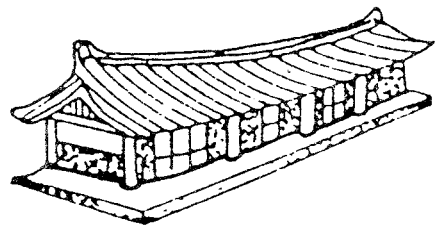


阜도(浮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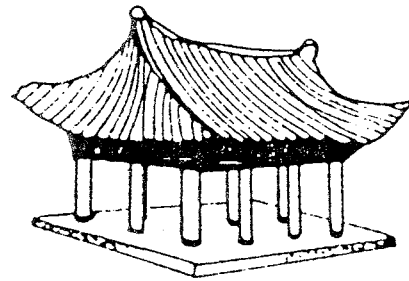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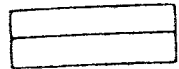


당간지주(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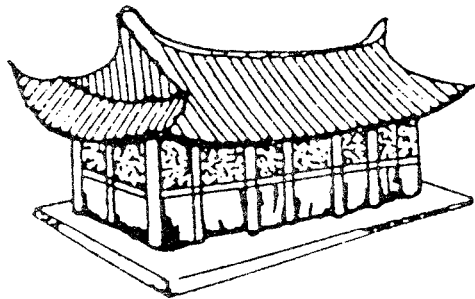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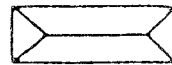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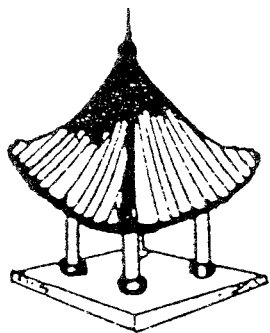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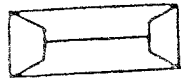
맞배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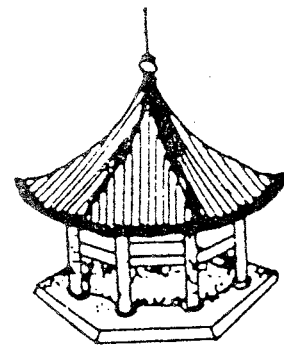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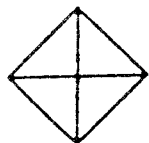
우진각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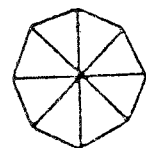
팔각지붕



사각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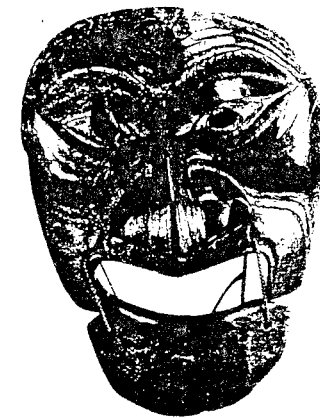
팔모지붕



지붕의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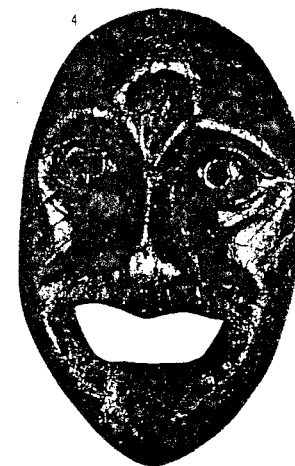
양반탈



선비탈



백정탈



할미탈



이매탈



조랭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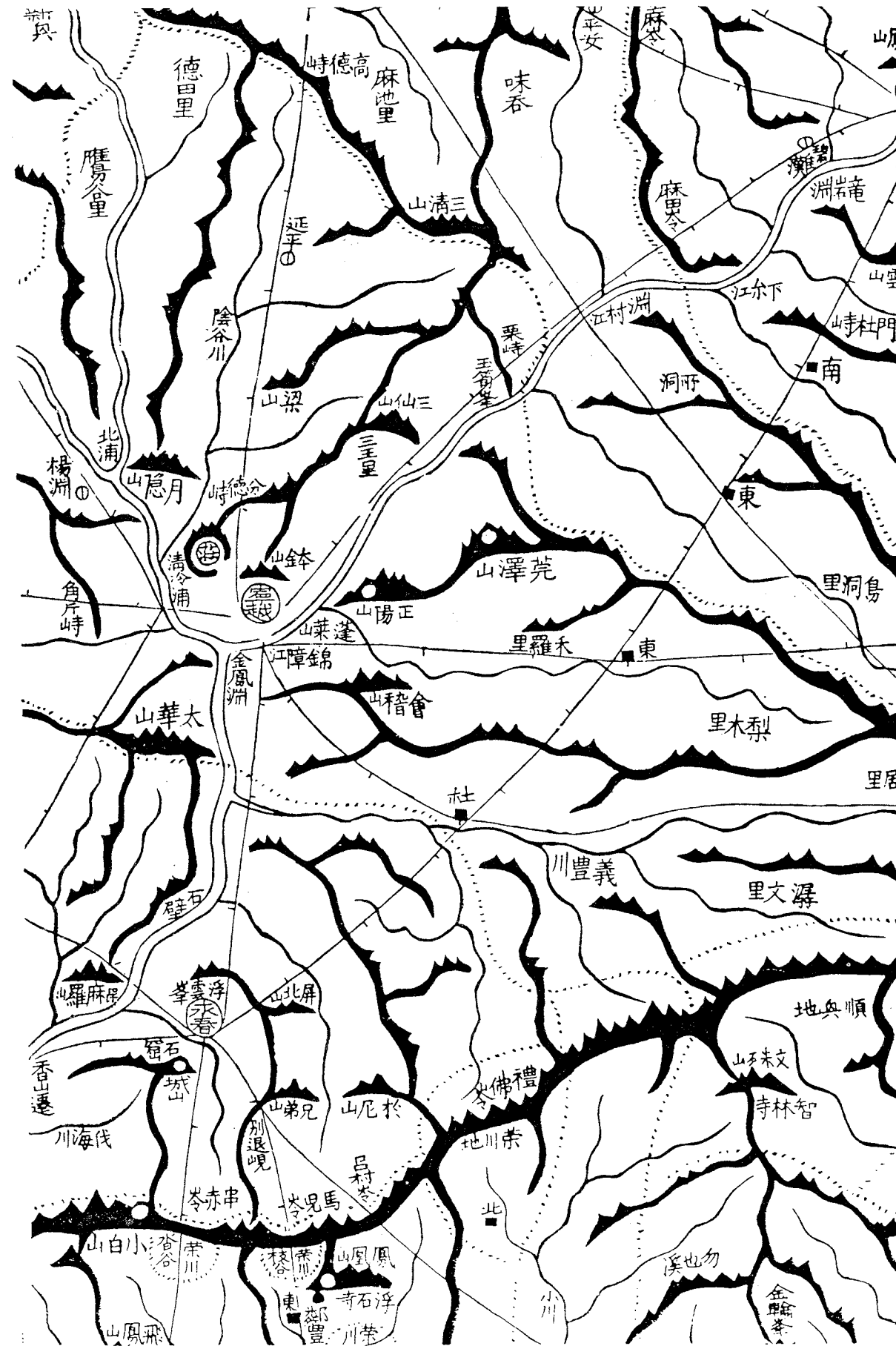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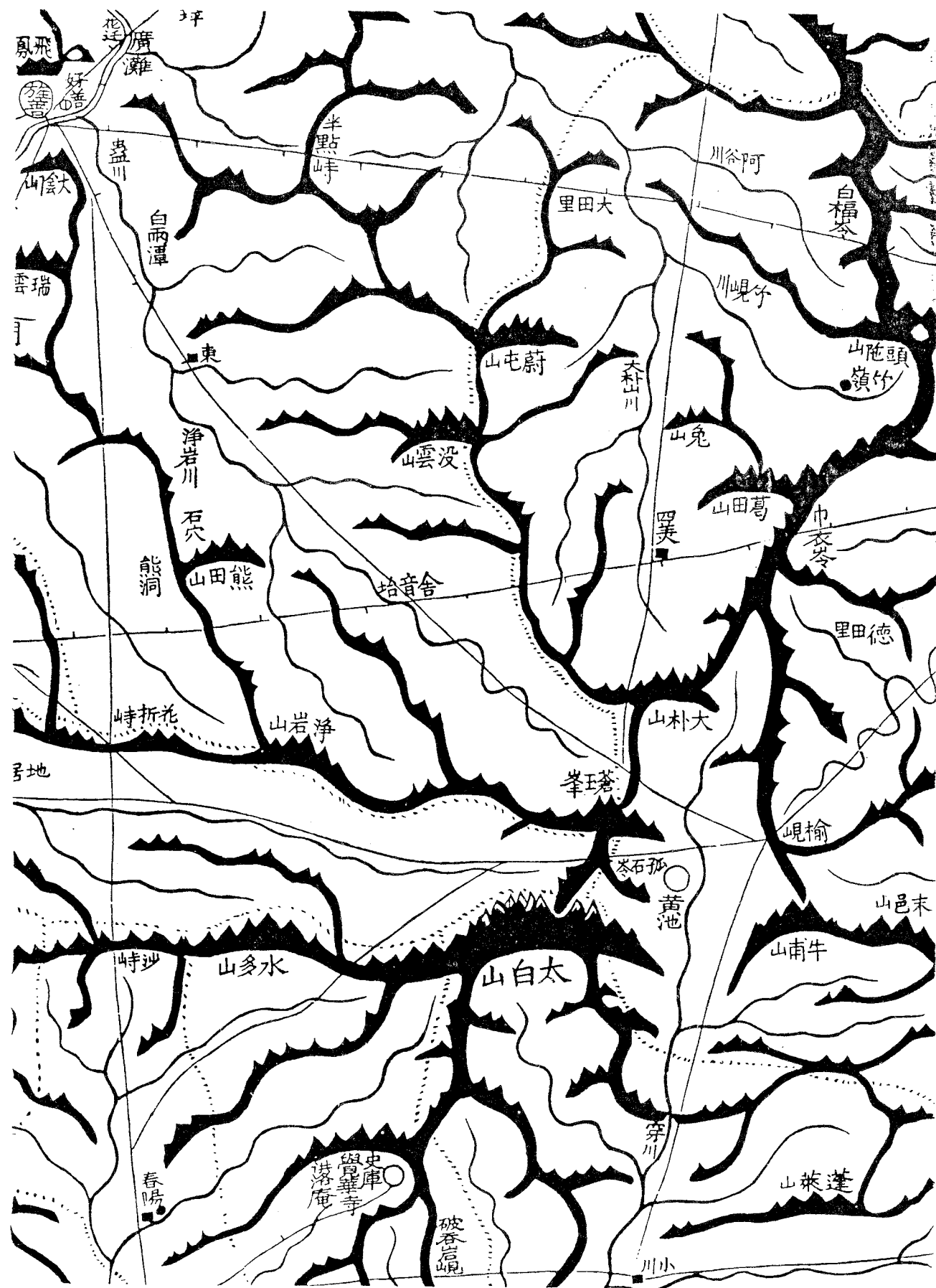
부네탈



각시탈



중탈



답사를 준비한 사람들

주 체 : 황희경

실 무 : 전희영

답사지 : 홍성연

사전답사 : 장철성, 김병석, 이상훈

논 문 : ① 김선, 신선옥

② 조준오, 윤득조

회 계 : 전수현

홍 보 : 이자영

편 집 : 김대규, 박현정, 이지현, 홍성연

코 스 : 홍성연, 황희경

현지진행 : 강정훈, 김청강, 장철성, 정장원

기 타 : 이민선, 박소영

답사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학우들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원 조교장이신 이재운 선배님과 전운선 선배님, 박미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답사 주체였던 3학년 함옥희, 김재환, 지성택 선배님의 많은 조언과 도움 감사드립니다. 총학에서 많이 수고해주신 4학년 이상훈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2학년이 주체가 된 답사라서 서툴고 미흡한 점도 많겠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